

문집 나의 한국, 나의 일본  
文集 私の韓國、私の日本



편집 아마노마쓰오  
編集 天野松男

表紙写真

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 二十七代孫 嘉善大夫

盆城裴公諱龍瑾之遺像

生 1848년 9월 20일

卒 1918년 2월 21일

墓 金海市萬丈臺 茶山 土城下 氷庫下嶺良坐

(黃海年 씨 제공 黃海年さん提供)









문집 나의 한국, 나의 일본  
文集 私の韓国、私の日本



## 序 文

今年は、韓日併合 102 年目になる年であり、終戦 67 年目になる年でもある。折しも今から 70 年ほど前の、夢多き幼少年時代を日本で暮らした方々の経験した苦しかった様々なことを文集に出すことになった。これは鬱憤を吐き出すということより、心中に抱いている心の傷をさらけ出し、相互理解を深め、ついに韓日・日韓両国がより近い間柄になさることを図るためであろう。

なぐれた側は過去の自分の過ちをすぐ忘れ勝ちである。しかしなぐられた側はそれをなかなか忘れられないのが人情の常である。お互いに過去を振り返ってみながら過ちがあれば真剣に謝り、相手の固まった心のしこりを解けることである。

日本の方々は、祖先たちの過ちを心から謝っている。しかし日本政府の閣僚レベルになると話が違ふ。尚且つ、就職を餌にして誘引、結局日本軍の慰安婦に転落されたのだ。祖国は解放を迎えた。ところでいざ彼女たちは悦びどころかむしろ陰地に潜んで苦しい一生を暮らさ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しかし日本は謝るどころか、あえてその事実まで認めようとししないのが現実である。

一方、世界大戦の戦犯国であるドイツはどうであろうか。1970 年末頃、ワルシャワを訪問したビルリ・ブランツ元西ドイツ総理は、その間、ナチが犯した蛮行により二十万の犠牲者を出した過ちに対し、犠牲者の慰霊塔の前に両膝を屈し、平身低頭して謝った。1994 年、ワルシャワ蜂起、50 周年記念式に参会した、ヘルチョコク、ドイツ元大統領は、過去ドイツが犯した過ちに対し、頭を下げて謝りながら真剣に詫びた。ドイツは機会ある度に謝りながら詫びている。日本とドイツは、同じ戦犯国として何故このように事態の認識に隔たりがあるのだろうか。

韓半島は、日本がそれほど渴望してきた大陸文化を受け入れる先進文化の入り口であった。長い間、韓半島を通じて受け入れた文化を発展させて日本文化を花咲かせて来たのである。文禄慶長

の役の七年と日帝三六年間の植民地時代は、長い歴史の内、極くわずかな期間に過ぎない。

先覚者安重根義士が唱えたように十九世紀初、もしも日本が隣国の侵略を止めて東亜が連帯、欧米の植民地支配に抵抗、共生を図ったならば、世界の版図は既に変っているだろう。

イエール大学ポール・ケネディ教授は、15世紀初めからのローマ時代を経て英国の産業革命についで文明は、今アメリカを経て東洋に移動している、と指摘した。滔々と流れる文明の流れを堅実に花咲かせるためには、韓・中・日の三国の協力が何より重要な時期である。

ところが最近、独島（竹島）の領有権の問題で玄海灘の波高が波打っている。小を食って大を失うという言葉があるように、日本も小川で餌争いすることなく、大洋の大きな鯨をみる知恵に臨んでほしい。宴の興を冷ますなど、愚の骨頂なことは起こさないだろうと信じたい。

この度、未来志向的思考する動きが見られて幸いである。かつて先見の明があつて、韓日両国の重要性を見抜き、韓日両国が真のお隣の間柄になさるように色々と心を尽くして下さる、天野松男先生に心から感謝する。

2012年10月15日

K・J Club 會長

同人誌 緑風会編集委員

曹 京植



## 서 문

금년은 한일합방 102 년째가 되는 해이며, 해방된지 67 년째가 되는 해이다. 때마침 지금으로부터 70 여년전에 꿈 많은 유소년시절을 일본에서 살아온 분들이 격었던 고통스러웠던 갖 가지 생생한 사실들을 들춰내 문집으로 엮어 드디어 세상에 내 놓게 되었다.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금방 잊게 마련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여간해서 잊혀지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서로 과거를 되돌아 보면서 서로의 잘 잘못이 있으면 진지하게 사죄하여, 상대로 하여금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 버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인들 한분 한분은, 선조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 관료들의 수준에서는 얘기가 다르다. 취업을 미끼로 유인 결국 일본군 위안부로 전락, 조국은 해방을 맞았다. 그러나 막상 그녀들은 기쁨보다 음지로 숨어들어 고통속에 일생을 보내지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사죄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 사실마저 인정치 않고 부정하기 일쑤다.

한편, 제 2 차대전의 전범국인 독일은 어떻했는가. 1970 년대 말, 바르샤바를 방문한 빌리 부란트 당시 서독총리는 대전당시 나치가 범한 야만행위로 20 만의 희생자를 낸 잘못에 대해 희생자 위령탑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였다. 1994년 바르샤바 봉기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헤르쾅크 독일 당시 대통령은, 과거 독이 범한 잘못에 대하여 머리숙여 사죄하고 용서를 빌었다. 독일은 기회 있을때 마다 사죄하며 용서를 빌었다. 일본과 독일은 세계대전을 일으킨 같은 전범국인데 어찌하여 사태를 보는 인식이 이처럼 큰 차이가 있을까.

한반도는 일본이 그토록 갈망하는 대륙문화를 받아드리는

선진문화의 창구였다. 오랫동안 한반도를 통해 받아드린 문화를 발전시켜 일본문화를 꽃피워 왔다. 임진왜란 7 년과 일제식민 시대 36 년은 긴 역사속에서는 극히 짧은 기간에 불과하다.

선각자 안중근 의사가 부르짖듯, 19 세기 초, 일본이 이웃을 침략 하지 않고 동아시아가 연대하여 구미의 식민지배에 저항, 공생을 도모 했더라면 세계의 판도는 이미 달라져 있겠지요.

예일대 폴 케네디 교수는 15 세기부터 시작된 로마시대를 거쳐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이어진 문화 혁명이 이제는 아메리카를 거쳐 동양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도도이 흐르는 문명의 물줄기를 효과적으로 꽃피우기 위해서는 한 중 일 의 3 국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이다. 최근 獨島(竹島)의 영유권 문제로 현해탄의 파고가 높다. 일본도 개울에서 작은 먹잇감으로 다룰것이 아니라 대양으로 나아가 큰 고래를 보는 지혜로, 소탐대실 즉, 큰 잔치에 재 뿌리는 어리석은 일은 일으키지 않으리라 믿고싶다.

요즈음 미래지향적으로 사고하는 움직임이 엿보여 다행이다. 선견지명이 있어 한일양국의 중요성을 간파 한일 양국이 진정한 이웃의 관계로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天野松男先生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이다.

2012 년 10 월 15 일

K·J Club 會長

同人誌 綠風会編集委員

曹 京植



입력·번역 협력자 入力・翻訳協力者

金相晩

釜山日語奉仕会監事

朴清九

釜山市沙下区老人福祉館日本語講師

釜山市中區 Silver 日本語通訳奉仕団

韓日友好交流会會員

卓坪準

釜山市自願奉仕 Center (Global 日本語奉仕団)

南光社会福祉會日本語講師

李春鶴

KCLA 韓日交流会 會長

元老坊 KJ 俱樂部 (韓日懇親交流会)

日本語通訳 (文化遺産解説士)

任東煥

KCLA 韓日交流会

新釜山日本語奉仕会

文化遺産 (日本語) 解説士

韓国ボランティア連合会釜山支部日本語 (中級班) 講師

李秉喆

カトリック큰빛財団視覚障碍人宣教会ボランティア

ベネディクト日本語翻訳(電子電気通信制御システム技術専門)

(주)엔쓰리 Mechatronics 制御技術諮問委員



목차 目次

서문 序文 曹京植 .....	003
입력·번역 협력자 入力・翻訳協力者 .....	007
목차 目次 .....	009
001 禹治勳 .....	013
002 鄭渭植 .....	019
003 朴次欽 .....	027
004 羅鳳道 .....	029
005 康玉哉 .....	035
006 李圭煥 .....	039
007 金三生 .....	041
008 河光範 .....	047
009 黃海年 .....	055
010 朴瓚熙 .....	061
011 裴萬復 .....	063
012 金哲宇 .....	065
013 卞相馥 .....	071
014 金成泰 .....	075
015 金乙歡 .....	079
016 朴清九 .....	085
017 金完厚 .....	089
018 申英湜 .....	093
019 吳眞熙 .....	095
020 朴克己 .....	101
021 卓坪準 .....	107
022 鄭基鎬 .....	113
023 梁在鉉 .....	119

024	申和出	125
025	李賢道	131
026	曹京植	139
027	李春鶴	145
028	朴相純	155
029	金斗滿	159
030	孫必脛	165
031	崔貞美	169
032	李炳壽	175
033	金仁熙	183
034	吳景煥	191
035	姜泰植	197
036	玉英均	205
037	金武振	213
038	任東煥	217
039	崔善吉	223
040	溫次源	231
041	金貞贊	235
042	金永大	239
후기	あとがき	247
참고 자료 參考資料		
(1)	문집 간행의 취지 文集出版の趣旨	252
(2)	일본의 식민지 통치 시대에 태어난 인구 日本の植民地統治の時代に生まれた人口	255







(2011년 07월 11일)

## 禹 治 勳

常磐公園の桜の花弁が春風に吹かれてひらひらと池の水の上に落ちてゆくのをじっと見つめていました。私が小孝校五年の時のことです。新学期が始まって新しく担任の先生が赴任して来ました。初対面の印象が恐かった。数日過ぎた読方の時間でした。満州事変の話題の途中先生が俄に朝鮮の匪賊が日本人の工場を破壊し農民の食糧や財産等を凌奪して日本人を苦しめている、此の匪賊が朝鮮人である、と大声を張り上げて私を睨みつけるのです。私は棒で頭を殴られた様な衝撃を受け先生の顔を見ることも出来ず、生徒達の視線は一斉に私の方に集中していました。私は唯々顔を机の上に俯いているしかどう仕様もなかった。

도기와 공원 (常盤公園) 의 벚꽃이 봄바람에 한 잎 두 잎 떨어져 가는 모습을 아무 생각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이었다. 신학기가 시작되어 새로운 담임선생님이 부임해 왔다. 첫 인상이 대단히 무서웠다. 며칠 지나서 국어 시간이었다. 만주사변의 이야기가 나오자 선생님이 갑자기 조선의 비적이 일본인의 공장을 파괴하고, 농민의 식량과 재산을 약탈하고 일본인을 괴롭히고 있다며

큰소리치며 나를 쏘아보았다. 나는 무엇에 머리를 맞은듯한 충격을 받아 선생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학생들의 시선은 일제히 나에게로 집중되어 나는 그저 책상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수 밖에 없었다.

私は放課後、孝校を飛びだして常磐公園の池の畔でひとり桜の花の散るのを眺めていました。家に帰ったのが七時頃でした。母は今日孝校で何が起きたのかと心配な顔で、「どうしたの政夫?」と聞きました。私は黙ってお父さんの前に座って今日孝校で起きた話をしました。

나는 방과 후 학교를 뛰쳐나와 “도기와 공원”의 연못가에서 혼자 벚꽃 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집에 가니 7 시가 지났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마사오?”하고 물었다. 나는 아무말 없이 아버지 앞에 앉아서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父は暫く黙っていましたが、「政夫、これを見なさい」と足を私の前に出しました。父は片方の足が跛です。父は「これはどうして跛になったのか、お父さんの話すことを聞きなさい。お前が生まれる前の一九一九年の事だ。儂は故郷（忠清北道永同郡）で当時この村では篤志家で財産も豊富で何一つ不足なく暮らしていた。或る日二人の若者が訪れて『お金を調達して下さい』と言われた。」来月の「永同の市」の日に萬歳をするための太極旗を造る資金でした。父は承諾しました。此が有名な「永同」市場の萬歳事件です。その後、父は日本の憲兵に拘束され、両足をロープで縛られて、銃剣を足の上に押し込み捻られ、両足の骨が折れてしまいました。幸いに片方の足は治療の結果が良く回復しましたが、片方の足は不具になりました。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잠자코 있었다가 “마사오, 이것을 보아라”하고 다리를 나에게 보여주었다. 아버지는 한쪽다리가

불구이다. 아버지는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야기 해주셨다. 내가 태어나기 전 1919년 일이다. 아버지는 고향(충북 영동군)에서 당시 마을에서는 부자로서 재산도 풍부하고 아무 부족 없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두 청년이 집에 찾아와 “돈을 조달해 주세요”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승낙하였다. 그 돈은 다음 달 ‘영동장날’ 만세를 부를때 태극기를 만들 기금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유명한 영동 만세소동이다. 아버지는 그 후 일본 헌병에게 구속되어 두 다리를 밧줄로 묶여 총검을 두 다리 사이로 집어넣고 쫓히는 바람에 두 다리뼈가 부러져 버렸다. 다행이 한쪽 다리는 치료 경과가 좋아 회복되었지만 다른 한쪽 다리는 불구가 되어버렸다.

父は其の後釈放されましたが、官憲の目は父から離れなかったのです。父は中国に避身しましたが、身寄りも何も無い他国では生活することが出来ず、家族の為にも致し方なく徴用に仕願して日本の筑後(ちくご)炭鉱に従業しました。「其の後伝手を求めて各地を転々として来たのだ。誰を怨むことはない、祖国、詰まり国がないからだ。お前は一生懸命勉強して彼等に負けずに頑張るのだ」と言われました。当時、幼い心にも何かじーんと胸の疼きがあったことを覚えています。

아버지는 그 후 석방되었으나 관형의 눈은 항상 아버지를 따라 다녔다. 아버지는 한동안 중국에 피신했으나 낯선 타국 땅에 아무도 아는 친지도 없는 곳에서 도저히 생활 할 수가 없어 고향에 돌아와 가족을 위해 징용에 지원하여 일본 치쿠고 탄광(筑後炭鉱)에 가기로 결심했다. 그 후 연줄 을 찾아 각지를 전전했다. 아버지는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다. 요는 나라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너는 열심히 공부하고 그들에게 지지 말고 노력하여라”고 말씀하셨다. 당시 어린 마음에도 가슴의 설렘을 기억하고 있었다.

切實な望み我にあり      간절한 소망이 나에게 있다  
諍いのない國と國なり      말다툼이 없는 나라와 나라

韓国に帰って大変苦労しました。言葉が通じないし、韓国のハングル文字も解らない、就職もできない。ちょうど鉄道会社の募集があり、試験を受けて運良く合格しましたが、1950年6月25日韓国動乱で海軍に志願して、休戦で除隊。

한국에 귀국해서 힘들었다. 말이 통하지 않는데다가 한글을 몰라서 취직도 할 수 없었다. 때마침 철도국에서 모집시험이 있어서 응시하여 운 좋게 합격되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동란이 발생해서 해군에 지원하고 휴전으로 제대했다.

1963年に日韓交流が成立して日本人観光客が訪問、同級生に逢ひました。其の時の感情は言葉にて表現できません。本当に嬉しかったです。

1963년 한일 교류가 정상화 되어 일본인 관광객이 방문했는데 동창생을 만났다. 그 때의 감정은 어떻게 표현 할 수 없었다. 정말 기뻐다.

한국명 韓國名 禹治勳

일본명 日本名 池田政夫

출생지 出生地 일본 日本

생년월일 生年月日 1927년 9월 18일

일본에서 살았던 곳 日本で住んでいたところ

福岡縣筑後炭鑛、山口縣宇部市

한국으로 돌아간 해 韓國へ歸った年 1946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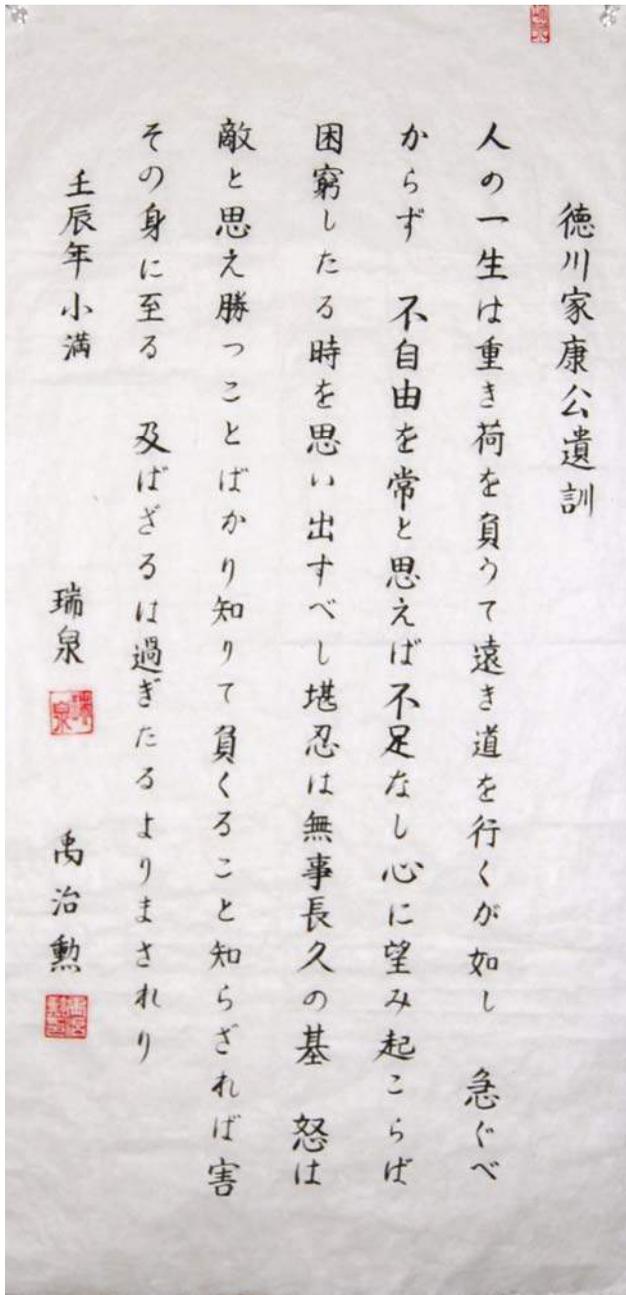
현주소現住所 부산시 釜山市



지하철 남포 역에서 地下鉄南浦駅にて (2011년 4월 30일)



지인정위식 씨와 知人の鄭渭植さんと (2012년 2월 11일)



서도 작품 書道作品



(2012년 02월 11일)

## 鄭 渭 植

1. 幼い頃、朝鮮人といじめられたのが悲しかった事。  
어린 시절, 조선인이라고 왕따당한 것이 슬펐던 일.
2. 小学校時代、先生がこの学校は朝鮮人ばかりと言われた事。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이 이 학교는 조선인 뿐이라고 이야기 했던 일.
3. 帰国し秋の紅葉狩りに行った。たくさんの人が集まって居た。  
ああ、ここは私の国だから誰も朝鮮人とは言わない、私達の国だと涙が流れてきました。祖国有ればこそ幸せもあると思います。  
귀국해서 가을 단풍놀이를 갔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아, 여기는 내 나라이니까 아무도 조선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의 나라라고 눈물이 흘러 나왔습니다. 조국이 있어야만 행복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4. でも、日本は生まれ故郷なので忘れる事は出来ない国であり、育の国で、此の世を去るまで心に秘めて居るでせう。  
하지만 일본은 고향이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나라이며, 성장 국가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마음에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5. 田布施は日本の優しい友が居るので、たびたびお手紙して居ます。大波野の野原を走り廻ったのも思い出の一つです。村の風景は今でも夢に見て居ます。互いに努力して仲良く交流ませう。

타부세 (田布施) 에는 일본의 상냥한 친구가 있기 때문에 종종 편지를 내고 있습니다. 오오하노 (大波野) 의 들판을 뛰어 돌아다닌 것도 추억의 하나입니다. 마을의 풍경은 지금도 꿈꾸고 있습니다. 서로 노력하고 사이 좋게 교류합시다.

### 天野さんへ 아마노 씨에게

無事に帰国なさいましたでせうか。釜山は風が強く苦勞なさったでせう。私達の失礼が多かったと思はれます。ご理解下さいませ。ふだん日本語で話す事がないので話したいこと沢山ありましたが、すらすら出ないので話さなかったので紙面で申し上げます。

무사히 귀국하셨습니까? 부산은 바람이 불어 고생하셨지요. 우리의 실례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바랍니다. 보통 일본어로 이야기 할 수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습디만, 술술 나오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면으로 말씀드립니다.

今さら昔の事を書くのも何だかと思いますが、少しでも役に立つかと思って一言申し上げませう。

이제 와서 옛날 일을 쓰는 것도 웬지 생각 합디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少女時代、朝鮮人と言われるのがいやでした。夜布団の中で誰も知らず「私はなぜ日本人に生まれず朝鮮人に生まれたのか」と泣いた事が何度も有りました。内気で他人と話せず一人で悩んだのです。八十を超えた今では懐かしい日本を思い出すと恋しくなるのです。田布施町大波野の村の私達の住家は無く、草と雑木に囲まれて居ました。村の人たちもだんだん亡くなり、学友たちも他地にお嫁に行き、何人かは体が悪く逢う事が出来ませんでした。

소녀시절 조선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싫었습니다. 밤에 이불속에서 아무도 몰래 “나는 왜 일본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조선인으로 태어났는가” 하며 흐느껴 울던 일이 몇번인가 있었읍니다. 암편 성격으로 사람과는 다른 대화 못하고 혼자 고민 하였던 것입니다. 80 을 넘은 지금은 지나간 시절의 일본을 추억하면 애타게 그리워집니다. 타부세읍 (山口県熊毛郡田布施町) 오오하노무라 (大波野村) 에 있던 우리집은 지금은 간 곳이 없고 잡초와 잡목에 묻혀 있었읍니다. 동네사람도 점점 돌아가시고, 학교 친구들도 다른곳으로 시집가버리고, 몇사람은 건강이 악화되어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去年 6 月梅雨時に田布施を訪れました。近所の方も親しい友曾我トシ子さんにも逢いましたが、光市の堀川さんと柳井の相原さんの二人は病床に居て逢うことが出来ませんでした。曾我トシ子さんは健康で、亡きご主人の大工道具にさび止めの油をぬって暮らして居るそうです。ご主人は日本伝統建築家で、人間文化財だったそうです。

天野さんとの出逢いもなんかの縁があったのでせう。もう少しで暖かい春も来ますね。お互いに元気で暮らしませう。

左様なら

眼が悪くて乱筆で申し訳ございません。

二月二十日

鄭渭植

작년의 6 월 장마철에 타부세읍을 방문 하였습니다. 이웃분들도 절친한 친구였던 소가 토시코씨도 만났으나, 히카리시(光市)의 호리카와씨와 야나이시(柳井市)의 아이하라씨의 두분은 병상에 누워계셔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소가토시코씨는 건강하여 돌아가신 남편의 목공도구에 녹슬지 않게 기름을 바르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은 일본의

전통건축가로서 인간 문화재였다고 합니다.

아마노씨와의 만남도 어쩐지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머지않아 따뜻한 봄도 오는군요. 서로 건강하게 지냅시다.

그러면

눈이 나빠서 난필을 용서해 주십시오.

2 월 20 일

정위식

天野さんへ 아마노 씨에게

お電話有り難うございました。留守をしておりました。

전화 감사합니다. 부재중이었습니다.

昔の所を調べて下さって本当に有り難うございました。幼い頃  
なのでそんなに聞こえたと思います。吉隈(よしくま)炭鉱があ  
った桂川(けいせん)が違い無いと思われず。

옛날 곳을 알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린 시절  
이었기에 그렇게 들렸다 생각합니다. 여시구마(吉隈) 탄광이  
있던 게이센(桂川)이 틀림 없다고 생각합니다.

桂川小学校1年7組の先生は美しく優しい先生でした。私をと  
ても可愛がって下さいました。私は食いしん坊で、食べ過ぎでお  
腹をよくこわして先生を困らせ、お腹を撫でたり看護室につれて  
行ったり母の様な先生でした。

게이센(けいせん) 소학교의 1학년 7반의 담임선생님은  
아름답고 다정한 분이었습니다. 나를 무척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는 먹보라서 과식을 하는 바람에 자주 배탈을 일으켜,  
선생님을 난처하게 하였습니다. 배를 쓰다듬어 주시기도 하고  
간호실에 데리고 가 주시기도 하시면서, 그야말로 어머니와  
같은 선생님이었습니다.

春休みも過ぎて 2 年生の初めの日、学校に先生が見えませんでした。いくら探しても先生の姿は見えませんでした。目に涙が出てきました。後で知りましたが、他の学校に転勤したのです。家に帰り、母に先生が居ないと大声で泣きました。その恩師と二度と逢えませんでした。先生の名は「とう先生」と呼びましたが、字も知らないのです。「とう」とは東の「とう」でせうか。残念です。

봄방학도 끝나고 2 학년이 된 첫날, 학교에 선생님이 보이지 않았읍니다. 아무리 찾아도 선생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읍니다. 눈물이 나왔읍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나 다른학교에 전근하신 것이었읍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어머니에게 "선생님이 안계셔요"하고 큰소리로 울었읍니다. 그 은사님과와는 두번 다시 만날 수 없었읍니다. 선생님의 이름은 "토오선생님"으로 불렸으나, 글자도 모릅니다. 토오란 東 의 토오 였을가요? 정말 유감스럽기 짝이 없읍니다.

私の家は石炭を運ぶ線路近くにあったので、炭鉱の事故があった時は、けがをした人や死体が担架に乗せられて線路で運んで居るのをよく見ました。其の内大事故が起こり沢山の人が死に、大きな講堂に死体がずらりと並んで居ました。警察が馬に乗って廻っていました。恐くてにげて帰ってきました。事故後、山口県に移ったと思われます。

우리집은 석탄을 운반하는 선로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탄광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다친 사람이나 시체를 들것에 태워 선로에서 운반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었읍니다. 그러다가 큰 사고가 일어나 많은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넓은 강당에 죽 눌혀져 있었읍니다. 경찰이 말을 타고 돌고 있었읍니다. 무서워서 도망쳐 돌아왔읍니다. 그 사고 후에 야마구치켄으로 이사하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家系の伝統で次の代は何の字となって居るので、私の代は植で

男の子だけ伝統の名をつけるのですが、父は女の子にも使っています。日本で生まれても韓国の名を付けました。私の名前は「渭植イショク위식」と読みます。

では左様なら

3月9日 鄭渭植

字がよく書けないのでなおして下さいませ。

가족의 전통에서 다음 대는 무슨 글자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나의 대는 식(植)자로 남자에게만 전통 이름을 붙이지만, 아버지는 여자에게도 사용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내 이름은 "渭植 이쇼크 위식"라고 읽습니다.

그럼, 안녕히.

3월 9일 정위식

글자를 잘 쓸 수 없으니,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명 韓姓名 鄭渭植

일본명 日本名 東本

출생지 出生地 일본 日本

생년월일 生年月日 1929년 6월 25일

일본에서 살았던 곳 日本で住んでいたところ

山口県熊毛郡田布施町大波野

한국으로 돌아간 해 韓国へ帰った年 終戦後帰国

현주소 現住所 부산시 釜山市



타부세 집 옛터 田布施の自宅跡地 (1994년 4월 29일)



집 뒤 비탈길 自宅裏の坂道 (1994년 4월 29일)



동생과 미야지마에서 弟と宮島で (1994년 4월 28일)



관문 대교에서 형부, 동생과 関門大橋で義兄、義弟と (2006년 4월)



여동생과 유후인 산장 와라비노에서 妹と湯布院山荘わらび野で (2011년 6월)



(2011년 5월 6일)

## 朴 次 欽

壬辰倭亂을 위시하여 日本祖上들이 朝鮮을 侵略하였던 過去史는 슬픈 일이며 1910年 韓日間 強制合邦하여 朝鮮人을 무척 괴롭힌 일은 매우 슬픈 過去歷史입니다. 그것은 日本高位層이나 政治人들의 잘못이며, 一般市民들은 儉素하고 부지런하며 親切한 點은 본받을만 합니다. 向后는 相互協助해서 서로의 發展을 為해 노력합시다.

壬辰倭亂をはじめ日本の祖先たちが朝鮮を侵略した過去史は悲しいことで、1910年 韓日間強制合邦して朝鮮人を非常に苦しめたことはあまりにも悲しい過去の歴史です。それは日本の高位層や政治人たちの過ちで、一般市民は儉素でまめまめしく親切な点は見習うべきなのです。今後は相互協助してお互いの發展の為にがんばりましょう。

한국명 韓姓名 朴次欽 박차흠  
일본명 日本名 井本次欽  
출생지 出生地 한국 韓國  
생년월일 生年月日 1937년 5월 26일  
일본에서 살았던 곳 日本で住んでいたところ

한국으로 돌아간 해 韓國へ帰った年

현주소 現住所 부산시 釜山市



용두산 공원의 수레 龍頭山公園の山車 2011년 5월 1일



(2012년 6월 11일)

## 羅 鳳 道

生まれ故郷が日本で有るが故に朝夕日本の NHK 放送の視廳から始まる毎日です。同窓交歡の思い出等は今まで 2 年毎參加して來ました。然し 20 年近くの同窓會の參加者達も今は數へるほどの人數で自然同窓會は解散となりましたが、私は度々故郷をおとずれ何人かの友との交歡で満足しています。

태어난 고향이 일본인 고로 朝夕 일본 NHK 방송을 청취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매일이다. 동창모임의 생각등, 지금까지 2 년마다 참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20 년 가까이 동창회의 참가자들도, 지금 셀 수 있을 정도의 인수로, 자연 동창회도 해산되고 말았습니다만, 나는 종종 고향에 가서 몇사람의 친구와의 모임으로 만족하 고있습니다.

逢へば呼名等は昔のま々のオーイ○○ちゃん、又は只○○君となつかしい呼名、い々じやないですか、戦時の思い出は勉強より食糧増産で毎日の様の鋤をかついで奥地の開墾「ほしがりません勝つまでは」で學校に行くにもはだして足袋もはかないで通學するものが表彰される時代、奉安殿の前では最敬礼、私も軍務へと

同級生 11 名と一諸に志願し、私只一人の合格と共に大分の陸軍飛行兵學校（當時隼特攻隊關係の學校）入校し其の後終戰のお陰で命拾いをしたものです。

만나면 호명등은 옛날식으로 오이○○짱、또는 그저○○군이라 반가운 호명, 좋지않습니까, 전시의 기억으로는 공부보다는 식량증산으로 매일같이 팽이를 메고 오지에 개간「 좋아하지 않음 이길때 까지는」에 학교에 가는데도 맨발로 신발을 신지 않고 통학하는 자가 표창받는 시대, 봉안정 앞에서는 큰절, 나도 군무에 동급생 11 명과 함께 지원해, 나 혼자 합격하고, 오오이따 (大分) 육군비행학교 (당시는 하야부사특공대관계의 학교) 에 입교, 그 후 종전으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1990 年代の同窓會では男女約百人以上が参加したものです。當時の讀賣新聞(1990 年 6 月 21 日附)それから 6 月 25 日の朝日新聞に私と記者との會談した寫眞等當時の日韓同窓會の様子が大きく報導されました、今でも當時の新聞を深して時々讀んでいます。2 年毎の年輪が過る度に恩師は勿論何人かの他界との知らせ人生無慘これは何んと表現できるものでせうか。本當に筆では表わせない此の心境。

1990 년대에 동창회에서는 남녀 약 백명 이상이 참가 하였습니다. 당시의 요미우리신문 (1990 년 6 월 21 일부) 그리고 6 월 25 일의 아사히신문에, 나와 기자의 회담한 사진등 당시의 일한동창회의 모양이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지금도 당시의 신문을 찾아서 때々로 읽고 있습니다. 2 년마다의 연륜이 지나갈 때 마다 은사는 물론, 몇 사람인가 타계하였다는 통지가 있어 인생무상.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말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 심경.

訪問する毎に友は車で行かうと言ふのを車ではだめだ歩いて行こうと言ひ張り歩き廻ったものです、そうして昔の小路をたどり

ながら昔話に花を咲かせたものです、昔はこ々はどうだった向うには何が有ったとか言ってやると、そうだったかと頭をかしげる友に説明してやると、あ々そうだったかと友が感心する有様でした今は老木となりまだ花を咲かせている櫻の木に上って見たりもし、小川の小石、又は草の葉等、秋にはシイの木の實を拾って持ち帰り室内の一角を飾っています。

방문할 때 마다 친구는 차로 가자 하는 것을 차로 가면 안돼 걸어서 가자고 고집을 부려 걸어다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옛날의 소로를 걸으면서 옛날 이야기에 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어떠했다든가 저기는 무엇이 있었다든가라고 말하면 그렇느냐고 머리를 기우리는 친구에 더 상세히 설명하면, 아아 그러하였지 라고 친구가 감심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지금은 노목이 되어 꽃을 피우고 있는 앵묵에 올라가 보기도 하고, 냇가의 잔돌, 또는 풀잎등, 가을에는 시이나무 열매를 주워다 실내의 한쪽에 장식 해 놓기도 합니다.

日本での博覽會等に案外、行ったものでした。九州のアジア大平洋博覽會、大阪の國際花と緑の博覽會、其他觀光地として別府の溫泉地帶、高崎山のサル、熊本の阿蘇山、水前寺公園、熊本城、名古屋の名古屋城、東京都、京都の各名勝地、奈良の各寺院、大阪の大阪城、京都と奈良、大阪は共に3回行ったものです。

일본에의 박람회등에는 많이 갔었습니다. 규슈의 아세아박람회등, 오오사카의 국제 꽃과 푸르름의 박람회, 기타 관광지로서, 벳부의 온천지대. 타카사기여마의 원숭이, 구마모도의 아소산, 수전사공원, 구마모도성, 나고야의 나고야성, 교도의 각 명승지, 나라의 각 사원. 오오사카의 오오사카성, 교도와 나라, 오오사카에 공이 3회 갔었습니다.

今此の手記を書いてる作日日本の友に電話しました。驚く勿れ友の二人が死去との通話ハアハア只驚くばかりでしたあんなに親

しかった友が・・・・、もうこれくらいにして筆を置ませう。  
一つ机で學んだ友は詩人として活躍し還暦の時の詩一首を紹介し  
ます。

지금 이 수기를 쓰고 있는 어제 일본의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친구 두명이 사망했다는 통화 아  
아 놀랄 따름입니다. 그렇게 친하던 친구가 ……., 이 정도로  
해서 필을 놓기로 하지요. 한 책상에서 배우던 친구, 시인으로  
활동할 때의 시한수를 소개합니다.

祝 同級生華甲

迎師今日友情親  
清福仙顔氣自純  
華甲如夢期百歲  
醉吟高唱滿堂春

師를迎하여今日友情親목	師を迎え今日友情親しむ
清福仙顔氣自로純하다	清福仙顔氣自ら純なり
華甲夢과如히百歲를期함	華甲夢の如く百歲を期す
醉吟高唱滿堂의春	醉吟高唱滿堂の春

한국명 韓國名 羅鳳道
일본명 日本名 木村政雄
출생지 出生地 일본 日本
생년월일 生年月日 1929년 8월 26일
일본에서 살았던 곳 日本で住んでいたところ 福岡県田川市伊田
한국으로 돌아간 해 韓国へ帰った年 중전 2~3년후 終戦 2~3年後
현주소 現住所 부산시 釜山市



부산 일어 봉사회 연수회에서 釜山日語奉仕会の研修会にて  
(2010년 9월 27일, 김상만씨 제공 金相晩氏提供)



지하철역에서 地下鉄駅にて (2012년 6월 11일)





(2010년 11월 1일 김상만 씨 제공 金相晩氏提供)

## 康 玉 哉

### 恩師 大谷先生 은사 大谷 선생님

1932年(昭和7年)生まれの私は8歳の春 Seoul (서울) 光化門にある徳壽小學校に入學した、先生の大部分は日本人であった。

1932年(昭和7年) 태어난 나는 8살의 봄 Seoul (서울) 光化門에 있는 徳壽 小學校에 入學하였다. 先生の 大部分은 日本人이었다.

2年生の時、急に國語(朝鮮語)の授業が廢止されたばかりでなく學校では勿論家に歸っても日本語を常用しなければ非國民であると厳しく言いつけられた。父母兩人が學生の時 3.1 獨立運動に参加した事をおじいさんから聞いて知っていた私はひどく憤慨して、私達は決して日本人ではなく朝鮮人であると近所の同級生に主張した。

2學年 때 갑자기 國語(朝鮮語)의 授業이 廢止되었을 뿐만 아니라 學校에서는 勿論 家庭에 돌아가서도 日本語를 常用않으면 非國民이다라고 嚴한 指示를 받았다. 父母 兩人이

學生일 때 3.1 獨立 運動에 參加했던 것을 할아버지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나는 몹시 憤慨하고 우리는 決코 日本人이 아니라 朝鮮人이라고 近處 同窓生에게 主張했다.

翌朝、その同級生が擔任の先生に言いつけた事を知らず出席を取る先生のやさしい顔がちよっとこわばっているような氣がしたが、別に氣にとめず平然と座っていた。女子師範を卒業して間もないやさしくて美しい大谷先生は愛情をこめたまなざしで學生達を見廻わして、日本と朝鮮は内鮮一體で同一の國民になったと論じた。萬一この事を否定したり守らなければ皆さんの家庭に恐ろしく不幸な事が起るから、幼い皆さんはただ學校の規則を守り勉強にはげんでくれることを頼み、ほほえみながら私の顔をちよつとの間見つめた。とっさに私は自分にかかわる話であると氣づき、死にものぐるいで震える身をささえ涙を押えた。父母や梨花専門學生である姉が、私ゆえに警察に捕らわれ惨いしうちを受けて生きて歸られないのではないかとおののいた。

다음날 아침 그 同級生이 擔任 先生님에게 고자질 한 것을 모르고, 出席을 부르는 先生님의 상냥한 얼굴이 약간 굳어 있는 듯 한 기분이 들었지만 별로 마음에 두지않고 태연히 앉아 있었다. 女子 師範을 卒業하고 얼마되지 않은 상냥하고 아름다운 大谷先生님은 愛情을 담은 눈빛으로 學生들을 돌아보고, 日本과 朝鮮은 内鮮 一體 同一 民族이 되었다고 說得했다. 萬一 이를 否定하든가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의 家庭에 몹시 不幸한 일이 벌어 질 것이니 어린 여러분은 단지 學校의 規則을 지키고 工夫에 충실히 해주길 付託하고 微笑로 내 얼굴을 잠시동안 바라보았다. 순간 나는 나에게 관한 이야기로 알아 들었다. 죽을 힘을 다 하여 떨리는 몸을 가누고 눈물을 참았다. 父母나 梨花 専門學生인 언니가 나로 인하여 警察에 붙잡혀 참옥한 일을 당하고 살아 돌아 올 수 없는 것이 아닐까 부들부들 떨었다.

延專の學生であった親戚の兄が警察で急死したことを家族が皆内緒にしている事を思い出したからである。しかし、豫想とは違い先生は徳壽宮でおこなわれた俳句大會に私を組の代表として参加させ、入賞した俳句を學友たちに知らせほめてもらった。この時の嬉しさは一生忘れられない追憶である。

延專의 學生이었던 親戚 오빠가 警察에서 急死한 것을 家族이 모두 감추고 있는 일을 生覺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豫想과는 달리 先生님은 徳壽宮에서 열린 俳句大會에 우리 班을 代表로 참여시켜 入賞한 俳句를 學友들에게 알려주고 稱讚받은. 그 때의 기쁨은 平生 잊지 못할 追憶이었다.

櫻の花が散った樹木に茂って空をかくす葉を通りぬけ悠悠と流れる雲を歌った俳句である。「葉櫻にかくされている雲の峰」。9歳の少女の目に寫った初夏の景色の表現で、今もたびたび口ずさむ。先生の日本の國益を越えた正義感が弟子の一生を正しい道にみちびいてくださった恩を今もなお胸に刻み不義との妥協を拒み「愛は愛を産み廣げる」信念を緩めず生きて來た。

벚꽃이 진 樹木이 우거져 하늘을 감춘 잎을 빠져 悠悠히 흘러가는 구름을 노래한 俳句이다. " 사쿠라잎에 감춰진 구름 봉우리". 9 살의 少女 눈에 비추어진 초여름 풍경의 表現을 지금도 가끔 흥얼거린다. 先生님의 日本의 國益을 넘어선 正義感으로 弟子의 一生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 恩惠를 지금도 가슴에 새겨 不義와 妥協을 거부 " 사랑은 사랑을 낳고 널리 퍼진다는 "信念을 굳게 간직하고 살아왔다.

大谷先生 本當に有難うございます。愛し尊敬いたします。

大谷 先生님 정말로 感謝합니다. 사랑하고 尊敬합니다.

2011년 5월 康玉哉

한국명 韓國名 康玉哉 강옥재 Kang Ok Jae

일본명 日本名

출생지 出生地 한국 韓國

생년월일 生年月日 1932년 9월 16일

일본에서 살았던 곳 日本で住んでいたところ

한국으로 돌아간 해 韓國へ帰った年

현주소 現住所 부산시 釜山市



"민비 암살" 독료 축연회 「閔妃暗殺」 読了祝宴会  
(2011년 9월 19일 김상만 씨 제공 金相晩氏提供)



(2011년 7월 8일)

## 李圭煥

나는 日本人의 덕택에 도움을 많이 받아서 日本人의 친절과 人事性을 언제나 존경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13 才살 の 時 귀국하여 6 학년 때까지 공부하였으므로 덕분에 日本觀光客의 사진을 찍어서 아이들 공부에 도움을 받아서 언제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韓日친선을 도모하고 잘 지나길 바랍니다.

私は日本人のおかげで沢山助けられました。日本人の親切さと 人事性（優しさ、礼儀正しさ）をいつも尊敬しております。

日本から 13 才の時帰国しました。6 年生の時まで日本で勉強しました。そのおかげで、韓国に帰って日本人觀光客の写真を撮る仕事につくことができ、子供たちを育て、勉強させることが出来ました。いつもありがたく思っております。

今後も韓日親善を図って仲よく過ごせるようにお願いします。

한국명 韓姓名 李圭煥  
일본명 日本名 國本國夫  
출생지 出生地 일본 日本  
생년월일 生年月日 1933년 6월 10일  
일본에서 살았던 곳 日本で住んでいたところ  
          廣島、神戸、戸畑（北九州）  
한국으로 돌아간 해 韓国へ帰った年 1945년 11月쯤頃  
현주소 現住所 부산시 釜山市



남포동 식당에서 南浦洞の食堂にて(2011년 7월 8일)



( 年 月 日 )

## 金 三 生

昭和 7 年大阪で移民朝鮮人の三男として生れる。父の職業は区役所所属の清掃員。小学校 2 年ごろ父が土木業を始めたために広島へ移住—それまでの特別な思いでは殆んどない。広町で呉市宏中央小学校を卒業するまでの記憶も忘れたい悪い思い出が殆どで

①学校の成績は良い方だったが年が二つほど多い朝鮮人の級友(悪友)の子分に引き入れられ日本人の悪達との喧嘩に引き摺られて学校から停学に近い罰を受けて親を悲しませたこと。

②一番こまったことは弁当のおかず、キムチの唐辛子を洗い落として持っていってもニンニクの臭いがするといやがられる。

③チマ、チョゴリを着た母との同行を嫌がったこと。

④戦時中(小学 6 年頃)には勤労奉仕で殆んど勉強できなかった。

⑤終戦の直前、昭和 20 年 7 月 1 日艦載機の空襲で家が全焼、全家族が着の身着のまま安芸郡の安登というところへ疎開。そ

こで終戦を迎え、その直後の 9 月に親の故郷である韓国に帰国。

このように私の日本（少年期）での記憶は悲しい思いでだけが残っている。

1932 年 일본 오사카에서 이민조선인의 3 남으로 태어나다. 아버지 직업은 구청 소속의 청소원. 소학교 2 학년쯤 아버지가 토목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히로시마에 이주 — 그것까지 특별한 추억은 거의 없다. 쿠레시 히로마치에서 히로중앙소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기억은 잊고 싶은 나쁜 추억이 대부분으로

① 학교 성적은 좋은 편이었지만 나이가 두 살쯤 많은 조선인의 급우 (악우)의 부하로 끌려 들어가 일본인의 악동들과의 싸움에 휘말려 학교에서 정확에 가까운 벌을 받고 부모를 슬프게 한 일.

② 가장 어려웠던 점은 도시락 반찬, 김치의 고추 가루를 씻어 내고 가지고 가도 마늘 냄새가 난다고 싫어했다.

③ 치마, 저고리를 입은 어머니와 동행을 싫어한 일.

④ 전시 (초등학교 6 학년경)에는 근로 봉사 대부분 공부 못했다.

⑤ 종전 직전인 1945 年 7 月 1 日 함재기의 공습으로 집이 전소, 온 가족이 몸 하나만 으로 아키군의 아토라는 곳으로 피난. 거기서 종전을 맞이하여 바로 9 월에 부모의 고향인 한국으로 귀국하게 된다.

이렇게 나는 일본 (소년기)의 기억은 슬픈 추억만이 남아있다.

韓国にかえっても韓国語、ハングルが未熟で、小学校に後戻り (年より 3 年遅れた)。でも本が好きで日本語の本は欠かせなかった。その影響で日本語の通訳、翻訳もできて、定年 (中学校教師) 後に始めた日本語ボランティアに役立ち、

한국에 돌아가서도 한국어, 한글이 미숙한 탓에 다시 초등학교 6 학년으로 들어갔다. (나이보다 3 年 늦어졌다.)그러나

평소 책을 좋아해 일본어책은 늘 가까이 했다. 그 영향으로 일본어 통역, 번역을 할 수가 있어서 정년(중학교 교사) 후 시작한 일본어 자원 봉사에 도움이 되어,

① 釜山國際映画祭に 10 年連続ボランティア(北野タケシ、行定勲などの監督ともいっしょに案内したり、写真とったり)、

② 2002 アジア大会では漕艇の日本選手団の担当として 5 日間アシストする間に選手、監督は勿論、応援団のみなさまと過ごしたこと、朝日新聞(九州版)の特集に載せられたこと、

③ 釜山にいらっしゃった方達との触れ合い。

④ 母校を訪ねて行ったときの教職員との暖かい触れ合い—その翌年、わざわざ韓国に研修旅行にいらっしゃったときに釜山の教育施設を交渉、案内したこと。

⑤ その他、10 数回の日本との交流を通じて触れ合った日本人との思いではみんな嬉しかった。

⑥ 最近(7月1日~4日)熊本県玉名市でのハングル勉強会に招待されて行ってきました。朗らかな雰囲気でした。

このように日本人との出会いが大好きです。

① 부산 국제 영화제 10 년 연속 자원 봉사활동(기타노 다케시, 유키 사다 이사오 등의 감독도 함께 안내 하고 사진도 찍기도 하고),

② 2002 아시안 게임에서는일본 조정선수단의 담당으로 5 일간 어시스트하는 동안 선수, 감독은 물론, 응원단 여러분과도 즐겁게 보냈던 일.(아사히 신문(큐슈 판)의 특집에 게재됨)

③ 부산에 방문하신 분들과의 만남.

④ 모교를 찾아갔었을 때의 교직원과 따뜻한 만남(그 이듬해 일부러 한국에 연수 여행에 오시게 되어 부산의 교육 시설을 주선하여 안내 한 일.

⑤ 기타 10 몇 번의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서의 만난 일본인과 추억은 모두 기뻐다.

⑥ 최근(7월 1 일 ~ 4 일) 구마모토현 타마나시 한글

연구회에 초대되어 다녀왔습니다. 명량한 분위기로  
즐거웠습니다.

이처럼 일본인과의 만남을 아주 좋아해요.

한국명 韓国名 김삼생 金三生  
 일본명 日本名 金本三郎  
 출생지 出生地 일본 日本  
 생년월일 生年月日 1932 (昭和 7) 년 11 월 14 일  
 일본에서 살았던 곳 日本で住んでいたところ  
 大阪市東淀川区、広島県呉市広町  
 한국으로 돌아간 해 韓国へ帰った年 1945 년 9 월  
 현주소 現住所 부산시 釜山市

享日 日 藥斤 陽曆 (夕刊)  
 (夕刊) 2002年(平成14年)10月3日 木曜日 4版 8



ボート競技会場で通訳を務める金三生さん(左)は、釜山市ボランティアセンターの日本語通訳ボランティア会長だ。日本生まれ、戦後韓国に帰った。植民地支配の影響で対日感情が厳しかった時代にも「いつか日本は仲良くされる」と子どもころ半分の日本語を忘れないための努力を続けてきた。

### 「幼少の言葉 忘れぬ努力」

日本語通訳ボランティア 金三生さん

**海風**  
釜山リアア大公

釜山市西郊を流れる洛東江の競技場。金さんは、河川敷で日本語通訳を務めた。通訳に再務を送った。「通訳だけでなく、大会の打ち上げの嬉し肉屋を挟んでもらうなど面倒をみてもらっている」と、選手らに頼りにされている。大阪府で生まれ、広島県呉市で育った。中学一年の時、日本が敗戦。父の故郷、釜山へ帰った。を仕入れていたので、韓国語が分からず、読み書きに苦労した。だが、「子ども同士の話はあつたけれど、日本でも韓国でも、嫌な思い出があまりない」。80年ごろまで釜山でも金三生さん「韓国、釜山日本軍に高接をおくるで、横田君撮影」

「反日」の雰囲気は強く、街中では大きな声で日本語を話さなかった。それでも、「これは一時的なもの」と信じていた。松本前張らの推理小説や雑誌で、日本語に魅れ続け、時及そつと音読もして分た。中学教師の定年を過ぎた90年、通訳をしようとした。本語での本格的な会議は半世紀ぶりだった。でも、話のめや、「子どもころのように交えラと口をういて出た。衛早放送で最新の日本文化を仕入れていたので、「ガンダロー」「リストラ」といった教科書にはない言葉もお手の物。サッカー・ワールドカップな日本語交流の場が広がるにつれ、近年、ボランティアとして出場が増えている。「若い世代がどんどん解散を感えて交流を決めていくのを、見守るのがうれし」と。

아사히신문기사 朝日新聞の記事



제 2 회부산 국제 영화제 第 2 回釜山國際映画祭



제 7 회 한일 친선 바둑 대회 In 부산  
第 7 回韓日親善團碁大會 In 釜山



아이들과의 대화 子供たちとの対話



한일 우호 교류회의 동료와 함께 韓日友好交流会の仲間と共に  
(2011년 7월 9일)



(2011년 7월 9일)

## 河 光 範

### 1. 日本旅行の思い出 (일본여행 회상)

私は 1979 年初めて日本に會社（韓國電力公社）の研修の爲、2 個月間滞在した以降、今まで 20 餘回にかけて日本を旅行した経験があります。その中いくつかの思い出を次の様に書いて見ました。

나는 1979 年 처음으로 일본에 회사 (한국전력공사) 의 연수를 위해 2 개월 간 체재한 이후 지금까지 20 여회에 걸쳐 일본을 여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나는 몇 가지를 아래와 같이 회상하여 보았습니다.

(1) シャブシャブ: 1979 年 (夏) 初めての日本 (東京) 滞在中の事ですが東京の羽田まで迎えに来た三菱商事の人とニューオタニホテルの 4 階の食堂で夕食を取りましたが、食べ物の名前がシャブシャブでした。初めて食べて見るものでなぜシャブシャブと言う名前が付いたかと聞いたら食べるまでの過程が洗濯物を洗う時の模様に似ているとの説明を聞いて成る程と思いました。

(1) 샷브샷브: 1979 年 (여름) 처음으로 일본 (동경) 에 체재중의 일이었습니다. 동경의 하네다 공항까지 마중 나와 준

미즈비시상사의 직원과 뉴오타니호텔 4 층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먹은 음식의 이름이 샤브샤브였습니다. 처음으로 먹어보게 되는 음식이어서 음식이름의 유래를 물어보았더니 먹는 과정이 세탁물을 행글 때의 모양과 닮아 그런 이름으로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얇게 썬 소고기를 된장국물에 익혀 먹는 모양이 그러하다고 느꼈습니다.

(2) 카라오케: 1979 年の夏、東京からハトバスで裏磐梯の方に 1 泊 2 日間の旅行をしました。そのバスの中で初めてカラオケで歌って見ました。あの時はモニターはなくて配ってある唄の本に載っている番號を言うと大きなテープを入れて音楽が出るものでした。あの時高校三年生と言う歌を歌って拍手をもらいました。

(2) 카라오케: 1979 년의 여름, 동경에서 하토버스를 이용한 우라반다이 방면 1 박 2 일간의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 버스 속에서 처음으로 카라오케의 노래를 불러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래가사를 보여주는 모니터화면이 없이 노래 가사가 적힌 가사집에서 곡명을 선택하여 그 번호를 말하면 운전기사가 손바닥만큼 큼직한 테이프를 넣어서 소리만 나오는 식의 카라오케였습니다. 그 때 고교삼년생이라는 노래를 불러 박수를 받았습니다.

(3) 郷に入っては郷に従え: 1979 年の夏、東京の NHK 放送局を見學した後、明治神宮まで行くタクシーの中でカメラ(新宿驛前のヨドバシヤで買ったバカチョンカメラ)を忘れ物しました。でもある親切な方の助けで翌日、私が日本語の勉強をしている新宿の住友ビル(25 階のカルチャセンター)まであの方が取りもどしたカメラを持って來ました。それで晝食をもてなすために住友ビルの 56 階のスカイラウンジの食堂で一緒に食事した後、私が食事代を拂うとしたらあの方が自分が拂うと言って喧かみたいになりました。是非私が払いますと言っても「郷に入っては郷に従え」と言いながらその方が食事代を拂いました。今でもあの時の思い

出を浮かびながら日本の方に親切にしなければと思っています。

(3)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라: 1979년 여름 동경의 NHK 방송국 견학 후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메이지신궁까지 이용한 택시 속에 카메라 (신주쿠역앞의 요도바시카메라점에서 산 바카쥬이라는 카메라) 를 잊고 내렸습니다. 그러나 친절한 일본분의 덕택에 다음 날 내가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는 신주쿠의 스미토모빌딩 (25 층에 있는 문화센터) 까지 그 친절한 분이 카메라를 되찾아 와 주셨습니다. 감사의 뜻으로 점심을 대접하기 위해 그 빌딩의 56 층의 스카이라운지에 있는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 후 내가 식대를 지불하려하자 그분이 자기가 내겠다고 하여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저가 식대를 꼭 내겠다고 하자 「고니잇데와고니시타가에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라)」 라는 일본 속담을 얘기하며 그분이 결국 식대를 지불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며 일본 분들에게 항상 친절할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다.

(4) 30餘年間の付き合い: 1979年の夏、ハトバスで箱根に行く時の話です。私は寫眞など撮りやすい一番まえの席を取りました。あの時、満席で一人が私の側の豫備席に座るようになりました。あの方は私より10才位年上の女性で私の席をゆずったりしながら話し合いました。福山に住んでいる人で東京の大學に留學している息子に会う為に東京に来たが息子の勸めで急にハトバスで箱根に行くようになったとの話でした。その後も私の日本語の勉強の爲、息子の幼い時の本など色いろ送って下さいました。その時から今まで30餘年間になりましたが毎年見舞いの便りを交換しています。

(4) 30여년간의 지인: 1979년 여름, 하토버스로 동경에서 하코네로 여행할 때의 일입니다. 나는 사진촬영 등이 쉬운 맨 앞좌석에 자리하였습니다. 그 버스는 만석이 되어 통로의 내 좌석에 붙은 예비 좌석에 한 분이 앉았습니다. 그 분은 저보다

10년 정도 연상의 여성으로 서로 좌석을 바꾸어 앉기도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히로시마현의 후쿠야마시에 거주하는 분으로 동경에서 대학에 다니는 아들을 보러 왔다가 아들의 권유로 급히 하토버스를 타게 되어 예약을 못한 채 타게되어 예비석에 앉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나의 일본어 공부를 위해 그 분의 아들이 어렸을 때 배우던 책 등 여러 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때부터 30여년이 넘었습니다만 지금도 서로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5) 面白い物の名前: 日本の至る所を旅行しながら色々な面白い物の名前に感心しました。1987年の夏、仙臺から観光バスで牡鹿半島の先にある島の金華山に行く時の女性のガイドさんとの話なんです。日本の南部にはあんまり見ない「ホヤ」と言う海産物があそこには澤山取れるんだと言って「ホヤ」に對して色いろ話し合いました。「ホヤ」と言う名前は昔、電氣がなかった時、使った「ランプ (lamp)」の風止めのガラスの丸いホヤに似てそんな名前が付いたんじゃないかと私は思い浮かべながら話しましたが仙臺地方では「龍の卵」とも言うんだと言いました。初めて、今まで見た事のないホヤを見た人が實際は龍も龍の卵も誰も見た事のないからそんな名前をつけたかも知れませんかと思いました。その他にもさるすべりと言う木の名前も面白かったです。木の皮がつるつるとして木登りの上手な猿もすべるんだとの意味と分かってわざわざ觸って見たら成る程でした。でもさるすべりも百日間赤い花がさくと言う意味で百日紅と言う正式な名前がありますね。

(5) 재미있는 사물의 이름들: 일본의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재미있는 사물의 이름들을 접하면서 감탄하였습니다. 1987년 여름, 센다이에서 관광버스로 오시카반도의 끝자락에 있는 킨카잔(金華山)이란 섬으로 가는 관광버스 속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는 정기관광버스의 여성가이드와 대화중에 일본의 남쪽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멧게라는 해산물이 우리들이 탄 버스가 닿은 곳에 가면 많이 잡힌다고

말하여 멩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멩계를 말하는 「호야」라는 일본말은 옛날 전기가 없을 때 사용하였던 램프의 바람막이 유리가 불을 밝히면 마치 멩계의 모양과 닮아서 그런 이름이 붙은 것이 아닌가하고 내가 말하자 센다이 지방에서는 「류우노타마고 (龍の卵)」라고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멩계를 처음 본 사람이 아무도 실제로 용 (龍) 도, 용의 알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루스베리」라고 하는 나무의 이름도 재미있었습니다. 나무를 잘 타는 원숭이도 미끄러진다는 뜻이라 일부러 나무의 줄기를 만져보고서 그 이름이 가진 뜻을 실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루스베리의 정식 명칭은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사용되는 백일홍 (百日紅:ひゃくじつこう) 이라는 정식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2. 下は私の事を書いた小野治嗣さん (前九州電力専務) の隨筆です。

아래는 저에 관한 일을 적은 오노하루즈구 (전 구주전력전무) 씨의 수필입니다.

<p><b>隨筆</b> <b>河さんのこと</b></p> <p>韓国電力との交換研修以来、今なお続いているものに韓国語の勉強と河さんとお付き合いがある。</p> <p>田光龍 (ハ・クワンロウ) さんにお会いしたのは1993年だった。この年の10月に私たちが第24次の研修団が韓国を訪れ、翌月後、今度は韓国電力から研修団が来日し、その中に当時釜山鎮電力所長の河さんが居られたのである。</p> <p>恒例の歓迎会の席上、河さんはメモも持たずに流暢な日本語で自己紹介をされ、私たちが日本語を聴くと驚かされた。特に「自分の名前を「ハグのハグ」と説明されたのには一瞬大笑いすると同時に感服することになり。河さんは当時から見れば元頭だった。</p> <p>その後通信が途絶えていたが、1998年、突然日本語の年賀状を頂いた。私たちが</p>	<p>小野 治嗣 (58.12)</p> <p>研修団の一員だった船橋正哉さん (現九州計装エンジニアリング) から私の住所を聞かれたとき、以後毎年、年賀状を交換するようになった。去年の年賀状にメールアドレスが書いてあったのでいろいろな質問のメールを送ったら大変喜ばれ、同時に叱責するほど詳しく答えてくださった。</p> <p>河さんは1943年の生まれ、1967年韓国電力入社、1999年同社退職、現在韓国電設技術顧問の傍ら、持ち前の日本語を活かして通訳やガイドをされている。韓国には韓国観光公社が主管する「グッド</p>	<p>ドイルガイド」という所謂ボランティア (韓国では「由羅奉仕員」というのがあり、外国人で観光や道路の案内が出来た人を会員として登録し依頼に応じて派遣しているが、河さんはその会員であるとともに「釜山文化遺産解説士」の資格を持ち、これまでの4年間で50組100人余の日本人客を案内された。前回の御船さんも韓国旅行でお世話になり、普通観光客の行かないようなところにも連れて行ってもらった由、因みに「グッドドイルガイド」の会員は全国で約600名、対象外国語は今のところ英・独・仏・スペイン・アラブ・中・日だそうである。</p> <p>韓国電力では社長になる為にはまず英語か日本語の試験をパスしなければならず、河さんは英語より熟しそうだったので日本語を選ばれた。殆ど独学で勉強され、山岡荘八の『徳川家康』、徳田寿賀子の『シナリオで「おしん」』、『まんさくの花』など、そのほか三浦綾子や五味川純</p>	 <p>河さんと小野氏</p> <p>平の本を讀め、日本旅行は1979年以來14回、172日、青森から鹿児島、対馬まで回り、その間積極的に日本人と話をされた。河さんは休むたりの日本語勉強である。</p> <p>メールを通して河さんの行動力・集中力の専念、情の細やかさ、家族愛の深さをひしひしと感じる。今年には是非お会いして河さんのエネルギーを分けていただき、多事多端が予想される2005年を乗り切っ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る。</p> <p>〒810-0062 中央区死戸2-2-8-1001 ☎092-714-1006 (本店支部)</p>
--	--	---	--

## 「하광범씨에 관한 회상」

한국전력공사와의 교류연수 이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일로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과 하광범씨와의 교류이다.

하광범씨를 만나게 된 것은 1993 년이었다. 그 해의 10 월에 우리들 제 24 차 연수단 (구주전력) 이 한국전력을 방문하고 1 개월 후 한국전력의 연수단이 일본을 방문하였으며 그 중에 당시 부산진전력소장이었던 하광범씨도 일행이었다.

공식 환영회 석상에서 하광범씨는 메모도 없이 유창한 일본어로 자기소개를 하여 우리들 일본측을 놀라게 하였다. 특히 자신의 이름을 「하게아타마노하 (대머리하) 입니다」 라고 하여 일동을 크게 웃게 하여 모두가 감탄하였다. 하광범씨는 당시부터 보기 좋은 대머리였다.

그 이후 소식이 끊어졌다가 우리들 일본측 연수단원이었던 미후네마사히로 (현 구주계장엔지니어링사장) 씨로부터 주소를 알게되어 1998 년 갑자기 일본어 연하장을 받게되었다. 이후 매년 연하장을 주고받게 되었다. 그 다음 해의 연하장에 이메일주소가 기재되어 있어 여러 가지 질문을 메일로 보냈더니 대단히 반가워하며 아주 자세한 내용의 답신을 보내주었다.

하광범씨는 1943 년 출생으로 1967 년 한국전력공사에 입사, 1999 년 퇴사, 현재 한국전설기술단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편으론 가지고 있는 일본어 실력을 살려 통역 및 가이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는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굿월가이드 (명예통역안내원)」 라고 하는 볼란티어 (한국에서는 「자원봉사자」 라고 함) 제도가 있어 외국어로 관광 및 유적 안내가 가능한 사람을 회원으로 뽑아 의뢰한 외국인의 안내를 하게하고 있다.

하광범씨는 그 회원인 동시에 「부산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을 취득하여 지금까지 10 년간 200 회를 넘는 실적을 쌓고 있다.

전술한 미후네마시히로씨도 직원들과의 부산여행 시 보통의 관광객이 갈 수 없는 곳의 안내를 받기도 하였다고 한다.

덧붙여 곳월가이드제도는 전국에서 약 600 명의 회원이 있고 대상 언어는 영어, 독어, 불어, 스페인어, 아랍어, 중국어, 일본어 등이라고 한다.

한국전력에서 과장이 되려면 영어나 일본어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제도 때문에 하광범씨는 영어보다 쉬운 일본어를 택하였다고 한다.

대부분 독학으로 일본어 공부를 하였으며, 야마오카소오하치의 「토쿠가와이에야스」, 하시다스가코의 시나리오 대본 「오싱」, 「만사쿠노하나」 등, 그 외에도 미우라아야코, 고미가와준페이 등의 책을 독파하였으며, 일본여행은 1979 년 이후 20 여회로 홋카이도와 아오모리를 비롯하여 카고시마와 대마도 그리고 멀리 오키나와에 이르기까지 여러 곳을 여행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일본인과의 교류로 몸으로 부딪히는 일본어 공부를 하였다.

메일을 통하여 하광범씨의 행동력, 집중력 그리고 다정함과 가족애 등을 깊이 느끼며 올해는 꼭 만나 하광범씨의 에너지를 나눠 받아 다사다단함이 예상되는 올 한 해를 헤쳐 나가고 싶다.

한국명 韓國名 河光範 하광범 ハグアンボ

일본명 日本名

출생지 出生地 한국 韓國

생년월일 生年月日 1943년 5월 24일

일본에서 살았던 곳 日本で住んでいたところ

한국으로 돌아간 해 韓国へ帰った年

현주소 現住所 부산시 釜山市



한일 우호 교류회의 동료와 함께 韓日友好交流会の仲間と共に  
(2011년 7월 9일)



지인의 전고길 씨와 함께 知人の全高吉氏と共に  
(2011년 8월 28일 자갈치 식당에서 チャガルチの食堂にて)



(2011년 4월 29일)

## 黃海年

私は福岡県八幡市黒崎で生まれました。黒崎国民学校に入学、そして卒業後は上原の上の学校に行きました。帆柱山や皿倉山には遠足でよく行っていました。父親は黒崎の商店街で魚屋をしていました。

나는 후쿠오카현 야하타시 쿠로사키(福岡県八幡市黒崎)에서 태어났습니다. 쿠로사키(黒崎)국민학교에 입학하여, 졸업 후에 우에하라(上原)의 학교에 갔습니다. 호바시라야마(帆柱山) 및 사라쿠라야마(皿倉山)에 자주 소풍을 갔습니다. 아버지는 쿠로사키(黒崎)의 상점에서 생선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韓国へ帰ったのは 20 歳の時でした。韓国へ帰って大変苦労しました。まず、言葉が出来なかったことです。日本育ちの私は韓国語が全く分かりませんでした。それでいじめられもしました。悲しかったです。今でも、韓国語の発音が悪いので、日本の方ですかと聞かれることが時々あります。生活にも大変困りました。

한국에 돌아온 것은 20 살 때였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몹시 고생 했습니다. 우선, 말을 못한 것입니다. 일본에서 자란 나는

한국말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왕따도 당했습니다. 슬펐습니다. 지금도 한국어 발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본사람입니까” 라고 물어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생활하기에도 매우 불편했습니다.

もう亡くなりましたが、幸い兄が新潟で仕事をしていましたので、その兄からだいぶ援助を受けました。その新潟に何回か遊びに行きました。ある時、兄は私に寿司 5 人分を出しました。この後いつ食べに来るか分からないので、沢山食べていけ、というのです。私は隠れて大泣きしました。兄には大変感謝しています。妹もいますが、今、八幡の桃園に住んでいます。妹の娘は看護婦になり、九州厚生年金病院の小児科医と結婚しました。妹の家族には医療従事者が多いです。

벌써 사망했지만, 다행히도 오빠가 니이가타(新潟)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오빠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니이가타(新潟)에 몇 번 놀러 갔습니다. 어느 날, 오빠는 저에게 스시 5 인분을 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언제 또 먹으러 올지 모르니까, 많이 먹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숨어서 많이 울었습니다. 오빠에게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동생도 있습니다만, 지금 야하타(八幡)의 모모조노(桃園)에 살고 있습니다. 여동생의 딸은 간호사가 되어 큐슈후생연금병원(九州厚生年金病院)의 소아과 의사와 결혼했습니다. 여동생 가족은 의료종사자가 많습니다.

釜山に帰ってから釜山デパートで働きました。大阪帰りの李英愛さんと知り合いになりました。彼女は私の前の売り場で働いていました。彼女とは今でも親交があります。観光客にお土産を届ける仕事をしました。これは、お客さんが観光している間に注文をとり帰る時に港に届けるというようなものでした。

부산에 돌아와서 부산데파트에서 근무했습니다. 오사카에서 돌아온 이영애씨와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앞 매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와는 지금도 친분이 있습니다. 관광객에게 기념품을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은 손님이 관광하고 있는 동안에 주문을 받아서 돌아 갈 때 항구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21歳の時結婚しました。夫は東京のオリエンタル写真学校を卒業して写真家になった人でした。写真家の夫の収入は少なく、生活が大変でした。私の収入が一家を支えていました。苦しいながらも、子供達は立派に育ち、今となってはいい思い出です。

21살 때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동경오리엔탈사진학교를 졸업하고 사진작가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사진작가 남편의 수입은 적고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내 수입이 가족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아이들은 훌륭하게 자라서, 지금으로서는 좋은 추억입니다.

夫の作品は今私の手元に残っていません。夫は、芸術写真を主に撮っていました。夫が撮影した写真はありますが、夫の祖父の祖父の写真、夫の父の写真、家族で撮った写真、私のパスポートがありましたので、当時の事を知る思い出の品として提出します。

남편의 작품은 지금 내 수중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남편은 예술사진을 주로 찍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찍은 사진은 없지만, 시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사진, 시아버지의 사진, 가족 함께 찍은 사진, 내 여권이 있었으므로, 당시를 알 수 있는 기념품으로 제출합니다.

写真 1 は「夫の祖父の祖父」です。今の県知事であったと夫から聞いています。写真 2 は「夫の父（中央）と友達」です。夫のお父様は早稲田の英文科を出て、書道を一生の仕事としていたとの事です。

사진 1 은 "남편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입니다. 지금의 지사

(県知事) 였다고 남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사진 2 는 "남편의 아버지(중양)와 친구"입니다. 남편의 아버지는 와세다 (早稲田) 대학 영문과를 나와서 서예를 평생 직업으로 하고 있었다 합니다.

한국명 韓國名 황해년 黃海年

일본명 日本名

출생지 出生地 일본 日本

생년월일 生年月日 1929 년 10 월 22 일

일본에서 살았던 곳 日本で住んでいたところ

후쿠오카현야하타시쿠로사키 福岡県八幡市黒崎

한국으로 돌아간 해 韓国へ帰った年

20 세때 20 歳の時 (1955 년)

현주소 現住所 부산시 釜山市



사진 1 시할아버지의 할아버지

写真 1 夫の祖父の祖父



사진 2 시아버지 (중양)

写真 2 夫の父 (中央)



사진 3 김해기독교청년회제 4 회창립기념식  
写真 3 金海基督青年會第四回創立記念式



사진 4 62 세 때의 여권 写真 4 62 歳の時のパスポート



사진 5 남편과 아들 写真 5 夫と息子



지하철중앙역에서  
변상복씨와 함께  
地下鉄中央駅で  
卞相馥さんと共に  
(2012년 6월 9일)



(2011년 11월 15일)

## 朴瓊熙

저는 1963 년도에 부산수산대학 어로학과 (下開水大前身) 를 졸업하고, 참치어선 (マグロ漁船)을 타게 되어, 10 월경 처음으로 시모노세끼 (下関) 에 입항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어는 아주 간단한 말 몇 마디 밖에 기억하지 못하던 때라, 변두리의 조그만 상점에서의 에피소드는 지금까지도 이야기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私は 1963 年度釜山水産大学漁労学科 (下開水産大前身) を卒業、マグロ漁船に乗ることになって、10 月頃始めて下関に入港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日本語は極めて簡単な幾つしか覚えていなかったもので、町はずれの小さなお店でのエピソードはいまだにも話のネタになっています。

(내용) 상점 앞을 지나는데 아주 큰 단감 (甘柿)이 있어서 사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주인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초 일본어 “아노네”를 외쳐 보았으나 좀처럼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큰 소리로 부른 후에야 나타난 주인이 싱긋이 웃으면서, 무어라 말했지만 못알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절도사건이 많았던 시대여서, 매우 부럽게 생각했습니다. 무인점포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정도였던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도 한국에는 그런 스타일의 상점은 없는 것 같아, 일본과의 의식 차이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内容)お店の前を通りすぎる時とても大きい甘柿があるので、買って食べるために入りましたが主人がいませんでした。韓国で習った基礎日本語の「あのねー」と叫びましたが、なかなか主人は現れませんでした。何度も大声で叫んだ後、現れた主人がにっこりと笑いながら、何か言ったのですが聞き取れなかったです。韓国では窃盗事件が多かった時代だったので、本当に羨しく思いました。

無人店ではなかったのですが、ほぼ同じくらいだったようでした。いまだに韓国にはそういうスタイルのお店がないようで、日本との意識の差に恥ずかしさを感じております。



지인 金亨經 씨와 知人の金亨經さんと  
(자갈치시장 2012년 10월 31일)

한국명 韓国名 박찬희 朴瓊熙

일본명 日本名

출생지 出生地 한국 韓国

생년월일 生年月日 1941년 8월 10일

일본에서 살았던 곳 日本で住んでいたところ

한국으로 돌아간 해 韓国へ帰った年

현주소 現住所 부산시 釜山市



(2011년 11월 15일)

## 裵 萬 復

私は長い間、韓国の船舶会社に勤務しましたが、1976年から1988年まで約11年間、日本の和歌山に本社がある竹林汽船で工務監督として勤務した時、日本人との関わりでうれしかったこともあり、今になって考えるといい思い出になりました。

諸方さん、平山さん、山田さん、お元気ですか。いっぺんあいたいですね。

나는 오랫동안 한국의 선박회사에 근무했습니다만, 1976년부터 1988년까지 약 11년간 일본 와카야마(和歌山)에 본사가 있는 타케바야시(竹林)기선에서 공무감독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때, 일본인과의 관계에서 기뻐던 일도 있어, 지금 생각하면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모로카타(諸方)씨, 히라야마(平山)씨,  
야마다(山田)씨, 안녕하십니까.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한국명 韓国名 배만복 裵萬復

일본명 日本名

출생지 出生地 한국 韓国

생년월일 生年月日 1933년 3월 7일

일본에서 살았던 곳 日本で住んでいたところ

와카야마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和歌山で仕事をしていた

한국으로 돌아간 해 韓国へ帰った年 1950년 2월

현주소 現住所 부산시 釜山市





(2011년 11월 15일)

## 金 哲 宇

うれしかったことは少々ありましたが、悲しかったことは全くありませんでした  
기뻐던 일은 조금 있었습니다만, 슬펐던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私は太平洋戦争（第二次世界大戦）が終わった当時、国民学校（小学校）6年生でしたが、如何にして韓日併合されたか、あるいはどんなに様々な民族的苦難を受け続けながら痛恨なる長い年月を過ごして来たのかに関わり、誰からも聞いたことは全然ありませんでした。

나는 태평양전쟁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난 당시 국민학교 (초등학교) 6 학년이었지만, 어떻게 한일합방이 되었는지, 또는 어떻게 갖가지 민족적 고난을 받아가면서 통한의 긴 세월을 지내왔는지에 대해 누구에게도 들어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其れ故に終戦前、幼少年時期、学生勤勞奉仕隊として国民学校 5-6年生になれば村の背後の山の日本軍高射砲陣地工事へ動員されたり、夏休みはむぎかり奉仕活動をしたこと、あるいは、空襲

警報のサイレンが鳴れば運動場の防空壕へ速やかに隠れ入る訓練を行ったこと等を思い出すばかりです。

그러므로 해방 전 유소년 시기, 학생근로봉사대로서 국민학교 5·6 학년이 되면 마을 뒷산에 있는 일본군 고사포 진지공사에 동원되기도 하고, 여름방학에는 보리깍기 봉사활동을 한 일, 또는, 공습경보사이렌이 울리면 운동장 방공호에 신속하게 숨어 들어가는 훈련을 한 것 등을 기억할 뿐입니다.

又は、私の叔父が 1941 年、22 歳の若い年に結婚 3 ヶ月目の時、日本軍として送られたことが薄々まぶたに浮かびます。叔父は遺復子を残して 1945 年 3 月南太平洋のニューギニア島で戦死され、今、靖国神社に祀られています。

또한, 나의 삼촌이 1941 년 22 세의 젊은 나이로 결혼 3 개월 되던 때, 일본군으로 보내졌던 일이 희미하게 눈앞에 떠오릅니다. 삼촌은 유복자를 남기고 1945 년 3 월 남태평양의 뉴기니아섬에서 전사하시어, 지금 야스쿠니신사에 모셔져 있습니다.

中略しまして、1937 年の中日戦争（支那事変といいました）から 1945 年太平洋戦争まで 8 年間、我が国のかわいそうな若人達が軍人、軍属又は労務者としておおよそ 280 万人が強制連行され、この人の中で 57 万 6 千人が死んでいます。

중략, 1937 년 중일전쟁 (지나사변이라 했습니다)에서 1945 년 태평양전쟁까지 8 년간 우리나라의 불쌍한 젊은이들이 군인, 군속 또는 노무자로 대략 280 만 명이 강제 연행되어 이 가운데 57 만 6 천명이 죽었습니다.

また、この間、いわゆる従軍慰安婦として危険な戦地まで引き連れられ、14 万 2 千人の少女らが死んでいると 1989 年（平成 2 年）6 月、日本参議院内閣委員会で述べています。その他植民地

支配の期間、いちいち数えられぬあらゆる被害が発生したのは、決して隠されない事実だと言わざるを得ません。

또한 이 동안 이른바 중군위안부로 위험한 전쟁터까지 끌려가 14 만 2 천명의 소녀들이 죽었다고 1989 년 (헤이세이 (平成)2 년) 6 월 일본참의원내각위원회에서 발표했습니다. 그 외 식민지 지배기간 일일이 셀 수 없을 수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은 결코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とにかく、このような戦争中の被害に対する賠償、補償問題は 1965 年 6 月、韓日協定 (条約) により韓国人 (法人含め) の日本政府に対するすべての請求権は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と両国が合意したことで、何かと主張する訳はありません (無償交付 3 億ドル、有償 (借款) 2 億ドルの経済協力支援に基づき請求権の消滅を確定すること)。

어쨌든, 이러한 전쟁중의 피해에 대한 배상, 보상 문제는 1965 년 6 월 한일협정 (조약)에 의해 한국인 (법인포함)의 일본정부에 대한 모든 청구권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양국이 합의한 것으로, 무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무상교부 3 억달러, 유상(차관) 2 억달러의 경제협력지원에 근거하여 청구권의 소멸을 확정하는 것).

以上、簡略に記述しました歴史的眞實を故意に否定しながら、将来が囑望されている学生に偽りの教育をさせているのは一体どうしたことでしょうか。独島問題もやはり韓日間の重要な懸案になっていますが、日本の数多い良心的学者や一般市民のほとんどは其の眞實を分かっているとと思います。政府高官及び政治家の靖国神社参拝の件に関わっても個人的な意見はありますが、韓国人と台湾人約 4 万余命の位牌を本国に送ってあげてを三国間政府と国会議員がお互いに緊密な討議を行って速やかに結論を済ませるのがどうでしょうか。

이상 간략하게 기술한 역사적 진실을 고의로 부정하면서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들에게 거짓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독도문제도 역시 한일간의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수많은 양심적인 학자와 일반시민의 대부분은 그 진실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부고위관계자 및 정치인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건에 관련해서 개인적인 의견은 있지만, 한국인과 대만인 약 4 만여명의 위패를 본국으로 보내주는 것을, 3 국간 정부와 국회의원이 서로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끝내는 것이 어떨까요.

2001年12月23日、日本明仁王様は68回(私と同年)誕生日の前、記者会見で、私自身は、桓武天皇の生母が百濟武寧王の子孫だと続日本紀に記録されているために韓国との血縁を感じているとおっしゃいました。桓武天皇のお母様で49代光仁天皇の王妃様(高野新笠)が百濟の王族出身だと認めて御座居ますよ。感動しました。

2001년 12월 23일, 일본 아키히토(明仁)왕은 68회(나와 같은 해) 생일 전 기자회견에서, 나 자신은 칸무(桓武)천황의 생모가 백제 무녕왕의 자손이라고 속 일본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혈연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칸무(桓武)천황의 어머니이신 49대 코우진(光仁)천황의 왕비님(다카노니이가사) (高野新笠)이 백제 왕족 출신이라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감동했습니다.

率直に言いましたら、私は日本の公務員や会社員、一般市民と時々接したことがありますけど、彼らはすべてに親切で礼儀正しい姿でした。他の人に迷惑をかけるな、規則と秩序を守れ、勤勉節約せよ、自分のことは自分で、正直、整理整頓、早寝早起き等、日本式教育を受けた旧世代である私は、今日、無差別的に西洋文物が流入され、昔から伝えられて来た美風良俗が次第に無くなり、いろいろ良しからぬ社会現状を見付ければ嫌気がさすのは割り切

れない気持ち、仕方が無い。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일본의 공무원이나 회사원, 일반시민들과 가끔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 그들은 모두 친절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라, 규칙과 질서를 지켜라, 근면절약 하여라, 자신의 일은 스스로하고. 정직, 정리정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등, 일본식 교육을 받은 구세대인 나는 오늘, 무차별적으로 서양문물이 유입되어, 옛날부터 전해져 온 미풍양속이 점차 없어지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사회현상을 보게 되면 싫증이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とにかく韓日両国の不必要で非生産的論争を何時まで続けて行くつもりか、本当に息苦しく感じます。早くこの退屈な争議を止めまして善隣友好国としての相互協力を発展させて行くばかりじゃないでしょうか。

어쨌든, 한일양국간의 불필요하고도 비생산적인 논쟁을 언제까지 계속해 갈 생각인지 정말 답답하게 느낍니다. 빨리 이 지루한 논쟁을 멈추고, 선린우방으로서의 상호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追加：66年前、小学生であった者が日本文字を思いのとうり正確に書けるとはとんでもないことで、書き誤りが多いと思います。よろしくご了承お願い致します。

추가：66년 전, 초등학생이었던 자가 일본의 문자를 생각대로 정확하게 쓴다는 것은 어렵없는 일로써, 틀린 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57 살 무렵 사진  
57 歳頃の写真

\* 日本へは次のような所へ行きました (1991年～2004年)。  
福岡、北九州市 (小倉)、下関、大阪、三重県 (名張、上野) 東京、  
浅草とその周辺、上野公園と周辺、靖国神社とその周辺、厚生労働省、  
郵政事業庁、東京法務局、地方・高等裁判所、日本郵船会社等

\* 일본에는 다음과 같은 곳에 갔습니다. (1991년 ~ 2004년).  
후쿠오카, 기타큐슈 (고쿠라), 시모노세키, 오사카, 미에켄 (나바,  
우에노) 도쿄, 아사쿠사와 그 주변, 우에노공원과 주변,  
야스쿠니신사와 그 주변, 후생노동성, 우정사업청,  
도쿄법무국지방고등법원, 일본우선회사 등

한국명 韓姓名 김철우 金哲宇  
일본명 日本名 카네시로우사부로 金城宇三郎  
출생지 出生地 한국 韓国  
생년월일 生年月日 1933년 8월 26일  
일본에서 살았던 곳 日本で住んでいたところ

한국으로 돌아간 해 韓国へ帰った年  
현주소 現住所 부산시 釜山市



박청구 일본어 교실의 동료들 朴清九 日本語教室の仲間たち  
(사하구 복지회관 沙下区市民館 2011년 11월 15일)



(2012년 6월 9일)

## 卞 相 馥

今此の字を書いている私は韓国生まれ、日本支配下の 36 年間を韓国で育った人の一人です。貴方の国が私の国に惨酷なる支配の為に受けた苦痛は、私は一生忘れる事が出来ないのが事実なんです。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일본 지배하의 36 년간을 한국에서 자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우리나라에 참혹한 지배를 했기 때문에 받은 고통은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天野さんが質問した、韓国人が貴方の国をどう見るかと話をして居ますが、逆に私が考えて居るのは、貴方の国民が韓国をどんなに思っ見て居るかが今でも私は解りません。それがなぜなんです。

아마노씨가 질문한, 한국인이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보는가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국민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며 보고 있는지, 지금도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의문입니다.

けれど、いくら惨酷な歴史があっても過去は過去ですから、心痛い歴史は心に埋めて未来の成長の為に共に努力していくのが重要な事だと思って居ます。

그러나, 아무리 참혹한 역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과거는 과거이기 때문에, 쓰라린 역사는 마음속에 묻어 두고 미래 성장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私は数年間日本の観光客と接して来ました。他国の地理にも暗いし、話も通じない観光客を道辺に迷わせる人は居ません。韓国は昔から自分の家に来るお客さんは無礼な接待をしたらいけない鉄則があるので。

나는 수년간 일본 관광객들과 접해 왔습니다. 다른 나라의 지리에도 어둡고, 말도 통하지 않는 관광객을 길가에서 해매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에는 옛날부터, 자신의 집에 오는 손님에게는 무례한 대접을 해서는 안된다는 철칙이 있습니다.

隣といっても他国は他国ですから観光客を詳しく通訳又は案内して安全な観光の旅をするように私は努力して居ます。私の国も貴方の国も友好的に共栄成長して行く事が重要だと思って居ます。

이웃이라 하더라도 타국은 타국이기 때문에, 관광객을 자세히 통역 또는 안내하여 안전한 관광여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당신의 나라도 우호적으로 공영성장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명 韓國名 변상복 卞相馥  
일본명 日本名 마쯔이요시카즈 松井義和  
출생지 出生地 한국 韓國  
생년월일 生年月日 1929년 2월 1일  
일본에서 살았던 곳 日本で住んでいたところ  
  
한국으로 돌아간 해 韓國へ帰った年  
현주소 現住所 부산시 釜山市



지하철 자원봉사의 동료와 함께  
地下鉄ボランティアの仲間と一緒に  
(지하철 중앙역 地下鉄中央駅 2012년 6월 9일)



지하철중앙역에서 봉사활동  
地下鉄中央駅でのボランティア活動  
(2012년 6월 9일)



(2011년 8월 27일)

## 金 成 泰

私は広島県広島市で生まれ、細かな地名は覚えていないが「みささ尋常小学校」に通っていた。生年は 1929 年だが、戸籍上は 1930 年となっている。当時は、乳幼児はすぐに死亡することが多かったので、3 ~ 4 年遅れて届け出るのが普通であった。

나는 히로시마현 (広島県) 히로시마시 (広島市) 에서 태어나 상세한 지명은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미사사 준조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생년은 1929 년이지만, 호적상은 1930 년으로 되어있다. 당시는 유아는 즉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3 ~ 4 년 늦게 신고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確か 4 歳か 5 歳の時に韓国に帰ったと思うが、日本での幼少時の生活の思い出は、.....

확실히 4 세 또는 5 세 때 한국에 돌아 갔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에서 어린 시절의 삶의 추억은 .....

韓国へ帰ってもまだ日本の支配は続いていたが、釜山で日本人ばかりの第三国民学校に入った。終戦は中学校 4 年生の時だった。

高校は慶南高等学校で、第一回生。元大統領の金永三は第三回生。慶南高等学校第一回生の同期会は慶一会というが、その名前を入れた名刺を作り、今でも昔の友達との親交がある。いつだったか、慶一会の仲間と熊本を旅行した。

한국에 돌아가서도 아직 일본의 지배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부산에서 일본인만의 제 3 국민학교에 들어갔다. 종전은 중학교 4 학년 때였다. 고등학교는 경남 고등학교에서 제 1 회생. 전 대통령 김영삼은 제 3 회생. 경남 고등학교 제 1 회생 동기회는 경일회라고 하는데, 그 이름을 넣은 명함을 만들고 지금도 옛 친구들과 친분이 있다. 언제인지, 경일회 동료와 구마 모토를 여행했다.

日本のことに対してはあまり感情を持っていない。藤村操が日光華嚴の滝で世を儚んで自殺したが、その時の遺書「巖頭之感」の一節に「大いなる悲観は大いなる樂觀に一致する」という言葉を今でも思い出す。これは中学校の時に知ったことで、大変感動した。「国のため何か惜しまん」「若桜、散って甲斐ある命なりせば」等々、当時の若者の心を揺すぶったいろいろな言葉がまだ頭に残っている。

일본에 대해서는 별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후지무라 미사오(藤村操)가 닛코 계곡의 폭포에서 세상을 덧없다 자살했지만, 그 때의 유서 "이와오 머리 之 느낌"의 구절에 "커다란 비관은 커다란 낙관으로 일치한다"라는 말을 지금도 기억이 난다. 이것은 중학교 때 알게 된 것으로 매우 감동했다. "나라를 위해 무언가 아끼지 않습니다" "젊은 벚꽃, 떨어져 보람있는 생명이니까" 등등, 당시 젊은이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여러가지 말이 아직 머리에 남아있다.

한국명 韓国名 金成泰  
일본명 日本名 中村喜一郎  
출생지 出生地 일본 日本  
생년월일 生年月日 1929년 1월 13일  
일본에서 살았던 곳 日本で住んでいたところ  
          広島県広島市 (みささ尋常小学校)  
한국으로 돌아간 해 韓国へ帰った年  
          4살인가 5살 때 4歳か5歳の時  
현주소 現住所 부산시 釜山市



자신의 가게 앞에서 自分の店の前で (2011년 5월 4일)



목포역 木浦駅 (2009년 2월 20일)



목포 시내 木浦市街 (2009년 2월 20일)



(2003년 3월 23일)

金 乙 歡

### 기뻐던 일 嬉しかったこと

1. 마쓰모토(松元) 국민학교 3학년때 한국인이었으나 선생님께서는 나를 예쁘다고 했고 또 우등생이라서 칭찬을 해주었을 때 (4학년 3반이었다).

松元國民学校 3年生の時、韓国人だったが、先生は私をきれいだといい、また、勉強が出来たので褒めてくれました (4年 3組だった)。

2. 아버지가 경영하는 목욕탕에 장티푸스에 걸린 일본인 손님이 와서 집에 있는 김치와 고추장 등을 먹였고 많이 갖고 돌아 갔는데. 얼마 후에 가지고 갔던 김치와 고추장 등 한국음식을 먹고 다 나아서 감사 인사를 하러 왔다고 방문했을 때.

父が経営していた銭湯に腸チフスにかかった日本人のお客さん

が来て、家のキムチとコチュジャンなどを食べて、たくさん持って帰って行った。そして、しばらくしてから、持って帰ったキムチとコチュジャンなどの韓国料理を食べて病気が快方に向かった、とお礼の挨拶に来たこと。

## 슬펏던 일 悲しかったこと

1. 일본인 남학생이 때려서 코피가 났는데. 그때의 선생님이 가정방문하러 집에 같이 왔었다. 선생님은 내가 공부도 잘하는 우등생이라서 일본인으로 알았는데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놀랐다고 했다. 그 후에 일본인 남학생이 잘못했다며 나에게 사과를 했고. 선생님은 나를 더욱 더 사랑해 주셨다.

日本人男子学生から殴られ鼻血が出た。その時の先生が家庭訪問した。先生は、私が勉強もでき優等生なので、日本人とっていたようだが、韓国人ということを知り驚いたという。そして、日本人男子学生が間違っていたとして私に謝罪した。先生は私をさらにかわいがって下さった。

●일본인은 어떤 일이 생기면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는 정직함이 정말 좋았다. 그리고 어린시대 살았던 내 고향 나고야의 집을 찾아보고 싶다.

日本人は何が起こっても率直に誤りを認める正直さが本当に良かった。そして、幼い時代に住んだ私の故郷名古屋の家を訪ねてみたい。

●고향 나고야 마쓰모토 국민학교 4 학년 3 반이었던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 나를 기억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로 좋겠다.

故郷名古屋の松本国民学校4年3班だった友達に会いたい。私を覚えている友達がいたら本当にいい。

참조 参照:

그 당시 일본에는 장티푸스가 유행하여 일본인만 장티푸스 환자가 많았으나 이상하게 한국인은 장티푸스에 걸리지 않았다. 그래서 장티푸스에 걸린 일본인 환자들이 김치와 고추장 등 한국음식을 먹고 많이 나았다고 합니다.

その当時、日本では腸チフスが流行し、日本人だけに腸チフス患者が多かった。不思議なことに韓国人は腸チフスにかかっていない。そのころ腸チフスにかかった日本人患者がキムチやコチュジャンなどの韓国料理を食べてたくさん治ったそうです。

어머니는 2004 년 12 월 06 일 갑자기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나의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母は、2004年12月06日、突然天国に行きましたが、私の母から聞いた話です。

이병철 李秉喆

한국명 韓國名 金乙歎 김을희

일본명 日本名 月城照子

출생지 出生地 일본 日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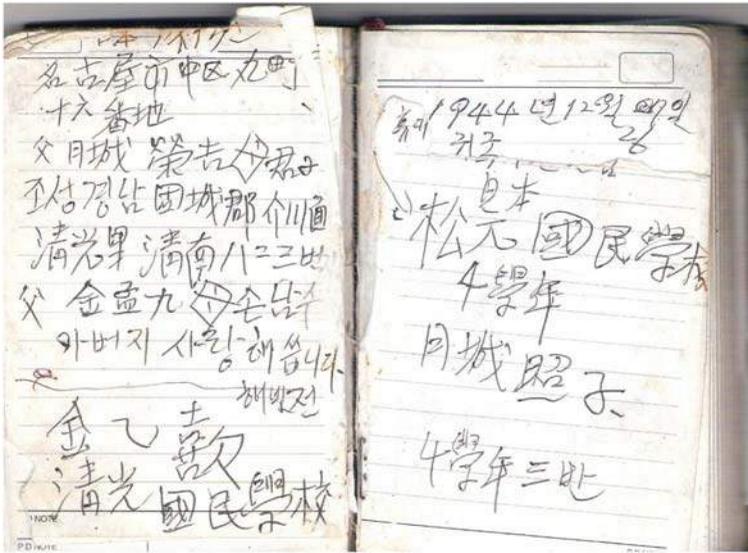
생년월일 生年月日 1934年3月14日

일본에서 살았던 곳 日本で住んでいたところ

名古屋市中区丸町 16番地

한국으로 돌아간 해 韓国へ帰った年 1944年12月26日

현주소 現住所 釜山市 沙下区 槐亭 2洞 2-72番地 11/4



어머니의 수첩 메모 母の手帳のメモ



어머니 母



어머니와 함께 母と一緒に



お母さん思い出しますか。母は子供のころから桃の花が好きだったようで、お母さんの自宅の前の桃の花を一緒に見ながら話をしたんですね。花が先に咲いて、散れば葉が生える桃は本当に格好いいですね。

어머니 생각납니까. 어머니는 어린시절부터 복숭아꽃을 좋아했다고 하면서 어머니 댁 앞의 복숭아 꽃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했었지요. 꽃이 피었다가 지면 잎이 돌아나는 도화는 정말 멋있어요.

ぼくのお母さん、月城照子（つきしろてるこ、金乙歎）を愛しています。なつかしいんです。お母さんを胸の中に深く刻んで、お母さんの願いどおりに熱心に暮します。お母さんの故郷名古屋を必ず訪ねて見ます。私ね、一生懸命に頑張ります。

나의 어머니 김을희 사랑합니다.  
그럽습니다. 어머니를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어머니 바라는 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고향  
나고야에 꼭 찾아 가보겠습니다.

金乙歎（月城照子）の長男  
しんけんな李秉喆  
김을희의 장남 이병철  
(2012년 2월 13일)



2002年釜山アジア競技大会時  
通翻訳自願奉仕中選手村本部で日本女子チームと一緒に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때  
통역번역자원봉사중 선수촌본부에서 일본여자 팀과 함께



(2012년 6월 9일)

## 朴 清 九

私は今年 66 才の男性で、釜山を訪問する外国人がよく訪ねる国際市場やチャガルチ市場、竜頭山公園、南浦洞、光復洞、そして国際旅客ターミナルなどがある中区地域で 5 年ほど前から日本語通訳のボランティアをしています。

저는 금년 66 세의 남성으로서,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용두산공원, 남포동, 광복동, 그리고 국제여객터미널 등이 있는 중구지역에서 5 년 전부터 일본어통역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釜山の観光地や美味しい店などを紹介したり、交通の便について説明してあげたりします。大きいかばんを持って階段を上がるお年よりや女の方をお手伝いする時もあります。私は日本人と話し合うのが楽しいです。

부산의 관광지나 맛집 등을 소개하기도 하고, 교통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도 합니다. 큰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 연세 든 분이나 여성분들을 도와드릴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일본인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이 즐겁습니다.

大学3年生の時、日本語の勉強を始めて、そのおかげで就職もできました。個人事業をしていた40代初め頃、ライオンズクラブと国際ワイズマンクラブに加入して、日本の兄弟クラブの福岡文化ライオンズクラブと、ワイズマン和歌山紀ノ川クラブとの交流の窓口役として、相互訪問を通じてホームステイをするなど、今まで深い兄弟の関係を保っています。

대학 3 학년 때 일본어를 공부하기 시작해서, 일본어 덕택으로 취직도 하였습니다. 개인사업을 하던 40 대 초반에 라이온스클럽과 국제와이즈멘클럽에 가입하여, 일본의 형제클럽인 후쿠오카(福岡)문화라이온스클럽과 와이즈멘 와카야마기노가와(和歌山紀ノ川)클럽과의 오랜 교류기간 동안 창구역할을 맡아, 상호방문을 통해 홈스테이를 하는 등 지금까지 형제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日本語はいつの間にか私の趣味でもあり、生活の一部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私は週3回洞役所と老人福祉館で日本語の講義をしています。大抵50代、60代、70代の方ですが、日本語の勉強への熱意はとても熱いです。これは受講生皆さんの日本への関心の表れと思うと、私も頑張るしかないのです。

일본어는 어느새 저의 취미이자 생활의 일부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주 3 회 동 주민센터와 노인복지관에서 일본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50 대 60 대 70 대 분들이지만, 일본어 공부에 대한 열의는 아주 뜨겁습니다. 이것은 수강생 여러분들의 일본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니, 저 역시 노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最近韓国には韓日間の親善交流が活発に行われています。私の属している韓日友好交流会では、日本人と韓国人が毎月定期的に会ってセミナーを開き、両国間の文化などについて話し合ったりしながら、お互いの理解と親善の幅を広げています。

요즈음 한국에는, 한일간의 친선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한일우호교류회에서는 한국인과 일본인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만나, 세미나를 열어 양국간의 문화 등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상호간의 이해와 친선의 폭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私は一年半くらい前、「私の韓国、私の日本」(仮題)という本を作る計画をお持ちになっている天野さんに出会いました。私は、彼との出会いは偶然とは思いません。我が韓日友好交流会の目的と理念である「日本人との友好交流」が、彼の目指す本の発刊趣旨とぴったり合っているので、「これは一つの大きな縁だな」と思えてなりません。我が交流会では天野さんを招請して本の発刊趣旨についての講演会も開きました。

저는 일년 반쯤 전에, “나의 한국, 나의 일본”(가제)이라는 책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아마노(天野)씨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와의 만남이 우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일우호교류회의 목적과 이념인 “일본인과의 우호교류”가, 그가 지향하는 책의 발간취지와 딱 맞아서, “이것은 하나의 크다란 인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류회에서는 아마노(天野)씨를 초청해서 책 발간취지에 대한 강연회도 열었습니다.

韓国と日本、日本人と韓国人、国籍や文化やそのほか多くのことが異なりますが、お互いに触れ合いの度を積み重ねて行けば、友好関係が深まり、幅広い交流ができると思います。私は、「私の韓国、私の日本」と言う本が成功的に発刊され、韓日間の交流に大きく寄与することを祈願します。

한국과 일본, 일본인과 한국인, 국적과 문화와 그 외에도 많은 것이 다르지만, 서로간에 만남의 횟수가 거듭할수록, 우호관계가 깊어지고 폭 넓은 교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의 한국, 나의 일본”이라는 책이 성공적으로 발간되어 한일간의 교류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명 韓國名 박청구 朴淸九

일본명 日本名

출생지 出生地 한국 韓國

생년월일 生年月日 1946년 5월 10일

일본에서 살았던 곳 日本で住んでいたところ

한국으로 돌아간 해 韓國へ帰った年

현주소 現住所 부산시 釜山市



낙동강하구 에코 센터에서 洛東江河口エコセンターにて  
(2011년 7월 11일)



(2012년 6월 11일)

## 金完厚

나는 1960년부터 2000년까지 선상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요코하마(横浜)에서 신와(新和) Shipping의 신보(新穂)社長을 알게 되어, 2005년 경 돌아가실 때까지 사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까지 서로 왕래를 하면서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아주 좋아합니다.

私は1960年から2000年まで船上生活をしました。その時横浜で新和 Shippingの新穂社長と知り合いになって、2005年頃亡くなられるまで付き合っていました。家族たちまで往来し合って、とても親しく付き合っていました。そして日本が大好きです。

50년 동안 일본을 왕래했기 때문에, 북해도(北海道)에서 오키나와(沖縄)까지 배가 닿는 항구는 다 가본 사람 중에서, 누구보다도 일본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 후쿠시마(福島)원전 문제와 쓰나미로 많은 사람들의 희생에 진심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한국에선 심지어 정신대 할머니들도 모금운동을 하고, 일본을 도우려고 한창 힘쓰고 있는 시기에, 왜 독도 문제를 들고 일어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과서까지 왜곡해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장래가 걱정스럽습니다.

50年の歳月日本を往来したから、北海道から沖縄まで船が止まれる港は全部行ったことのある人の中で、誰よりも日本についてよく知っている者です。ところで、この前の福島原発問題と津波で多くの方々の犠牲に心から悲しく思うし、韓国ではさらには、挺身隊のおばあさんたちも募金運動をして、日本を手伝おうと頑張っている時期に、どうして竹島問題と呼び起こすのかまったく理解できません。教科書まで歪曲して学生たちを教えるなら、将来が心配です。

2 차 세계대전 때의 아픈 상처는 다 잊고, 지금은 일본을 좋게 생각하면서, 후쿠시마(福島) 원전에 한국의 모든 국민이 단결해서 모금운동도 하면서, 도우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현실을 일본도 알고 있을터인데, 왜? 명확한 확정도 없이 독도에 점 하나 찍고, 200 해리 영토 확장의 꿈을 버리지 않는지? 가슴 아픈 일입니다. 부디 점 하나의 섬을 포기하고 서로 잘 살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2次世界大戦争の時のつらい傷跡はすっかり忘れて、今はよい日本とっていて、福島原発に韓国全国民が団結して募金運動して、助けようと頑張っている現実を日本も知っているはずなのに、なぜ明確な確定もなしに竹島に点一つ打って、200 海里の領土拡張の夢を捨てないのか? 胸が痛いです。どうぞ点一つの島を放棄して、お互いに仲よく過ごして行けばいいでしょう。

이 책이 서로 이해하고 사이 좋게 살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この本が、お互いに理解し合って仲よく過ごして行くきっかけになることをお願いします。

한국명 韓国名 김완후 金完厚  
일본명 日本名 카네야마 켄지 金山建次  
출생지 出生地 한국 韓国  
생년월일 生年月日 1929년 8월 18일  
일본에서 살았던 곳 日本で住んでいたところ  
  
한국으로 돌아간 해 韓国へ帰った年  
  
현주소 現住所 부산시 釜山市



일본어통역반 김순연 씨와 日本語通訳의 金順蓮さんと  
(지하철 남포역 地下鉄南浦駅 2012년 6월 11일)



사십계단문화관광테마거리 四十階段文化觀光テーマ通り  
(2012년 6월 8일)



(2011년 11월 14일)

## 申 英 滉

私が国民学校 6年生の時、マラソン大会がありました。敦賀市には 3つの国民学校がありました。優勝旗を私の南国民学校へ持ち帰れたことが今でも忘れられない思い出です。

朝鮮人と呼ばれてけんかした時のことを悲しく思っています。

내가 국민학교 6학년 때 마라톤대회가 있었습니다. 쓰루가(敦賀)시에는 3개의 국민학교가 있었습니다. 우승기를 우리 미나미(南)국민학교에 가지고 온 것이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조선인으로 불리어서 싸움했을 때의 일을 슬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명 韓国名 신영식 申英湜

일본명 日本名

출생지 出生地 일본 日本

생년월일 生年月日 1927년 7월 24일

일본에서 살았던 곳 日本で住んでいたところ

쿄토 京都, 후쿠이 현 쓰루가시 福井県敦賀市

한국으로 돌아간 해 韓国へ帰った年

제 2 차 세계 대전 후 2 월 第二次世界大戦後 2 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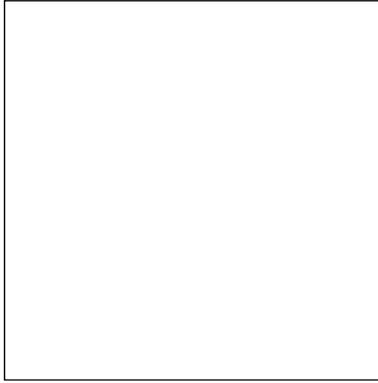
현주소 現住所 부산시 釜山市



지하철 중앙역에서 가끔 아마노씨를 만나다

地下鉄中央駅でたまたま天野さんに会う

(2012년 6월 9일)



(    년   월   일 )

吳 眞 熙

결혼해서 구마모토 (熊本) 에서 살게 되었다. 한국에서 본 그는 평범한 지구촌의 한 인간이었다. 그런데 일본에 가니까 그는 너무나 일본적인 사람이었다. 딸아이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하면, 일본인은 일본어를.... coffee 를 마시려고 하면 일본에서는 오차를.... 하면서, 매사에 일본적인 것과 일본인으로서를 강조했다.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왜 한국인과 결혼했는지?... 한국사람은 누구나 김치냄새는 싫어해도 김치는 잘 먹는 것처럼 (그런 식의 이해 밖에 할 수 없었다).

結婚して熊本で暮らすことになった。韓国で会った夫はただ地球村の一人の人間だった。ところが、日本に行くと彼はあまりにも日本的な人だった。娘に韓国語を教えようとする、日本人は日本語を、、、コーヒーを飲もうとすると、日本ではお茶を、、、と毎事に日本的なことと、日本人としてを強調した。理解はできませんが、そうだったらなぜ韓国人と結婚したのか、、、韓国人はだれでもキムチの匂いは嫌だが、キムチはよく食べるように (そんなふうの理解しかできなかった)。

내가 도착한 그날, 그의 부모와 시동생의 처는, 자동차에 끼는 비닐을 가위로 자르는 일 (side job) 을 하면서, 잠시도 일손을 놓지 않고 나를 맞았다. 7 월 20 일경의 날씨는 더웠다. 수돗물을 받아 마시면서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물이 목에 걸렸다.(그 혼한 걸치레 말도 없었다.)

私が到着したその日、彼の両親や義理の弟の妻は、自動車に敷くビニールをはさみで切る仕事 (side job) をしながら、少しの間も手をおかないで私を迎えた。7月20日頃の天気は暑かった。水道水を受けて飲みながら、言いようのない悲しみに水が喉に支えた。(ありふれた " 建前 " なんかもなかった。)

딸아이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아는 사람도 생겼다. 대부분의 엄마들은 친절했다. 그런 엄마들이 주위에 많으니까 딸아이의 학교생활은 안전할 것이라고 엉뚱한 판단을 했다. 그러나 그 엄마들의 입으로 내 국적 문제가 어떻게 전해졌는지.

娘が学校へ通い始めて、すこしずつ知り合いもできた。ほとんどのお母さんたちは親切だった。そんなお母さんたちが廻りに多いから、娘の学校生活は安全だろうととんでもない判断をした。しかし、そのお母さんたちの口で、私の国籍問題がどう伝えられたのか。

딸아이는 소학교 3 학년 때 왕따의 타겟이 되었다. 튀기(Half)라고 불리면서부터 나를 보는 딸아이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다. 학교로부터 전화를 받고 달려 갔을 때, 딸아이의 앞니는 뿌리가 보일 정도로 흔들리고 출혈도 심했다. 같은 반 남학생이 내 국적을 물었을 때,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서 밀어서, 책상 모서리에 부딪힌 것이다. 딸아이는 학교의 현관에서 울지도 않고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도 혼자 서 있었다. 내가 항상 강해지라고, 울면 안 된다고

말했던 것이 지금까지 가슴에 달라붙어 있다. 나는 딸아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무력감에, 자신이 밉고, 슬펐지만 울 수는 없었다.

娘は小学校3年生の時いじめのターゲットになった。ハーフと呼ばれ始めてから、私を見る娘の視線が不安そうに見えた。学校からの電話を受けて走って行った時、娘の門歯は根が見えるほど揺らいでいて出血もひどかった。同じクラスの男の子が私の国籍を聞いた時、答えなかったため、後ろから押し、机の角にぶつかったのだ。娘は、学校の玄関で泣きもしないで私が来るのを待っていたのだった。それも一人で立っていた。私が常に強くなれと、泣いてはいけないと言っていたのが今まで胸にこびりついている。私は娘を安全に守れないとの無力感で、自分自身が憎らしく悲しかったが、泣くことはできなかった。

8 살 아이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은 내가 전부였기 때문에(전 남편은 전원). 3 일째 되던 날, 다치게 한 학생의 엄마에게 내가 먼저 전화를 걸어, 도의적인 책임도 없는지 물어 보았다. “미안합니다. 일이 바빠서....” 그리고는 치료비는 학교에서 나올 것이라고 했다. 또 한가지, 남편은 일본인이냐고 물었다. 그 상황에서 왜 가족의 국적을 알려고 하는지, 내 관점으로는 이상했다. 그 후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이지메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 얘기했을 때, “어쩔 수 없잖아” 하는 대답뿐이었다. 어쩔 수 없다는 그 말을 듣고 나는 더욱 괴로웠다.

8才の娘の抛り所は私が全部だったので(前夫は船乗り)、3日目の日、怪我をさせた子のお母さんに私から電話をかけて、道義的な責任もないのか聞いてみた。「すみません、仕事が忙しくて」、そして、治療費は学校から出ると言った。もう一つ、旦那は日本人かと聞いた。その状況でなぜ家族の国籍を知ろうとするのか、私の観点ではおかしかった。その後家に帰った夫に、いじめの問題にどう対応するか話した時、「仕方ないよ」という答えだけだっ

た。仕方ない、その言葉聞いて私はさらに辛くなった。

그 후, 동화교육과 인권문제에 대한 팜프렛을 볼 때 마다, 오히려 몰랐더라면 좋았을 일을 새롭게 알게 된 느낌이었다. 그런 주간이 따로 필요한지, 사회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어쩔 수 없다”고 답은 나와 있는데, 앞으로 내가 이 땅에서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었다.

その後、同和教育や人権問題に対するパンフレットを見るたびに、かえって知らなくてよいことを新しく認識させられる感じだった。そういう週間が別に必要なのかと、社会構造を理解しにくかった。「仕方ないよ」と答えは出ているのに。今後私がこの地で真実な愛を感じ、根をおろすことができるのか疑問だった。

이런저런 일로 우울증 환자가 된 나는, 신경계통의 내과만 4~5 년간 전전했다. 뜻밖에도 나는 많은 의사 분들에게서 따뜻한 인간대우를 받았다. 어떠한 편견의 공기도 없었다. 딸아이의 왕따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S 선생에게 도움 받아 잘 해결됐지만, 나의 불안신경증은 낫지 않았다.

あれこれのことで憂鬱症患者になった私は、神経系統の内科だけに4~5年間転々と通った。意外にも私は多くのお医者さんから暖かい人間的待遇を受けた。どんな偏見の空気もなかった。娘のいじめも誠実で責任感のあるS先生に助けてもらってよく解決できたが、私の不安神経症は治らなかった。

건강상의 문제가 심각해 진 나는 2001년 7월 딸아이와 함께 구마모토(熊本)를 떠났다. 그리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부산에서 살고 있다. 어느 날 국제시장의 한 가게 앞에서 일본인 아가씨의 “아저씨 사랑해요!”라는 귀여운 목소리가 들렸다. 물건 값을 깎아 준 가게 주인의 마음씨가 고마워서 서비스로 한 조크(joke)였다. 거침없이 밝은 태도와 서툰

한국어가 안아 주고 싶은 정도로 사랑스러웠다.

健康上の問題が深刻になった私は 2001 年 7 月娘と一緒に熊本を去った。そして色々な過程を経て今は釜山に住んでいる。ある日、国際市場の一つ店の前で日本人のお嬢さんの「おじさん、大好き！」という可愛らしい声が聞こえた。品物の値段をまけてくれた店のご主人の気持ちがうれしくて、サービスでした joke(ジョーク) だった。よどみのない明るい態度と上手ではない韓国語が、抱きしめたいほどに可愛いらしかった。

한국명 韓國名 오진희 吳眞熙

일본명 日本名

출생지 出生地 한국 韓國

생년월일 生年月日 1955 年 7 月 11 日

일본에서 살았던 곳 日本で住んでいたところ

구마모토현키꾸치시시수이마찌 熊本県菊池市泗水町

한국으로 돌아간 해 韓國へ帰った年 :

2001 年 7 月 미국 美國

2006 年 2 月 한국 韓國

현주소 現住所 부산시 釜山市



어린 시절 若かりし頃





위상:미국 라구나 비치에서  
딸과 함께 아메리카라구나  
비치에서娘と共に

중중:라스베가스 근처의 쇼  
하우스 라스베가스의近くの  
ショーハウスで

밑下:링컨 대통령 생가  
앞에서 リンカーン大統領の  
生家の前で





(2012년 6월 11일)

朴克己

### 日韓併合百週年を迎えて 韓日병합 백주년을 맞이하여

韓國は強制的に（1905 年外交權剝奪、1907 年内政干涉、軍隊解散）1910 年 8 月 29 日、日韓併合。韓國の先覺者らは 1910 年を國恥の年とし、その會稽の恥を雪ぎ、國權を取り戻そうとし、海外内で終戦の時まで平和デモ（2.8、3.1 獨立運動）、抗日戰爭（ゲリラ戦）、其他、獨立運動をしましたが、功を奏せ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

한국은 강제로（1905 年: 외교권박탈, 1907 年내정간섭, 군대해산）1910 年 8 月 29 日, 韓日합방, 그래서 한국의 선각자들은, 1910 年을 국치의 해로 정하고, 그 잇을 수 없는 사무친 치욕을 씻고 국권을 회복하려고, 해외서 해방될 때까지 평화데모（2.8, 3.1 독립운동）, 항일전쟁(게릴라전), 기타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지만 독립을 성취할 수 없었다.

併合後,朝鮮總督府は、土地調査事業の實施。開拓事業を目的とする東洋拓植會社によって農地を失い、生活に困窮した農民らは

故郷を見切って日本などに移動。徴用（1939～1945年）の名で強制連行。徴兵制度による軍人、軍屬として、また、工鑛業、土木事業の募集に應じて渡日など。それから、日本で生まれた、2世らと合せて約240萬人の韓國人がいましたが、終戦になり、大部分の人が、韓國に歸國。その一連に私もいます。（前文の事柄は歸國後に知りました。）

합방후, 조선총독부는 토지조사사업의 실시, 개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동양척식회사에 의하여, 농지를 잃어 생활에 곤궁한 농민들은 정든 고향을 버리고, 일본등에 이진, 징용(1939~1945年)의 명으로 강제연행, 징병제도에 의하여, 군인, 군속으로, 또 공광업, 토목사업의 모집에 응하여 도일 등, 그리고 일본에서 태어난 2세와 합해서 약 240만인의 한국인이 있었습니다만, 해방되어 대부분의 사람이 한국에 귀국, 그 무리에 저도 있었습니다.(전문의 사항은 귀국 후 알았습니다.)

今になって人生の儂さをしみじみ感じる歳になり、今更になって、半世紀以上も過ぎ去った日々を振り返り帝國時代の在日の體驗を述べることはちよっと戸惑いますが、でも、この駄筆が兩國の親善の一助になればと思い、記すことにしました。

지금 되어 인생의 무상함을 절실이 느끼는 이 나이에, 새삼스럽게 반세기 이상 지난간 나날을 돌아보고 제국시대의 체험을 말하는 것은 좀 당황하지만은, 그러나 이 줄필이 양국의 친선의 일조가 되었으면 하고 쓰기로 하였습니다.,

渡日した當時の大部分の大人らは土木工事の土方、日雇い人夫、埠頭場の仲仕、家庭の糞尿汲み取り人夫、古物商(屑物)などの最下級の勞働に従事。でも、私らの幼い頃は、隣近所の日本の子供らと仲よく遊び、學校にも一緒に通いました。

일본에 건너간 당시의 대부분의 어른들은 토목공사와 막별이꾼, 날품팔이, 부두에서의 짐꾼, 가정집의 분뇨퍼기 인부. 고물상(부스러기) 등의 최하급의 노동에 종사, 그러나

저의들의 어린시절은 이웃집 일본아이들과 사이 좋게 놀고 학교에도 함께 다녔습니다.

小學校時代には、私にきつくあたり、つれなく思わせる先生もいましたが、でもその反面、弱い者、貧しい者のちからになってくださるありがたい先生もいらっしゃいました。(その先生に、私が定年後、2度御訪問、文通連絡)。でも、小學校時代には、名札を上着に付けていたので、私をよく知らない日本の方の大人らは、名札(韓国名)を見て鋭い目つきで顔をしかめる方が多かったです。その時の心の傷が今でも残っています。

소학시절, 저에게 엄하게 대하여 박정한 선생님도 있었습니다만 그 반면 약한 자 가난한 자의 힘이 되어주시는 고마운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그 선생에게 제가 퇴직 후 두번 방문 편지 연락) 그러나, 소학시대에는 명찰을 상의에 붙여있기 때문에 나를 잘 모르는 어른들은 명찰명(한국명)을 보고 날카로운 눈초리로 얼굴을 찌푸리는 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때의 마음의 상처가 지금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でも、今になっては、そんなことは理解ができます。當時、國粹、軍國主義らが國學者らの古典記紀による建國神話や傳説に根ざされる傳統意識で韓国よりも優越感を主張する説を、小、中學校の日本史の教科書の手本としたため、一般の國民の教育にも大きく影響したと思います。

그러나 지금이 되어서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 국수, 군국주의자가 국학자들의 고전기기에 따른 건국신화 전설에 기인하는 전통의식으로 한국보다, 우월감을 주장하는 설을 소, 중학교의 교과서의 본보기로 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생각합니다.

特に、少年の頃の私が差別を強く感じたのは、中等教育に對し

てです。中等學校に入學するのは韓國人にはむつかしく、入學しても大部分、實業學校で、中學校は高根の花。私の場合、改名しなかったためだったのか、いくどか滑り、改名後、やっと入學し卒業前に歸國。

특히 소년 때 저에게 차별을 심하게 느낀 것은 중등교육입니다, 중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한국사람은 어렵고 입학하여도 거의가 실업계통, 중학교는 거의 그림의 떡, 저의 경우 개명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몇 번 미역국, 개명 후 겨우 입학, 졸업 전에 귀국.

歸國後、兩國の歴史を考察して、初めて日本（國粹軍國主義者）の支配に對し憤怒を覺えました。言葉や文字、氏名など奪い、民族の魂を地球上から消してしまおうと、韓國內では、「内鮮一體」を強調し、「皇國臣民の誓い」を暗唱させ、天皇の臣民として忠誠を盡くすようにと、また、創氏改名しなければ學校にも通う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

귀국 후 양국의 역사를 살펴보고 비로소 일본(국수, 군국주의자)의 지배에 대하여 분노를 느꼈습니다. 말, 문자, 이름을 빼앗고, 민족혼을 지구상에서 말살 하려고 한국내에서는 「내선일체」를 강조하고 「황국신민의맹세」를 익히고 부르게 하여 천황의 신민으로서 충성을 하도록 하게 하고, 또 창씨개명하지 않으면 학교에도 다닐 수 없었다고 합니다.

でも、私の心の中に「首立」の情念があったのか、定年後、日本語のボランティア活動をし、年長者、OB、年配の方に昔の暗い韓國のイメージを消えさせ、明るいイメージと眞の姿を御存じなるようにと、縁の下の力持ちとして観光地、古蹟地、博物館、など一生懸命に御案内しています。

그러나 저의 마음속에 고향을 그리워 하는 정은 조금 있었던가 퇴직후 일본어 봉사 활동을 하고, 년장자, OB, 년배자 분에게 옛날의 어두운 한국의 이미지를 없애고 밝은 이미지로

하기위해 참다운 모습을 보시고 알도록 하기 위하여 뒤에서 전력을 다하는 일꾼으로서, 관광지, 고적지, 박물관, 등에 모시고 다닙니다.

한국명 韓姓名 朴克己  
일본명 日本名 谷本克己  
출생지 出生地 한국 韓國  
생년월일 生年月日 1928년 12월 12일  
일본에서 살았던 곳 日本で住んでいたところ  
福岡縣  
한국으로 돌아간 해 韓国へ帰った年 1945년 12월 20일  
현주소 現住所 부산시 釜山市



부산 일어 봉사회에서 발표 釜山日語奉仕会での発表  
(2012년 6월 11일)



부산시어린이대공원 釜山市子供総合公園  
(2011년 10월 24일)



부산 일어 봉사회의 동료들과 함께 야유회 仲間と共に野遊会  
(2012년 4월 16일 암남공원 岩南公園  
김상만 씨 제공 金相晩氏提供)



(2011년 11월 10일)

卓 坪 準

日本語を習うようになった切っ掛け  
일본어를 배우게 된 동기

近頃若者たちは第2外国語になった日本語を学校の教科目で習っています。私の両親世代は日帝36年という歴史的な運命で自然的に日本語に接して生活していました。

요즈음 젊은이들은 제 2 외국어가 된 일본어를 학교에서 교과목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저의 부모님 세대는 일제 36년이란 역사적인 운명으로 자연스럽게 일본어를 접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私(1946年生まれ)は大韓民国の解放後、経済的に最も大変な“春窮期”と6.25動乱(韓國の南北戦争)を体験しながら育った世代ですので、現在のように外国語に関心を持っていない時代に生まれました。

저(1946년생)는 대한민국 해방 후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春窮期”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자란 세대이므로 현재와 같이

외국어에 관심을 안 가질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特に日本人と接したことは全くなく、日本語は本当になじみがうすい言語でした。日帝植民地時代に住んできた両親が時々韓国語と混用して使ういくつかの話を聞いて育った私が、1973年日本の三愛グループのリコー時計会社の研修生に選抜されて日本の岐阜県恵那市のリコー会社の寮で2年間技術を学びながら生活したのが切っ掛けになって日本語と接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특히 일본인과 접촉한 일은 전혀 없었으며 일본말은 정말 생소한 언어이었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 살아오신 부모님께서 가끔 한국어와 혼용해 사용하는 몇 마디의 말을 들으며 자란 저가 1973 년 일본 三愛그룹의 리·코 시계회사의 연수생으로 선발되어 日本 岐阜県 恵那市리·코 회사의 기숙사에서 2 년간 기술을 배우며 생활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일본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短い期間に技術を覚えながら日本語を勉強しました。基礎的な文法の実力もなく、動詞、形容詞の活用はもちろん、語彙力が弱くて手ぶり身ぶりしながら日本語を話しました。手にはいつも漢字辞典と日本語辞書を携えていました。

짧은 기간에 기술을 익히며 일본어를 공부 한다는 것이 기초적인 문법 실력이 없어 동사, 형용사 활용은 물론 어휘력이 약해서 손짓 발짓 하며 손에는 언제나 한자사전과 일본어 사전이 내 곁을 떠날 줄 몰랐습니다

研修を終えて帰国してからは、会社の仕事と私の経済の条件関係で深みある勉強を更にすることが出来なくなりました。50才を越えたある日、釜山市ボランティアセンターの外国語通訳奉仕団の会員に加入してから改めて独学で勉強を始めました。2002年の釜山アジア競技大会と2005年APEC、そしてBEXCOの行事の国際機械対戦および色々な大小の文化行事の時に日本語通訳奉仕員

として活動しました。

연수를 마치고 귀국하여 회사일과 저의 경제여건 관계로 깊어 있는 공부를 더 하지 못하였습니다. 50 살이 지난 어느날 부산시자원봉사센터 외국어 통역봉사단의 회원으로 가입하고부터 독학으로 다시 공부를 시작하여 2002 년 부산 아시안 게임과, 2005 년 APEC, 그리고 BEXCO 에서 행사하는 국제기계대전 및 여러 크고 작은 문화행사 때에 일본어 통역 봉사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日本人との親密なよしみをより一層深くする為ホームステイを提供しながら、釜山近郊のあちこちの観光案内と、日本語と関連のある場所ならばどこでも尋ねて勉強をしました。

일본인과 친분을 더욱 깊게 하는 홈스테이를 제공하면서 부산 근교의 이곳저곳 관광안내와 일본어와 관련 있는 장소라면 어디든 찾아다니며 공부 하였습니다.

福岡でボランティアをやっている知人から2008年6月27日福岡の市民会館で開かれた韓国人の金徳洙さんのサムルノリ誕生30周年記念公演に招待されて行ってきました。我が国で鑑賞できなかった公演を外国での公演に招待されて鑑賞できたことは本当に感慨無量でした。

후쿠오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2008, 6,27 후쿠오카 시민회관에서 한국인 金徳洙 사물놀이 탄생 30 주년 기념공연에 초대받아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할 때에도 기회가 되지 못해 관람하지 못한 공연을 외국공연에 초대 받아 관람하니 정말 감개무량하였습니다.

国際社会体育大会行事をはじめとして釜山港湾公事の国際旅客ターミナルでボランティアとして日本人旅行者の不便なところを補う奉仕にやりがいを感じています。今は釜山市民センターと福祉館で日本語講義をしています。振り返ってみると日本に研修生

として派遣された事が私の人生のみちをこのように変えたと思います。

국제사회 체육대회 행사를 비롯하여 부산 항만공사의 국제 여객터미널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일본인 여행객의 불편한 점을 보살피 주는 봉사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산 시민센터와 복지관에서 일본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니 일본에 연수생으로 다녀온 것이 나의 인생 진로를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 같습니다.

今でこそグローバル時代といって外国語が必須になっています。趣味生活と余暇善用で外国語勉強を大勢がやっています。外国語の勉強は本を通じて習得するのも重要ですが、現地を行き来して生きている教育、その国の文化、生活風習、歴史、など多様な経験を得ながら地元人と生活しながら習うことがよりはやい道だと考えています。その国の新聞や雑誌、TV、マスコミ、など、多くの分野の読書と幅広い勉強が必要だと考えます。

지금이야 글로벌 시대라 외국어가 필수가 되어 있습니다. 취미생활과 여가선용으로 외국어 공부를 많은 사람이 하고 있지만 외국어 공부는 책을 통해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지를 오가며 산교육인 그 나라의 문화, 생활풍습, 역사, 등 다양한 경험을 득하면서 현지인과 생활하며 배우는 것이 보다 빠른 길이라 생각하며 그 나라의 신문이나 잡지, TV, 메스콤, 등, 많은 분야의 독서와 폭 넓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今後、世界化の波がより一層早くなるでしょうから、国民誰でも外国語の一つぐらいは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可能なように努力しなくてはいけないと思います。私は、現在の釜山市ボランティアセンターの日本語の通訳会員として活動しながら、この10年余りを日本語と関連ある奉仕をしながらやりがいと誇りを探しています。今まで習ってきた日本語が錆つかないように不断に努力し

ている内に奉仕累計4,000余時間、年500時間に達し、この実績により2011年7月28日釜山市庁で光榮なボランティア金バッヂを市長から受け取りました。

앞으로 세계화의 물결이 더욱 빠른 시대이므로 국민 누구나 외국어 하나 정도는 의사소통이 가능하게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부산시 자원 봉사 센터 일본어 통역회원으로 활동하면서 10 여년을 일본어와 관련 있는 봉사로 남에게 도움을 베풀면서 보람과 긍지를 찾고 있습니다. 또한 여태껏 배워온 일본어를 녹슬지 않게 부단히 노력하던 중에 봉사누계(4,000 여 시간, 년 500 시간) 봉사실적으로 2011년 7월 28일 부산시청에서 영광스러운 자원봉사 금배지를 시장님으로부터 수여 받았습니다.

しかし、これに満足しないで今後もさらに沢山の奉仕で一人の市民として韓日間の掛け橋の役割に最善を尽くそうと努力しています。

그러나 이에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도 더 많은 봉사로서 한사람의 시민으로서 한일간의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サムルノリ（四物遊び）：韓國の民俗固有農樂遊び、樂器：ドラ、鼓、太鼓、チンで演奏する

\*사물놀이：한국 민속固有농악놀이, 악기: 팽과리, 장구, 북, 징으로 연주한다

한국명 韓國名 卓坪準

일본명 日本名

출생지 出生地 한국 韓國

생년월일 生年月日 1946년 6월 21일

일본에서 살았던 곳 日本で住んでいたところ

岐阜県恵那市 (사원 연수 社員研修)

한국으로 돌아간 해 韓國へ帰った年

현주소 現住所 부산시 釜山市



교토 東本願寺에서 京都東本願寺にて  
(1972년 5월 2일 ○표시가 필자 ○印が筆者)



(2011년 11월 11일)

## 鄭 基 鎬

影島中學 3 年生鄭基鎬外 5 人の友達と共に大新仙洞憲兵學校に入學するつもりで影島大橋を通り過ぎようと坂道を上ろうとするとき (6.25 のとき)、防衛將校二人が我れら 5 人を止めてつれて行こうとした。この時、我れら二人が將校の足元根をけて横ダウンし頭をふみけてにげさった後、家のたかどの(タラック房)で約 2 週間なんの連絡もせず過ごした後、世間のようすを母に聞き外に出かけ友達を呼び出し 23 聯隊下士官候補生學校(門峴洞所在)に入學 (1950 年 7 月 21 日)。

영도중학 3 년생 정기호외 5 인은 친구와 함께 대신동헌병학교에 입학하려고 영도대교를 지나 언덕을 올라 지나려 할 때(6.25) 방위장교 2 인이 우리 5 인을 세워 그들이 데려가려고 하여 이때 우리들 2 인이 장교의 정강이를 걸어차 넘어뜨린 후 머리를 짓밟은 후 도망, 집 다락방에서 약 2 주간 연락도 없이 숨어지낸 후 세상물정을 어머니한테 듣고 밖에 나가 친구들을 불러 23 연대하사관후보생학교 (문현동소재) 에 입학 (1950 年 7 月 21 日)。

1950年6月25日からすぐ入隊覺悟で影島大橋を過ぎようとした。我ら青少年、我ら青年は不良さなかつたけど勇氣ある青年だったと思ふ。いつもポケットにはツバというものと石が入っていた。その内の友は自轉車のチェーンを取ってポケットに入れていた。金日成を殺しに行こう、とさけんで家を出たが防衛將校の妨害で止められた。しかし、とうとう 23 聯隊に入隊。門岷洞伽倻一帶訓練中釜山近郊まで人民軍侵攻、我れらは絡東江まで前進する。こえをはりあげ訓練中、上部からおまえら下士官生徒達は時間がすぎたら下士官にしてやるから訓練所について助教をしなさい、と言われた。そうして東萊ユウラク國民學校にいて釜山地區訓練所にて助教として活躍。小隊長が前線に行く前、前線にいったら犬死する、自分のように將校になって死んだら名譽だから(東萊女高のあと)に 40 日 6 週間少尉綜合學校にいきなさいと、いって小隊長は戰線に、わたしは陸軍本部(國防部)人事參謀少領金〇〇、友人の兄、學校の先輩にいて頼んで UN 軍に行くようになった。

1950년 6월 25일부터 곧 입대각오로 영도대교를 지나려 할 때. 우리들 청소년, 우리들 청년은 불량하지 않았으나, 용기있는 청년이었다고 생각한다. 항상 바지주머니에는 “날뿔(ツバ)” 라는 것하고 돌이 들어 있었다. 그 중 한 친구는 자전거 치엔을 취하여 옷 호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김일성을 죽이러 가자. 소리지르며 집을 나왔으나 방위장교의 방해로 중지하고, 할수없이 23 연대에 입대하여 문현동 가야일대에서 훈련중. 부산근교까지 인민군 침공. 우리들은 낙동강까지 전진한다. 소리 높이 지르며 훈련 중, 상부로부터 너희 하사관생도들은 시간이 지나면 하사관으로 시켜줄 것이니 훈련소에 가서 조교를 하고 있으라고 하였다, 그래서 동래구락국민학교에 가서 부산지구훈련소에 조교로 활약, 소대장이 전선에 가기 전, 전선에 가면 개죽음하니, 나같이 장교로 죽으면 명예스러우니, (동래여고자리)에 40 일 6 주간

소위종합학교에 가라고 하고 소대장은 전선으로. 나는 육군본부(국방부)인사참모 소령 김○○ 친구의 형, 학교선배에 부탁하여 UN 군으로 가게 되었다.

中央埠頭で船に乗って福岡で汽車に乗換え小倉についた時、America 上士二人が引率者としてきて、この中で英語を話す人とさげんだ。こっちの引率者は私だったから私が英語を話す人はいないとこたえた。米兵の上士はすぐ私の軍番を首元から取り出し、”Let me see your dog tike.” やくざ犬札を見ようと言うから、私は、”Hey, this is a soldier number.” と言ったらむこうがわの米上士を呼び “I find a diamond here.” と言って私をかかえあげてみせた。そうして又おまえを何處にもいかさずおれの所へつれて行くんだと命じた。はい、わかりましたといった。それから豫防注射と DDT をかぶせて水浴びに入った後、New 軍服を配給し日系のハワイ米軍人が出てきて選別、私はあの America 上士がきめたからそのとおりにしておいた。どこかといえばHQ 2nd co 7th regiment 3rd infantry division に配屬。

중양부두에서 배를 타고 후꾸오까에서 기차로 갈아타고 小倉(고쿠라)에 도착했을 때 America 상사 2 인이 인솔자로 왔다. “이중에 영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리질렀다. 여기 인솔자는 나였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대답하였다. 미병 상사는 곧 나의 군번을 목에서 끄집어 내면서, “Let me see your dog tike.” 불양개폐를 보자고 말하길래 내가 “Hey, this is a sorder number.” 라고 말하니, 저쪽 미상사를 불러 “I find a diamond here.” 나를 안아올려 보였다. 그리하여 또 너는 어디에도 가지 말고 우리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고 명 하였다. “네, 알았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예방주사와 DDT 를 뒤집어쓰고 샤워를 한 후 새 군복을 배급하고 일본계 하와이 미군인이 나와 선별, 나는 그 America 미상사가 정해서 그렇게하였다. 어딘가하면 HQ 2nd co 7th regiment 3rd infantry division 에 배속.

あの日本國北九州溫泉地帯での小倉訓練。一日 10 時間の訓練でも太陽はあと 3 時間くらい残っていた。朝ごはんの時たばこ 1 個(ひのまる or らくだ)、&牛乳一本、Ap 一個、egg、purine 二個、coffee でそれが朝飯だが若者の訓練には腹がへり、別に Coffee time doughnut 1、2 個と coffee を飲んでまた訓練。午後 5 時になれば訓練は終わったが太陽は 3 時間くらいのことっているから洗濯をするためにちょっと下での湖水で洗濯する者、山を下り辭典を買うために別府の町まで買物に行く者、軍のベッドでカルタあそびをする者、色々。

그 일본국 기타큐슈 온천 지대에 小倉(고꾸라)훈련. 1 일 10 시간 훈련하여도 태양은 아직 3 시간쯤 남아 있었다. 조반때에는 담배 1 개(히노마르 or 라구다) 우유 1 병 egg, purine 2 개, coffee 이고, 이것으로 조반인 고로 젊은이의 훈련으로는 배가 고파 따로 coffee time, doughnut 1-2 와 coffee 를 마시고, 또 훈련, 오후 5 시가 되면 훈련은 끝나지만 태양은 3 시간 정도 남아 있어서 세탁하는데 적당한 밀에 호수에서 세탁을 하는 사람, 산을 내려가 사전을 사러 別府(벵부)의 거리까지 물건을 사러 가는 사람 군 침대에서 카르타(カルタ)놀이를 하는 사람 등.

私が洗濯物の W. bag を肩にして湖水に行くところで一人の乙女が、boy さん、こっちと、いいおっしゃったが男根が龜頭のようにかかれてしまい、いくつと聞いたら 16 です、と答えた。でもおどろいて洗濯場に行って洗濯をおわったが後悔した。ある日着物を着換ようと民家に行った時、あのお祖父さんが私に話した事を思い出した。お祖父さんは二男二女をもっていたがあこの太平洋戦争で二人の男は戦死、のこったのは二人の娘、女高學生だった。お祖父さんが私にたのんだのは、君がこっちに残ってあの娘と家をまもれということだったが故郷の母が見たくて歸隊してしまった。

나는 세탁물 W.bag 를 어깨에 메고 호수에 가는데 1인처녀가 boy 양반 “여기에”라고 해 남근의 귀두가 숨어서, “몇살”하고 물으니 16 이라고 답하는고로, 놀라 세탁장에 가서 세탁물을 끝냈지만 후회가 되었다. 어느날 옷을 갈아입으려고 민가에 갔을 때 그 노인이 나한테 이야기한바, 생각이 났습니다. 그 노인이 그남그녀를 데리고 있었는데 그 태평양전쟁에서 두아들은 전사하고 나머지 두 딸(여고학생)이 있는데 나보고 부탁하기를 네가 여기 남아서 딸하고 집을 지켜주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향의 모친이 보고싶어서 귀대하고 말았다.

元山に上陸、豆満江まで進んだが中共軍百萬名の入海戦術で 1951年1月4日後退。

원산에 상륙, 두만강까지 진군, 중공군 백만의 인해전술로 1951년 1월 4일후퇴.

1950년 7월 21일	陸軍 23 聯隊下士官後補生入隊 육군 23 連대하사관후보생입대
1950년 9월 21일	UN 軍, KATUSA UN 군, KATUSA
1953년 10월	陸軍 26 師團創設除隊 육군 26 사단창설 제대

現在こんなに長生きすると思ったら、臍繰金を少し残したのにな。

현재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더라면, 비자금이라도 남겨 놓았을 것을.

한국명 韓国名 鄭基鎬  
일본명 日本名 野村基鎬  
출생지 出生地 한국 韓国  
생년월일 生年月日 1931년 8월 20일  
일본에서 살았던 곳 日本で住んでいたところ

한국으로 돌아간 해 韓国へ帰った年  
현주소 現住所 부산시 釜山市



산성마을청송가든 에서  
山城村青松庭にて  
(2011년 11월 11일)





(2011년 11월 11일)

## 梁 在 鉉

主に日本での生活について書きます。

주로 일본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씁니다.

私は北海道の釧路生まれです。父親の話によると、父親は 16 歳頃田舎の生活がいやになり家出したそうで、全羅南道、麗水にたどり着いた時、ある人に誘われて日本に行ったということです。1918 年頃のことで、着いたところは福岡付近。日本へ父を連れて行った人は日本人で、三菱の重役だったようです。その人は子どもがいなく、父を大変かわいがり、学校へも行かせてくれたそうです。父は自分で働いて給料を貰いたかったようですが、その人は、若いからだめだと言って、働かせてくれ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しかし、自分が働いて故郷の両親に送金したいというようなことをその人に話すと、当時のお金で 10 円くらいくれたそうです。父はそれを持って故郷へ帰り、田畑を買い、そしてまた日本に戻りました。

나는 홋카이도의 쿠시로(釧路)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버지는 16 세 무렵 시골 생활이 싫어져서

가출했다고 하고, 전라 남도, 여수에 도착했을 때, 어떤 사람의 권유로 일본에 갔다는 것입니다. 1918 년경의 것으로, 도착한 곳은 후쿠오카 부근. 일본에 아버지를 데려간 사람은 일본인, 미쓰비시의 중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아이가 없어 아버지를 매우 귀여워하고 학교도 보내준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스스로 일하고 봉급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 사람은 젊기 때문에 안된다고 말하고, 일을 시켜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일해서 고향의 부모에게 송금하고 싶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자, 당시 돈으로 10 엔 정도 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 논밭을 사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その後、父は独立して北海道釧路の雄別炭坑で働きました。結婚のため全羅南道光陽郡へ戻り、結婚式を挙げ、そして母を連れて再び北海道へ戻りました。これが 1930 年のことで、母は 21 歳でした。私は 1931 年に生まれました。いくつか住所は変わりましたが、尺別炭坑で落ち着き、父はその第三至誠寮で梁川組という飯場を経営し、人夫を 300 人くらい使っていました。

그 후 부친은 독립하여 홋카이도 쿠시로 유우베츠(雄別) 탄광에서 일했습니다. 결혼하기 위해 전라남도 광양군으로 돌아와 결혼식을 올리고, 그리고 어머니를 데리고 다시 홋카이도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1930 년의 일로, 어머니는 21 세였습니다. 나는 1931 년에 태어났습니다. 몇번 주소는 바뀌었습니다만, 싸그베츠(尺別) 탄광에서 정착하여 아버지는 그곳의 제 3 시세이료 (第三至誠寮) 기숙사 야나가와그미(梁川組) 조라는 합숙소를 운영하고 인부를 300 명 정도 부리고 있었습니다.

私が 5 歳の時、弟が生まれましたが、母は産後の肥立ちが悪く亡くなりました。葬式の際、棺に釘が打たれようとした時、棺に入り母と一緒にいくと言って泣いたことを覚えています。二番目

の母が来て、妹が 3 人生まれましたが、2 番目の妹は亡くなりました。

내가 5 살 때 동생이 태어 났지만, 어머니는 산후 회복(肥立ち)이 나빠 죽었습니다. 장례시, 관에 못을 치려 했을 때, 관에 들어가 어머니와 함께 간다고 울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어머니가 와서 여동생 3 명이 태어 났지만 두번째 여동생은 죽었습니다.

父は韓国へ 2 回ほど渡って人夫を募集し、1000 人くらいの人を日本国内の炭坑に分配しながら、北海道まで汽車で帰ったこともありました。

아버지는 한국에 2 회 정도 건너 가서 인부를 모집, 1000 명 정도를 일본의 탄광에 분배하면서 홋카이도까지 기차로 돌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私の幼少時の背景はこんな感じです。大変幸せで裕福な暮らしをしていました。北海道での子どもの頃の思い出は尽きません。運炭に使われていた馬と遊んだり、雪の中ウサギ罾を仕掛けウサギを捕ったり、小川にマス釣りに出かけて熊に追われたり、まさに「ウサギ追いし彼の山...」のような感じです。冬はスキーやスケートをしながら学校へ通ったこともありました。ある時雪がたくさん降って、破れた地下足袋がツバメのように電線に引っかかっていました。それを下から見て絵に描き、賞を貰ったこともありました。その嬉しかったことをありありと思い出します。

내 어린 시절의 배경은 이런 느낌입니다. 더없이 행복하고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홋카이도에서의 어린 시절의 추억은 끝이 없습니다. 탄 운반에 사용되었던 말과 놀기도 하고, 눈 속에 토끼 뒹을 놓아 토끼를 잡기도 하고, 개울에 송어 낚시하러 나가 곰에게 쫓기기도하고 마치 "토끼 쫓았고 그의 산 ..."와 같은 느낌입니다. 겨울에는 스키와 스케이트를 타고 학교에 다녔던 적도있었습니다. 어떤 때 눈이 많이

내리서, 찢어진 찌까다비(地下足袋)가 제비처럼 전선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밑에서 보고 그림을 그려 상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 기뻐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しかし、1944年頃、戦争が激しくなると、北海道の炭鉱は休坑となりました。父は坑員を九州の三菱系の炭鉱へ移動させるために、坑員を連れて福岡県の折尾の近郊の炭鉱へ行きました。父の留守中に財産が奪われるなど困ったこともありました。さらに、父が北海道へ帰って来た時に、父と妹が列車とホームの間に挟まれ大けがをし、父は三日後に釧路市立病院で亡くなりました。もちろん私は父を見舞いましたが、父が二、三日一緒にいたいと言っていたのに、私は学校へ行くために帰りました。その翌日、校長先生から父が亡くなったことを聞き、大変後悔しました。

그러나 1944년경 전쟁이 심해져서, 홋카이도 탄광은 휴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광산 직원을 규슈의 미즈비시 계열의 탄광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광산 직원을 데리고 후쿠오카현 오리오 근처의 탄광에 갔습니다. 아버지의 부재중 재산이 박탈되는 등 곤란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홋카이도에 돌아 왔을 때, 아버지와 여동생이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어서 큰 부상을 입고, 아버지는 삼일 후에 쿠시로 시립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나는 아버지를 문병했지만, 아버지가 2 ~ 3일 함께 있고 싶다고 했는데, 나는 학교에 가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교장 선생님께서 아버지 돌아가신 것을 듣고 매우 후회했습니다.

1945年12月28日だったと思いますが、山口の仙崎から米軍の巡洋艦に乗り釜山に向かいました。船での大人たちの会話は、独立したとの希望的な話が多かったように思います。私にはその内容が余りよく分かりませんでした。釜山港には夜着きましたが、釜山の夜景は高層ビルだらけのように見えました。しかし、夜が

明けてみると、その光はハコバンと呼ばれる小屋の明かりが連なったものでした。チャガルチで小さな商船を雇って 12 時間くらいセンジンガンという川を上り、父の故郷である全羅南道光陽へ行きました。

1945 年 12 月 28 日이었다고 생각 합니다만, 야마 구치센자키(仙崎)에서 미군 순양함을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배에서 어른들의 대화는 독립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나는 그 내용을 그다지 잘 몰랐습니다. 부산항에 밤에 도착했지만, 부산의 야경은 고층 빌딩 투성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날이 밝고 보니, 그 빛은 하코반 이라는 오두막 불빛이 길게 이어져있던 것이었습니다. 자갈치에서 작은 상선을 빌려서 12 시간 정도 섬진강을 올라가, 아버지의 고향인 전남 광양에 갔습니다.

韓国へ帰ってからの生活は大変でした。細かなことは書きませんが、私の人生で楽しかったのは日本での生活だけです。今でも日本が自分の国と勘違いするくらいです。

한국에 돌아와 생활은 힘들었어요. 자세한 것은 쓰지 않겠습니다만, 내 인생에서 즐거웠던 것은 일본에서의 생활 뿐입니다. 지금도 일본이 자기나라라고 착각하는 정도입니다.

한국명 韓姓名 梁在鉉

일본명 日本名 梁川在鉉

출생지 出生地 일본日本

생년월일 生年月日 1931 年 7 月 20 日

일본에서 살았던 곳 日本で住んでいたところ  
北海道釧路、芦別炭坑

한국으로 돌아간 해 韓国へ帰った年 1945 年 12 月 28 日

현주소 現住所 부산시 釜山市



산성마을청송가든 에서 山城村青松庭にて  
(2011년 11월 11일)



(2011년 5월 1일)

## 申 和 出

韓国へ帰った当初は、朝起きてから寝るまで日本に戻ることにばかり考えていました。

한국에 돌아온 당초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일본으로 다시 돌아갈 것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父は、日露戦争後病気で亡くなりました。母一人で私たち兄弟 4 人（姉、兄、自分、弟）を農業をしながら養っていました。大分県大野郡緒方村の馬場というところだったと思います。小学校 2 年生の 1 学期まで馬場小学校に通っていました。

아버지는 일로전쟁 후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우리들 형제 4 사람(누나, 형, 나, 동생)을 농사를 지으시면서 키워 주셨습니다. 오오이타켄 오오노군 오가타 무라의 바바라고 하는 곳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소학교 2 年生의 1 학기까지 바바소학교에 통학하고 있었습니다.

1945 年 10 月頃に韓国に帰りました。当時、朝鮮で日本人にじめられた朝鮮人が日本人を殺し、その日本人が帰ってくると、

日本にいる朝鮮人が復讐されるという話が母の耳に入り、日本にいと危ない、早く帰ろうと言うことになりました。

1945년 10 월경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일본인으로부터 학대 받은 조선인들이 일본인을 죽이고, 그 가족들이 돌아와서 조선인들에게 복수한다는 소문을 어머니가 듣게되어, 일본에 있으면 위험하니 빨리 돌아가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大分から汽車に乗り門司港から日本の木造船に乗って釜山に帰りました。当初下関から出港予定だったようですが、なぜか、門司でした。門司港から日本の木造船を貸し切り、3家庭の14名がそれに乗って釜山まで帰りました。途中天候が荒れて対馬の厳原に2週間くらい留まっていました。船長は日本人でしたが、判断力の正確な人だったと思います。海が静まって出港しても、途中はまだ荒れていて航行には難しいと厳原に引き返すことが3回くらいありました。それで2週間くらい厳原に留まることになったのですが、無理をして出港した船は難破しました。韓国に帰って分かったことですが、敗戦で朝鮮から戻ってきた日本人が朝鮮人に仕返しをしようというのはデマでした。

오오이타에서 기차를 타고 모지항구에서 일본의 목조선을 타고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초에는 시모노세키에서 출항예정인 듯 하였으나, 웬지 모지항에서 일본의 목조선을 대절하여, 3 가정의 14 명이 그 배를 타고 부산까지 돌아왔습니다. 도중 기상이 나빠서 대마도의 이즈하라항에서 2 주정도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선장은 일본인이었으나 판단력이 정확한 분이였다고 생각 됩니다. 폭풍우가 멈추어 출항 하였어도, 도중 바다는 아직도 파도가 거세어서 항해하기가 곤란하다 하여 다시 이즈하라항으로 회항하기를 3 번 정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 주간쯤 이즈하라항에서 정박하게 된 것이나 무리하게 출항한 배는 끝내 상당한 고난과

파손을 당하였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알게되었던 것이나 패전으로 조선에서 돌아온 일본인이 조선인들에게 양갓음을 한다는 것은 헛소문이었습니다.

当時の朝鮮では日本のお金は両替できなかつたので、お金が使えなく生活に大変困りました。それで日本から持ち帰った荷物を少しずつ売って生活費にしていました。最初の3年間は貧乏で生活は苦しかったです。

당시의 조선에서는 일본돈은 은행에서 환전할 수 없었으므로 돈을 쓰지 못해 생활하기가 대단히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갖고 온 물건들을 조금씩 팔아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3년간은 가난하고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小学校の4年生から学校に行きましたが、1年間は、国語などは言葉が分からずまったく理解できませんでした。でも、算数だけはよく分かりました。その時は男の先生でしたが、私との個人的な話は日本語でしてくれました。中学生になって昼間は働き、夜間中学校に通って勉強しました。高校も夜間高校でした。

소학교를 4학년 때 입학하였으나 1년동안은 한국말을 몰라 국어과목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산수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남선생님이였으나 나와 의 대화는 일본어로 해 주셨습니다. 중학생이 되고서는 주간에는 일하고 야간중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였습니다. 교교도 야간교교였습니다.

中学生の時洋服屋で働き、技術を身につけ洋服の裁断ができるころまで修得しました。46歳の頃自分の洋服屋を開き自立しました。商売はうまくいきました。日本のお客様で毎年韓国に来て洋服を2-3着注文して帰るような顧客もできました。自分でズボンが作れるようになってから、やっと生活も安定してきました。

중학생때 양복점에서 일을 하면서 기술을 익히게 되어,

양복의 재단을 할 수 있게까지 기술을 습득하였습니다. 40 대 후반에 양복점을 개점하여 자립하였습니다. 사업은 잘 되어 갔습니다. 일본인 손님으로서 매년 방문 하여서는, 양복을 2~3 벌씩 주문해 가시는 단골손님도 생겼습니다. 나 스스로 바지를 만들 수 있게 된 후로부터는, 간신히 생활도 안정되어 갔습니다.

2002年に店を閉じました。その後1年くらいは遊んでいました。そのような時、洋服屋のお客さんだった南浦ブックセンターの社長さんから、遊んでいるならうちに来ないか、という声がかかりました。それで私は今その本屋さんで働いています。もう10年になります。

2002 년도에 점포를 폐쇄하였습니다. 그 후는 1 년정도 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을때, 양복점의 손님이었던, 남포서점의 사장님으로부터 “놀고 있다면 우리서점에 오지않겠는가” 하는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는 그 서점에서 일하는지가 벌써 10 년째입니다.

死ぬ前に一度日本の大分の故郷に行ってみたいと思いますが、なかなかできないでしょうね。時代が経過してずいぶん変わっていることでしょうし。自分の家の前には青年学校がありました。そこで遊んでいました。小学校2年生の時、女の先生でしたが、そのご主人が日露戦争で亡くなって金鵝勲章をもらったと言って、教室でその勲章を私たちに見せてくれました。

죽기 전에 한번 일본 오오이타의 고향에 가보고 싶지만 어지간히 힘든 일이겠지요. 시대가 경과하여 몹시 변화되어 있을 것 같고. 우리집 앞에는 청년학교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소학교 2 년일 때 여선생님이었으나, 그 선생님의 남편이 일로전쟁에서 전사하시고 받은 훈장(金鵝勲章 킹시쿤쇼오)이라고 하여 교실에서 그 훈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男の友達で、名前がカズオだっと思いますが、カズちゃんという人がいました。私は「カイデル」と呼ばれていました。私の名前の「和出」は「カイデル」と読みます。

남자친구로 이름이 “카즈오” 였다고 기억되나 “카즈짱” 으로 애칭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나는 “카이테루” 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내이름의 “和出” 은 “카이테루” 라고 읽습니다.

日本にいた時は農業もしていたし、生活はよかったです。兄は戦争が終わった時は陸軍兵器学校の伍長でした。やっぱり平和がいい、日本がいい。私にとっては、日本が第一の故郷で、韓国は第二の故郷です。

일본에 있을 때는 농사도 짓고 있었고 생활은 좋은편이었습니다. 형은 중전이 되었을 때는 육군병기학교의 오장(한국계급, 상사)이었습니다. 역시 평화가 좋다, 일본이 좋다. 나에게 있어서는 일본이 제 1의 고향이며, 한국은 제 2의 고향입니다.

한국명 韓国名 신화출 申和出

일본명 日本名 高田和出

출생지 出生地 한국 일본日本

생년월일 生年月日 1937년 1월 24일

일본에서 살았던 곳 日本で住んでいたところ

大分県大野郡緒方村馬場

한국으로 돌아간 해 韓国へ帰った年 1945년 10월頃

현주소 現住所 부산시 釜山市



(2011년 5월 1일)



남포 문고에서 南浦文庫にて (2012년 6월 10일)



(    년   월   일 )

## 李 賢 道

私は、昭和 7 年（1932 年）生まれで、生まれたところは静岡県の温泉休養地熱海、そして育ちは尾張名古屋です。小学校 6 年生だった昭和 20 年（1945 年）2 月に母と兄弟一緒に韓国に帰りました。そして、一男六女を生み育て、社会に進出させ、今は、夫婦二人暮らしで、釜山に住んでいます。

저는 1932 년생이며 태어난 곳은 일본 시즈오카현의 온천휴양지인 아타미, 자란 곳은 오와리 나고야입니다. 초등학교 6 학년이던 1945 년 2 월에 어머님과 형제 모두가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1 남 6 여를 낳아 길러 사회에 진출시키고 현재 노부부만이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日本と帰国後の韓国の暮らしで忘れがたい思い出は数々あります。それがきっかけになって私の人生に影響を与えたものの一つは、名古屋の矢田小学校二年生の頃のことです。

일본과 귀국 후의 한국생활에서 잊을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만, 그것이 동기가 되어 저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것의 하나는 나고야시의 야다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クラスメートだった日本人の友と二人で学校からの帰り道、季節は秋だったので農家のあたりに甘柿が沢山実っていました。あまりに旨そうに見え、そして腹も減っていたので、前後も顧みず二人でいくつかの柿を取り(盗み)しましたが、百姓のおやじさんに見つかってしまいました。逃げようとしたのですが、怖さのあまり逃げられもせず、掴まってしまいました。「貴様らどこの学校の何者で、先生は誰だ」と聞かれ、嘘をつくことも出来ず、本当のことを言ったところ、「よし、担任の先生に言ってやる」と言うのです。もし、先生が知ったらどうなるかと驚き、二人で土下座し、何とぞ先生へのお告げだけは勘弁して下さい、と何度も謝りました。結局、多くの説教と今後絶対に悪い事はしませんとの誓いをして許しを得ました。

단짝이었던 일본인 친구와 둘이서 하교하는 길(계절은 가을이었고 농가 근처의 감나무에는 탐스러운 단감이 많이 열려있었으며 배도 출출하였음)에 둘이서 몇 개의 감을 뺏습니다. 그러나 농부인 주인아저씨에게 들켜버렸고, 두려움에 도망치지도 못하고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놈들, 어느 학교의 누구냐? 그리고 선생은 누구냐?”라고 묻기에 거짓말을 할수 없어 사실대로 얘기했더니 “알았다. 담임선생께 일러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담임선생님의 귀에 들어가면 안된다는 두려움으로 무릎을 꿇고 “아무쪼록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것만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몇 번이고 빌었고, 결국 많은 설교와 앞으로는 절대 나쁜짓은 않겠다는 굳은 맹세를 함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その誓いが80を超えた私の人生にまわりつき、お陰で他人や公に迷惑をかけず正直に生きられたと自分なりに思っています。

이 맹세가 저의 80 인생에 항상 붙어 다니게 되었고

타인에게나 세상에 피해를 주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된 힘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もう一つは日本の小学校生活の話です。当時、約 60 名程と思う一つの班に何人かの朝鮮人児童が居ました。鮮人が故に級友たちより何らかの差別といじめがあったのは部分的でありながらも事実でありました。いじめの仕方として歌を作っていじめたものもあり、その歌詞は、

朝鮮人は紙屑拾い 一日五銭、暮らしに困る

というものでした。

또 한 가지는 일본초등학교 생활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60 명 정도의 한반에 조선인이 몇 명밖에 없었고, 조선인이기에 일본인 급우들로부터 차별대우와 왕따는 부분적이면서 사실이었습니다. 괴롭히는 방법으로 노래를 지어 괴롭혔는데 그 가사는

조선 사람은 녀마 죽기에요 하루벌이 오전, 생활이 곤란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幼心の私にはそれが嫌だったし、その蔑視を避けるには彼等より先んじねばとの一念で、学校生活は勿論、勉強にも一層励みました。幸いにも運動には先天的な素質があった様で、鉄棒、柔軟体操ではいつも体育の先生の示範役に自分が指名されもしました。校内の相撲部では大関までなりました。水泳では、名古屋市で初めて作られた私の学校のプールの開所式に、私が平泳ぎでクロールの選手と一緒に初泳ぎを行い、学校の皆様の喝采を浴びました。

어린마음의 저에게 이것이 싫었고 그 멸시를 받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학교생활은 물론 공부도 남들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운동에는 선전적으로 소질이 있어서 철봉, 체조 등에서 언제나 체육선생님의 시범으로 지명되곤 했습니다. 학교 내의 씨름부에서 “오오제끼”까지 했고 수영에서는 나고야시 초등학교에 처음 만들어진 학교 풀장의 개소식에서 평영으로 첫 시영을 해 많은 사람들의 갈채를 받았습니다.

そのお陰かどうか分かりませんが、何とかいじめは受けませんでした。もう 70 年前の事で、今ではそうでもないでしょうが、とにかく、人は辛い事、難しい事が立ち塞がれば、それに打ち勝とうとの意志が湧き出るのが自然でないだろうかと思います。人生に試練はあった方が生き甲斐はあると思います。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조선인이면 받았던 멸시와 왕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70 여년전의 이야기이기에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쨌든 사람은 고생을 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의지가 솟아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여기며 인생살이에 시련이 있어야만 삶의 보람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あとの一つは、韓国への帰国当時の不幸な思い出です。

私の兄弟は男 4 人女 1 人の兄弟で、私は次男坊でした。父が亡くなり、母一人で暮らしのメドも立たず、戦争末期の空襲なんかの不安もつのもつり、母の里である韓国の晋州に帰る事になりました。昭和 20 年（1945 年）2 月の事で、帰国の予定は名古屋から下関まで汽車、そして関釜連絡船で釜山港まで、更に汽車で馬山、そして晋州行きの列車に乗り替えて晋州に着く予定でした。

마지막 한 가지는 한국으로 귀국할 당시 불행했던 일입니다.

저는 4 남 1 녀의 차남으로 아버지 작고 후 어머니 혼자서 생활(전쟁말기의 공습 등의 불안감으로 인해)하기에 엄두가 나지 않아 어머니의 친정인 진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1945 년 2 월의 일로 귀국여정은 나고야에서 시모노세끼까지 기차로, 그리고 관부연락선으로 부산항까지, 다시 기차로

마산·진주행 기차로 환승하여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下関まで無事に着きましたが、関釜連絡船の乗船には、当時戦争たけなわで米軍の空襲や機雷などで出航が何日か延期されました。それで、準備した食糧も尽き、戦争下の食糧統制もひどく、お金を持っても食べ物も買えず、ひもじい思いをしました。いつ出航するかも知れず、宿屋にも行けなく駅の待合室で寒さに耐えながら夜を明かしました。そして、ようやく釜山に着き、汽車で真夜中に馬山に着きましたが、最終便である晋州行きの汽車が何時間後かには来るので、その間宿にも行けず駅の待合室で待つ事になりました。

시모노세키(下關)까지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만, 관부연락선의 승선에는, 당시 전쟁은 절정이어서 미군의 공습이나 기계수리 등으로 출항이 며칠인가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식량도 떨어지고, 전쟁 아래의 식량통제도 심하고, 돈을 가지고 있어도 음식물도 살 수 없고, 배고픈 생각만 했습니다. 언제 출항할지도 알려지지 않고, 여관에도 갈 수 없어 역의 대합실에서 추위를 견디어 내면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부산(釜山)에 도착하고, 기차로 한밤중에 마산(馬山)에 도착했습니다만, 막차인 진주행 기차가 몇시간 후에는 들어오므로, 그동안 숙소에도 갈 수 없고 역의 대합실에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私達が持ってきた荷物は一人当たり二個ずつ、合わせて12個でした。それを待合室の空いたあちこちに置き、もうすぐとの安堵感があつたのか、うとうとと眠りに陥ってしまいました。ハッと目を覚ましたところ、母が枕がわりに抱いていた一つの手荷物を除いた全部が無くなっていました。

우리들이 가지고 온 짐은 한사람당 2 개씩, 합계 12 개이었습니다. 그것을 대합실의 빈 여기저기에 두고, 이제 곧 안도감이 있었는지, 꾸벅꾸벅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퍼뜩

눈을 떠보니, 어머니가 베개를 베고 안고 있었던 하나의 짐보따리를 제외한 전부가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盗まれたのです。さあ、大変。その荷物は私達家族の全財産でした。母の悲しみは言い様がありませんでしたが、私は母に「母ちゃん、心配せんでもいい、警察に届ければすぐに探してくれるよ」と言い、警察に届けましたがだめでした。日本と半島との治安状態に雲泥の差がある事を知らなかった私はあまりにも純真無垢だったのです。

도둑맞은 것이지요. 자 큰일입니다. 그 짐들은 저희가족의 전재산이기에 어머니의 슬픔은 극에 달했습니다만. 저는 어머니께 “엄마 걱정 하지 마, 경찰에 신고하면 금방 찾아줄 것이예요”라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허사였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치안상태는 하늘과 땅차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저는 너무나도 순진무구했었습니다.

当然の事ながら韓国での暮らしは相当厳しくなりました。その試練を克服するが為、家族皆の苦勞もひどく、私の場合も、幼い頃から仕事をしたり、母を助け田畑の仕事は勿論、大人も嫌がる遠地の薪刈りなど不満も言わずにやりました。今考えれば、当時そんな事がよくも出来た、やったんだなあ、と不思議にも思えません。

당연한 것이면서 한국에서의 생활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가족들의 고생은 말도 못할 지경이었으며, 저의 경우 어린나이에 직장에서 일을 하고 어머니를 도와 논밭일은 물론 어른들도 싫어하는 나무하기 등을 불만 없이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당시 어떻게 용케 해낼 수 있었을까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そうしたハードな試練のお陰かも知れませんが、私の体力と意志が強くなったのも事実です。その証拠に、80歳になった今迄、

薬屋に行った事もないし、病気で医者さんのお世話になった事  
もありません。

그러한 힘든 일, 시련의 덕인지 모르지만 저의 체력과  
의지가 강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 증거로 80 세가 넘은  
지금까지 약국에 한번 가본 적 없고, 큰 병으로 병원신세 한번  
진 적이 없습니다.

人は、平凡な暮らしも結構ですが、辛い試練があればある程、  
それを乗り越えやり甲斐、生き甲斐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사람은 평범한 삶도 좋지만 어려운 시련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시련을 통해 성취감, 삶의 보람도 있기 마련이라  
생각합니다.

2012년 2월 李賢道 이현도

한국명	韓國名	李賢道
일본명	日本名	
출생지	出生地	일본 日本
생년월일	生年月日	1932년 6월 27일
일본에서 살았던 곳	日本で住んでいたところ	愛知県名古屋市矢田
한국으로 돌아간 해	韓国へ帰った年	1945년 2월
현주소	現住所	부산시 釜山市



(왼쪽左)  
卓坪準 탁평준  
(오른쪽右)  
李賢道 이현도  
산성마을청송가든 에서  
山城村青松庭にて  
(2011년 11월 11일)



오사카·고베 지역 관광 大阪・神戸地區観光で  
(2008년 5월 29일)



한일 언어 봉사 사회의 공부 시간 韓日言語奉仕會の勉強の時  
(2009년 7월 17일)



(2012년 02월 13일)

## 曹 京 植

### 熱い血が流れる韓国人 뜨거운 피가 흐르는 한국인

曹京植 조경식

去る二〇〇七年一月二六日、明仁天皇ご夫婦を初めとして、安部（あべ）晋三（しんぞう）総理大臣の夫人昭恵（あきえ）さんなど、著名な方々の参観するなかで“あなたを忘れない,”という映画の試写会が盛況裏に行われたとの記事が、ある新聞の片隅を飾っていた。

지난 2007년 1월 26일, 明仁天皇부처를 비롯하여 安部晋三 総理大臣의 부인 昭恵씨 등, 저명한 인사들이 참관 하는 가운데, “당신을 잊지 못해” 라는 영화의 시사회가 성황리에 열렸다는 기사가 어느 신문의 한쪽 귀퉁이를 장식 했다.

映画「あなたを忘れない」とは、二〇〇一年、東京の新大久保駅で、危険に当たった人を助けようと飛び込んでいざ自身はついに幽冥境を異にした、勇氣ある行動を見せた故李秀賢さんを記念

して作った映画である。

영화 “당신을 잊지 못해”는, 2001 년, 동경의 신 오오쿠보역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어 막상 자신은 결국 유명을 달리하고만 용기있는 행동을 보인, 고 이수현씨를 기념하여 만든 영화이다.

当時、日本へ留学中であった故李秀賢さんは、新大久保駅のプラットホームで、線路に落ち込んだある酔客を見るやいなや、線路に飛び込んでその客を辛うじて救い上げたのだ。ところがいざ自分はホームに飛び上がるチャンスを失い、お気の毒に、突っ込んでくる列車にぶつかり、ついに若き年にこの世を去った。

당시, 일본에 유학중인 고 이수현씨는 신오오쿠보역의 플랫폼 홈에서, 선로에 떨어진 어느 취객을 보자마자 선로에 뛰어들어 그 취객을 안아올려 가까스로 구해낼 수 있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은 홈으로 들이닥친 열차를 피할 찬스를 놓쳐, 결국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その事故があってから六年目になる二〇〇七年、故李秀賢さんの美德を方々に顕彰するため、その事件をモデルに映画を作り、その試写会が行われたのである。

그 사고가 있고나서 6 년째가 되는 2007 년, 고 이수현씨의 미덕을 곳곳에 알리기 위해, 그 사건을 모델로 영화를 만들었다. 그 영화의 시사회가 열린것이다.

忙しい日々を生き抜いているこの頃の世態で、他のことに關心を向ける余裕なんか持たれぬ索漠なつれない世の中で、命を掛けて見知らぬ人を助けに危険を冒して果敢に飛び込んだ勇氣ある行動が、日本社会ではすぐ理解し難いことかも知れない。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요즘 세대에 남의 일에 시선을 돌릴 여유따윈 생각할 수 없는 삭막하고 각박한 세상에, 목숨을 걸고 낫설은 사람을 구하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히

뛰어난 용기있는 행동이, 일본 사회에서는 바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天皇までこの試写会に参観するなど、当時の日本社会に与えた衝撃と感動の反響がどれほどであったかを推し量るところである。

천황까지 이 시사회에 참관하는 등, 당시의 일본사회에 던진 충격과 감동의 반향이 어땠는지를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しかし、日本社会全体が騒ぎ立てているこの現状は、韓国人である私としてはかえって面食らって理解し難いこともある。なぜなら、こんなことは韓国社会では不断に有り触れることであるからだ。一衣帯水の韓日両国の間にこのように情緒的に著しい隔たりが存在することに驚いた。

그러나 일본사회 전체가 들끓는 이 현상은, 한국인인 나로서는 오히려 황당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은 한국사회에서는 평소에 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一衣帯水の 한일양국 사이에 이처럼 정서적으로 현저한 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実は、韓国と日本との情緒的差を実感したのはこれが初めてのことはない。今から十六年ほど前のことであろうか。一九九一年、ソウルにある三豊(サンプン)デパートの崩壊事故があった。それからちょうど二年後に神戸大地震が起きた。

실은 한국과 일본과의 정서적 차를 실감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16년전인가. 1991년, 서울의 三豊 백화점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로부터 꼭 2년 후에 고배대지진이 발생했다.

当時、TVで放映する生放送を見ながら、この両大惨事に当たって両国の人々の反応が分明に対比されたのだ。その反応にあまりにも格段の差があることに驚いた。これに対して「みどりの風」

という雑誌に「地震と日本人」と言う題目で述べたことがある。

당시, 생방송으로 방영하는 TV 를 보면서, 참사를 당하여 취하는 양국 사람들의 반응이 분명히 대비 된 것이다. 그 반응에 너무나도 현격한 차가 있는 점에 놀랐다. 이것에 대해 “みどりのかせ”라는 잡지에 “地震と日本人”라는 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다.

当時の三豊デパート崩壊事故の際、惨事の現場で遺体を探しにあちこちに掻き回りながら泣き叫びたてる韓国人の姿と、神戸地震の際、地震の跡である婦人が新聞紙を敷いてはその上に座り愛犬を抱いて撫でながら本を読んでいる姿や、公衆電話ボックスの前に立ち並んで新聞を開いて順番を待っている姿など、あまりにも落ち着いた様子は、私には実に衝撃であった。あんなに落ち着いていることができるものかと…。率直に言って、すさまじくまで感じたのであった。今も当時の様子がありありと臉に浮かぶ。

당시의 三豊 백화점 붕괴사건 때, 참사의 현장에서 시체를 찾아 이곳저곳 헤매며 울부짖는 한국인의 모습과, 고배지진 때, 부서진 집터에 어느 부인이 앉아 애견을 안고 쓰다듬으며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며, 공중전화 박스 앞에 줄지어 서서 신문을 펼쳐들고 순번을 기다리는 모습 등, 너무나도 침착한 모습에 나는 실로 충격을 받았다. 저렇게 침착할 수가 있단 말인가. 솔직히 말해서 섬뜩한 감마저 느꼈다. 지금도 당시의 모습이 생생히 떠오른다.

飛行機で二時間足らずの道のりの隣国である両国の間に、懸隔な情緒の差があることに驚いたのであった。その原因については社会学的、また歴史的にまずは研究することだ。

비행기로 2 시간도 되지않는 거리의 이웃나라인 양국사이에 이렇게 현격한 정서적 차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사회학적 또는 역사학적으로 한번 연구해 볼 일이다.

韓国人は、俗に「情けの民族」とも言われている。若しかしたら感性の民族かも知れない。過ぎ去った過去の歴史を振り返って見たら、急に国難でも起こったら結果はどうであれ国を救うため、全国各地から命を掛けて飛び起きる。また、不義に当たっては堪(こら)えかねてためらいなく乗り出すのが韓国人である。たとえば、川に溺れかけている子供を見つけると、その子が誰であろうともたちまち無謀に飛び込んだりして、ついに犠牲になる哀惜なことはTVや新聞から頻繁に接する有り触れたニュースである。

한국인은 흔히, “情의 민족” 이라고도 말한다. 어찌면 감성의 민족인지도 모른다. 지난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 보면, 갑자기 외군이 쳐들어 온다거나 하면 결과야 어찌됐던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전국각지에서 목숨을 걸고 일어난다. 또한 불의를 당하면 참지 못하고 서슴없이 나서는 것이 한국인이다. 예를들면 개천에 물에 빠진 아이를 발견하면, 그 애가 누구든, 무모하게 무작정 뛰어들어 결국은 희생되는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는 일은 흔한 일 이다.

このように利害得失を計らず、理性に先立って感性に従うのが韓国人の本性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が、こんなことを見たらやはり韓国人の血の中には義侠心に富む DNA が流れているかも...

이처럼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이성애 앞서 감성을 쫓는것이 한국인의 본성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것을 보면 역시 한국인의 피 속에는 의협심이 풍부한 DNA 가 흐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正義感に燃える様子を見たら、やはり故李秀賢さんも熱い血が流れる韓国の子孫であることは確かである。

정의감에 불타는 모습을 보면, 역시 고 이수현씨도, 뜨거운 피가 흐르는 한국의 자손임에 틀림없다.

한국명 韓姓名 曹京植

일본명 日本名

출생지 出生地 한국 韓国

생년월일 生年月日 1937년 4월 20일

일본에서 살았던 곳 日本で住んでいたところ

한국으로 돌아간 해 韓国へ帰った年

현주소 現住所 부산시 釜山市



부산 박물관 해설 자원 봉사자 동료들  
釜山博物館解説ボランティアの仲間たち  
(2012년 6월 20일)



(2011년 08월 27일)

李 春 鶴

### 韓日同祖論考察 한일 동조론 고찰

素泉 李春鶴 소천 이춘학

日本と韓国は地理的にも一衣帯水の一番近い隣国で、古代日本には朝鮮半島から多くの渡来人が渡って来た。人類学者埴原（はにはら）氏の150万渡來說では、縄文時代の人口はせいぜい30万ぐらいだったという。これが奈良時代になるとおおよそ600万人と考えられている。これほどの人口増加は、通常の数理統計学では説明できないという。そこで最も近い隣国からの人口流入を想定するのだと主張している。大昔、人口まばらの日本列島へ、自然と朝鮮半島から人口が移住していったと考えられる。有史以前の日本も大挙に人口が移住した事実が記録されている。

일본과 한국은 지리적으로도 일의대수의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로서, 고대일본에서는 조선반도로부터 많은 도래인이 건너왔다. 인류학자 하니하라(埴原)씨의 150만 도래설에 의하면, 조오몬(縄文) 시대에는 기껏해야 30만 정도 였다고한다. 그러나 이것이 나라(奈良) 시대가 되면 대략 600만 정도로 짐작된다.

이 정도의 인구증가율은 통상적인 수리통계학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로부터의 인구유입을 상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주 옛날부터 인구가 드문 일본열도에, 자연히 조선반도로부터 인구가 이주해 갔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선사 시대의 일본도 대거 인구가 이주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古代朝鮮の弁韓伽耶国地域(現、慶尚南北道の洛東江流域)には伽耶六カ国が建国されていた。伽洛、伽羅とも呼ばれている。光武東夷伝の古代朝鮮地図には洛東江の南端に倭という国が記録されている。これは中国の春秋戦国時代、越に敗北した呉の国から多大な人口が亡命してきて建国したと考えられているが、これが伽耶国建国当時の強力な圧力に押されて又日本に渡って行ったと推測される。

고대조선의 변한가야국지역(현, 경상남북도의 낙동강유역)에는 가야 6개국이 건국되고 있었다. 가락가라, 라고도 불려지고 있다. 광무동이전의 고대조선지도에는 낙동강의 남단에 왜(倭)라는 나라가 기록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월(越)나라에 패배당한, 오(吳)나라로부터 많은 인구가 망명해 와서 건국하였다고 생각되고 있으며, 이것이 가야국 건국당시의 강력한 압력에 의하여, 일본으로 건너갔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다.

伽耶国は製鉄技術を開発して、鉄を持って武器や鉄甲、農機具等を製造してその鉄甲武装騎馬軍団の勢力は、初期の新羅を凌ぐ強国であり、鉄材を海外に輸出もしていたという。特に金官伽耶の金首露王(金海金氏の始祖)と王妃、許黄玉(神の啓示を受けて印度から渡ってきた姫君)との間で生まれた 10 名の王子中、7 名の王子が王位継承の闘争を事前に避けるため、日本の九州に渡っていったという伝説がある。

가야국은 제철기술을 개발하여, 철로서 무기와 철갑, 농기구 등을 제조하여, 그 철갑기마군단의 세력은 초기의 신라국을 능가하는 강국이었으며, 철재를 해외로 수출도 하고 있었다고 한다. 특히 금관 가야의 김수로왕(김해김씨의시조)과 왕비

허황옥 (신의 계시 를 받아 인도에서 건너온 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10 명의왕자중 7명의 왕자가 왕위계승의 투쟁을 사전에 피하기 위해, 일본의 큐우슈우 (九州) 로 건너갔다는 전설이 전해지고있다.

金海金氏の族譜には王妃の兄宝玉禪師が慶尚南道河東郡に7仏寺を創建し、7王子をここで仏教の修行をさせ、悟りを開いて昇天したと記録されているという。これは日本九州の鹿児島県東北部に位置する、霧島連峰、韓国岳の高千穂の峰に邇邇芸命(ににぎのみこと)が天孫降臨したという日本の神代時代とほぼ一致するようだ。

김해김씨의 족보에는 왕비의 오빠 허보옥선사가 경상남도, 하동군에 7불사를 창건하여 7왕자를 이 절에서 수행시켜, 깨달음을 얻어 승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다. 이것은 일본의 큐슈, 카고시마현의 북쪽에 위치하는 키리시마연봉(霧島連峰), 카라쿠니다케(韓國岳)의 타카치호노미네(高千穂峰)에, 니니기노미코또가 천손강림(天孫降臨)했다고 하는, 일본의 신화시대와도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韓日合邦前、明治政府の韓国民懐柔策の口号が韓日同祖論であつた。韓日合邦後、明治政府の朝鮮總督府極秘指示(1915年6月29日)で金海金氏の族譜抹消工作が行われたというが、この計画は失敗したという。この事実がこれを認めていることを如実に証明していると判断することができる。

한일합방전, 일본명치정부의 조선민족을 회유하기 위한 구호가 한일동조론이었다. 한일합방후, 명치정부의 조선총독부극비지시(1915년 6월 29일)에의하여, 김해김씨의 족보 말소공작이 비밀리에 진행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실패하였다고 한다. 이 사실이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伽耶国はその後、高句麗新羅の連合軍に依つて滅亡されたが、この時大部分の人口は、7王子を頼つて日本の九州に大挙移住したと推測

される。熊襲や隼人等はその後裔とおもわれる。

가야국은 그 후에 고구려와 신라의 연합군에 의하여 멸망당하였으나, 이때 대부분의 인구는 7왕자의 연고를 의지하여, 일본 큐슈로 대거 이주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쿠마소(熊襲) 하야토(隼人) 등은 그 후예라고 생각된다.

平安時代、嵯峨天皇の勅命で萬多親王等が編纂した「新撰姓氏録」という文献がある。内容は各氏族の起源を説明する書物だ。新羅、高句麗、百濟王族系統が 48 姓。民族系統が、新羅 60、高句麗 57、百濟 125。姓氏の合計 290 姓氏の集团的に莫大な人口が日本に渡来したと記録されている。

헤이안시대(平安時代) 사가천황(嵯峨天皇) 의 칙령으로 만다친왕(萬多親王) 등이 편찬한 신선성씨록(新撰姓氏錄)이라고 하는 문헌이 있다. 내용은 각 씨족의 기원을 설명하는 서적이다. 신라, 고구려, 백제, 왕족계통이 48 개 성씨. 민족계통이 신라 60, 고구려 57, 백제 125. 성씨합계 290 성씨가 집단적으로 많은 인구가 일본에 도래하였다고 기록되고 있다.

民族系統とは學者、宗教家、技術者、從一位～從五位の官職者等の上位階級で、一般民は除外している。これを含めればその数は想像を絶するであろう。其の中でも新羅民族系統の秦(はた)氏という氏族は、應神天皇のころ渡来した、弓月の君(ゆずきのきみ)が先祖になったと解説されており、日本書紀によれば 120 県(あがた)の人民を引き連れた大変な人数で、92 部 18,670 人と記録されている。これは新羅、奈勿王の時代から王位は金氏に独占されてしまい、政争に敗れた旧朴氏王家の人々が大挙して、日本の出雲地方に渡ってきたと考えられている。

민족계통이란 학자, 종교가, 기술자, 종 1 위 ~ 종 5 위의 관직자, 등의 상위계급으로서 일반인은 제외되고 있다. 이것을 포함한다면 그 숫자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신라 민족계통의 하타씨(秦氏) 라고하는 씨족은, 오오진천황(應神天皇)의 시대에 도래한 유즈끼노키미(弓月君)가 시조가 되었다고

해설되고 있어, 일본서기에 의하면 120 아가타 (縣) 의 인민을 거느린 굉장한 인원수로, 92 부 1 만 8 천 6 백 70 명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것은 신라 나물왕의 시대부터 왕위는 김씨에게 독점되어버려, 정쟁에 패한 구 박씨 왕가의 사람들이, 대거하여 일본의 이즈모 (出雲) 지방으로 건너온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高句麗滅亡後、若光王 (じゃっこうおう) という人が、関東地方に渡ってきて埼玉県の高麗郷に住み着いたという。今の高麗神社はこの若光王を祭ったもので、現在の神主も高麗という姓氏で若光王の 50 何代目かの子孫だという。

고구려 멸망후, 약광왕 (若光王) 이라는 사람이 관동 (關東) 지방에 건너와서 사이타마현, 코마고오 (埼玉県高麗郷) 에 정착하였다고 한다. 현재의 코마진자 (高麗神社) 는 이 약광왕을 모신 것으로, 현재의 칸누시 (神主) 도 코마 (高麗) 라는 성씨로서 약광왕의 50 몇대인가 하는 자손이라고 한다.

古代百濟王朝が滅亡したときには、少なくとも数万名が大挙渡来してきて、当時大和朝廷の奈良の都は、百濟の言葉がそのまま通用されたといわれる。現在日本書紀の中に日本の学者達も正確に解読できない謎の童謡があるが、それを韓国の古代日本語の研究者朴炳植氏は、慶尚道方言の朝鮮語を根拠に実に見事な解説をしている。

고대 백제왕조가 멸망하였을 때는, 적어도 수만명이 대거 도래해 와서, 당시의 야마토조정 (大和朝廷) 인나라 (奈良) 의 도읍지는, 백제의 언어가 그대로 통용되었다고 한다. 현재 일본서기 (日本書紀) 에는, 일본의 학자들도 정확히 해독 하지 못하는 수수께끼의 동요 (童謡) 가 있다. 이것을 한국의 고대 일본어 연구학자 박병식 (朴炳植) 씨가, 경상도 사투리의 조선어를 근거로 실로 명확하게 해설하고 있다.

それから 200 年後に百濟の君が、陸奥の開拓に大活躍をしたという。これは百濟の君という氏族で百濟王族の子孫だということを明らかにして、堂々と暮らしていたという記録が残っている。

그로부터 200 년후에 쿠다라노키미 (百濟君) 가 무쓰 (陸奥) 의 개척에 대활약을 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쿠다라노티미 라고 하는 씨족으로서, 백제 왕족의 자손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 당당하게 살았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한다.

百濟系では阿知使主 (あちのおみ) という人物がいる。これまた本国の戦乱を避けて、妻子とともに一族と 17 県の 7 姓の人々を率いて渡来した。この姓氏には李、高などの姓が含まれており、これから更に 30 もの氏族が派生したといわれる。古代皇室の族譜でもある新撰姓氏録は、百濟人桓武天皇 (781~818 在位) の指示で第 5 王子、萬多親王 (788~818) が藤原園人 (756~818) 等と一緒に皇室で編纂された。これによると、京都北野天満宮に天神様として祭られている菅原道真 (845~904) も新羅人の後孫で光仁天皇元年 (781 年) 土師(はじ) 姓を菅原に改姓したという。

쿠다라계통에서는 아찌노오미 (阿知使主) 라고하는 인물이 있다. 이 또한 본국의 전란을 피하기 위해, 처자권속과 같이 17 현의 7 개성씨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건너왔다. 이 성씨중에는 이, 고, 등의 성씨도 포함되어 있어 이로부터 더욱 30 여가지의 씨족이 파생하였다고 한다. 고대황실의 족보이기도 한 신선성씨록은, 백제사람인 칸무천황 (桓武天皇 751-818) 의 칙명으로 제 5 왕자인 만다친왕 (萬多親王 788-818) 이 후지하라노 소노토 (藤原園人 756-818) 등과 같이 황실에서 편찬되었다. 이에 의하면 교오토 기타노텐만구우 (京都北野天満宮) 에 텐진사마 (天神様) 로 모셔져 있는 스가하라 미치자네 (菅原道真 845-904) 도 신라인의 후손으로서, 코오진 (光仁) 천황 (781) 원년에 하지 (土師) 성을 스가하라로 개성하였다고 한다.

慶応大学史学科水野祐教授は、出雲地方の民族は韓民族、特に新羅人だと断言している。出雲地方の人たちの A 型の血液型と慶尚道新羅人 A 型血液の分布率は殆ど同じ数値だと論述している。出雲地方とは今の日本の島根県地域だ。

케이오대학 사학과와 미즈노유우(水野祐) 교수는, 이즈모(出雲) 지방의 민족은 한민족, 특히 신라사람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이즈모지방 사람의 A형 혈액형과 경상도(신라) 사람의 A형 혈액 분포율은 거의 같은 수치라고 논술하고 있다. 이즈모지방이란 현재 일본의 시마네켄(島根縣) 지방이다.

又、筑波大学の馬淵和夫名誉教授は、1999年6月28日慶北高靈郡高靈邑芝山里、伽倻大学で開催された高天原碑石の建立除幕式に、60余名の学者などを含めた約500名の日本人達とともに一緒に参席してその席上で、「古代韓日交流に関して」との題目の論文を発表した。その主な内容は「日本書紀には天孫(すさのうのみこと)が高天原から新羅に行ったと記録されているが、高天原は新羅に一番近い西方にあるくいで、山中の盆地に当てはまる地点は高靈だけである」と主張した。この論文を根拠にして伽耶大学に高天原碑石が建立されたのであり、毎年祝祭が催されている。

또한 쓰쿠바대학(筑波大学)의 마브치 카즈오(馬淵和夫) 명예교수는 1999년 6월 28일 경북고령군지산리, 가야대학에서 개최된 타카마가하라비석(高天原碑石)의 건립제막식에, 60여명의 학자를 포함한 약 500여명의 일본인과 함께 참석하여 그 석상에서, [고대 일한 교류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일본서기에는 천손(天孫) 스사노오노미코토(須佐之男尊)가 타카마가하라에서 신라로 갔다고 되어 있으나, 타카마가하라는 신라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로서, 산중의 분지(盆地)에 합당하는 지점은 여기 고령땅 뿐이다” 하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문을 근거로 하여 가야대학의 교정에 타카마가하라의 비석이 건립된 것이며 매년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것이다.

東京大学遺伝学研究所の蓬萊聡(ほうらいさとし)教授は、母系追跡可能なミトコンドリア遺伝子を293名(日本、沖縄、アイヌ、韓国、台湾系中国人)からDNAを採取して比較検査してみたところ、その65%が弥生時代以後、韓半島から渡来してきたと発表した。

토오쿄오대학의 호오라이사토시 (蓬萊聡) 교수는 모계 추적 가능한 미토콘도리아 유전자를, 293 명 (오기나와인, 아이누인, 한국인, 대만관계 중국인) 으로부터 DNA 를 채취하여 비교 검사해 본 결과, 그 65%가 야요이시대 이후 한반도에서 도래 해온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又、東京大学長谷川寿一教授は、英国王室学会報 B に公開した論文で次のような発表をしたと AFP が報道した。(朝鮮日報 2011 年 5 月 6 日) 「日本語の中で永い間ほとんど変化のなかった動詞、数字、名詞などの単語 210 個を選択、59 個の方言と比較する方法で日本語の起源を追跡してみた結果、日本語は韓半島から日本列島へ大々的に移住された、紀元前 200 年ごろにその根源があると主張した。」

동경대학의 하세가와 토시카즈 (長谷川寿一) 교수는, 영국왕실학회보 B에 공개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발표를 하였다고 AFP 가 보도하였다. (조선일보 2011,5,6) “일본어 중에서 오랫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던, 동사, 숫자, 명사, 등의 단어 210 개를 선택하여 59 개의 방언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일본어의 기원을 추적 해본 결과, 일본어는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대대적으로 이주 하였던, 기원전 200 년경에 그 기원이있다고 주장하였다.”

「日本古代史批判」「日本古代史の真実」等を発行した崔在錫高麗大学名誉教授 (社会学) は、日本書紀に根拠、7 世紀中盤の舒明天皇が百濟系だと注目している。日本の母体となった大和倭が 400 年頃、百濟系移住民によって作られたため、日本の王室は百濟系だという主張だ。

“일본고대사비판” “일본고대사의 진실” 등을 발간한, 최재석 고려대학 명예교수 (사회학) 는 일본서기에 근거, 7 세기중반의 조메이천황 (舒明天皇) 은 백제계열이었다고 주목하고 있다. 일본의 모체가 된 야마토왜 (倭) 는 400 년경에, 백제계 이주민 에 의하여 세워졌기 때문에, 일본의 황실은 백제계열이라고 주장한다.

「今昔碑文を通じてみた百済武寧王の世界」を発行した蘇鎮轍円光大学政治外交学科教授は、漆器を根拠に「日本の倭国は4世紀後半から百済の侯国であり、日本の王はこれら侯国君主の中の一人だった」と主張する

“금석비문(今昔碑文)을 통해 본 백제무녕왕의 세계”를 발간한, 소진철 원광대정치학과교수는 칠기를 근거로 일본왜국은 4세기 후반으로부터 백제의 제후국이였으며, 일본천황은 이들 제후국 군주중의 한사람이었다고 주장한다.

「日本の天皇は百済人だ」と言う本を発行した洪潤基韓国外大教授は「日本の古代皇室系図の新選姓氏録を含めた主要文献と百済と新羅を祭った日本皇室の祭祀慣習として行う点から見て、日本皇室は百済人に間違いない」と主張する。

“일본천황은 백제인이다” 라고하는 책을 발간한 홍윤기 한국외대 교수는, 일본황실의 계통도인 신선성씨록을 포함한 중요문헌과, 백제와 신라를 모신 일본황실의 제사의식의 관행으로 봐서, 일본 황실은 백제인이 틀림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このような各事項を総合して検討してみると、結局日本と韓国は国境觀念のなかつた大昔から、自然的な人口移住と伽倻、高句麗、高麗、新羅、百済等朝鮮半島の国家が滅亡される度毎に、残存勢力が莫大な人数を率い大挙日本列島に渡って行き、邪馬台国、大和、飛鳥、奈良、等の国家的日本を現しめたと判断することができる。

이와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보면, 결국 일본과 한국은 국경 관념이 없었던 먼 옛날부터, 자연적인 인구 이주와, 가야,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 등 조선반도의 국가가 멸망할 때마다, 그 잔존세력들이 막대한 인원을 거느리고, 대거 일본열도로 건너가서, 야마타이코쿠(邪馬臺國) 야마토(大和) 아스카(飛鳥) 나라(奈良) 등의 국가적 일본을 출현 시켰다고 판단된다.

従って、大部分の日本人は韓国人と同じ先祖を持つ同族と認識でき

るため、此れからは兄弟国として根本的な和合精神を發揮し、韓日親善、友好増進により大きく努力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う。今日韓日兩國間の底流に穩然と広がっている嫌韓感情や反日感情の蟠りをこの同祖論によって根本的に解決できたらどんなに喜ばしいことか。

따라서 대부분의 일본인은, 한국인과 같은 조상을 갖는 동족이라 인식됨으로, 이제부터는 형제국으로서 근본적인 화합정신을 발휘하여, 한일간의 우호증진을 보다 더 깊고 넓게 할 수 있도록 노력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한일양국간의 밑바닥에 은연하게 맺혀있는, 혐한감정 (嫌韓感情) 과 반일감정 (反日感情) 을, 이 동조론에 의거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겠는가.

私たち元老坊の韓日交流会も此れからは韓日古代文化の探究や現地踏査などを相互に行い、お互い偏見無き客観的な立場で其の真相を極め、兄弟国であることを立証し後孫に伝えていくことを課題としたい。

우리들 원로방 (元老坊) 의 한일교류회도 이제부터는, 한일고대문화의 탐구와 현지답사등을 상호간에 교류하면서, 서로 편견없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진상을 철저하게 연구하여, 형제국임을 입증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싶다.

한국명 韓國名 李春鶴

일본명 日本名 岩本春鶴

출생지 出生地 일본 日本

생년월일 生年月日 1932년 6월 15일

일본에서 살았던 곳 日本で住んでいたところ

新潟県北蒲原郡安田村

한국으로 돌아간 해 韓国へ帰った年 1949년

현주소 現住所 釜山市



(2012년2월10일)

朴 相 純

일본 분에게 日本の皆様へ

나는 태어나서 16세 때까지 일본 식민통치하에서 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일본어가 국어라고 하여 일본어로 말하지 않으면 선생님한테 야단맞았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조선어를 배웠습니다. 이 조선어가 국어가 아닌 교과목의 하나인 조선어이고 일본어가 국어인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패전에 의하여 무엇을 의미하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

私は生まれてから16才の時まで日本の植民統治の下で育ちました。

学校では日本語が国語といって日本語で話さなければ先生に叱られました。そして小学校3年生の時まで朝鮮語を習いました。この朝鮮語が国語ではなくて教科目の一つである朝鮮語で、日本語が国語であることが何を意味するのか分からなかったです。

これが日本の敗戦によって何を意味したのか知るようになりました。そして私がどれくらいバカであったか・・・

6.25사변 전에 비로소 아버지에게 어쩌서 우리가 일본 통치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고민할까봐, 편하게 살도록 말해주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고민했다는 말이 됩니다.

6.25事変（韓国動乱）前にはじめてお父さんに、どうして私たちが日本の植民統治を受けていたとのことを語らなかったのか、と尋ねました。すると、父は、君が悩むかと思って、気楽に暮すように言わなかった、といいました。ではお父さんだけでなく、この事実を知っている人ならば全部悩んだという事になります。

그 증거로 1919년3.1운동 때 얼마나 조선 사람이 일본의 침략에 반항했는지? 그리고 한국 임시정부가 중국 상해에 있었다는 것. 이런 것은 한국 사람이 독립국가여야 한다는 염원을 가지고 일본의 침략을 죽음으로서 반항했다는 것입니다. 또, 과거에는 임진왜란도 있었습니다.

その証拠に1919年の3.1運動の時どれくらい朝鮮の人が日本の侵略に反抗したのか? そして韓国の臨時政府が中国の上海にあったとのこと。こういうことは韓国の人が独立国家でなければならぬという念願を持って日本の侵略を死ぬことで反抗したとことを示しています。また過去には壬辰倭乱（文祿慶長の役）もありました。

이러한 사실을 일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제부터는 한국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このような事実を日本の方々はどう思っていらっしゃるのでしょうか。今からは韓国に対してどの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

考えておられますか?

한국에는 「이웃사촌」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을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我が国には「隣はいとこ」と言う諺があります。この諺を参考にされるよう願います。

2012年2月

韓日言語奉仕会

朴相純 (84)

\*이웃사촌

- 먼데 사는 사촌보다 이웃에 사는 남이 더 가깝다는 의미
- 정분이 두터운 이웃을 이르는 말

\*隣はいとこ

- 遠い所に暮すいとこより隣に住む人がさらに近いという意味
- 情分が厚い隣を言う言葉

한국명 韓国名 朴相純

일본명 日本名

출생지 出生地 한국 韓国

생년월일 生年月日 1930년12월20일

일본에서 살았던 곳 日本で住んでいたところ

한국으로 돌아간 해 韓国へ帰った年

현주소 現住所 부산시 釜山市



한일 언어 봉사회 동료와 韓日言語奉仕会の仲間と  
(산성마을청송가든 山城村青松庭 2011년 11월 11일)



(2012년 6월 15일)

## 金斗滿

日本、真正な隣りになろうとすれば

日本、眞正한 이웃이 되려면

저는 幼少年時節을 慶尙南道 宜寧郡 (出生地 日本國 東京)의 조용하고 平和로운 農村에서 자랐다. 지금으로부터 約 75-6 年前 내 나이 8-9 歲 무렵이다. 그때 우리 마을은 約 100 戶 가까운 제법 큰 村落을 이루고 살았는데 아이들이 約 7-80 명이나 되어도 아이들을 위한 놀이 施設은 전혀 없었다.

私は幼少年時節を慶尙南道宜寧郡 (出生地日本国東京) の静かで平和な農村で育った。今から約 75-6 年前、私が 8-9 歳の頃だ。その時、私たちの村は約 100 戸近いけっこう大きい村落をなして住んでいたが、子供たちが約 7-80 人にもなっても子供のための遊び施設は全くなかった。

이른 봄날 뒷동산에 진달래꽃이 필 무렵이면 虛飢진 배를 움켜지고 險難한 山길을 헤매면서 진달래꽃을 따먹고 나면 입을 가에는 紫朱빛으로 물들곤 했다. 때 거리가 없어서

벼穀食의 거를 볶아 수제비나 칼국수를 만들어 먹었다. 콩 한쪽이라도 나눠 먹는다는 옛 俗談과 같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歲月이라도 서로를 爲하는 마음과 이웃을 섬기는 情겨움은 어디에도 比할 바가 없었다.

早春日、裏山にツツジの花が咲く頃なら、ひもじい腹をかかえて険難な山道をさ迷いながらツツジの花を取って食べると唇の周りが紫朱色で染まったりした。食べ物がなくて稻穀食(穀物の粉)のこぬかを炒めてすいとんや手作りうどんを作って食べた。豆一かけらでも分け合って食べるという、昔の諺のようにたとえ生活が苦しい時でもお互いを助ける心と隣を支えあう情あふれることはどこにも比するところがなかった。

어렵게 살아도 人心 좋고 조용하고 平和로운 나라를 日本이 우리 祖上代代로 이어받아 온 姓氏와 言語를 強制的으로 抹殺시키고 日本式 創始改名까지 하는 것은 完全히 日本化 하고자 했던 것이다. 심지어 學校에서는 日本語를 常用하게 하고 우리말을 使用하다가 發覺되면 體罰을 했다. 우리 歷史는 強奪 當하고 世界植民地로 支配한 나라치고는 이런 酷毒한 나라가 어디에 있던 말인가? 徹底히 監視를 당하고 모두가 日本一色이었으며 입에도 발에도 足鎖를 채운 것입니다.

難しく生きてても人心良くて静かで平和な国を日本が私たちの祖上代代で受け継いできた名字と言語を強制的に抹殺して日本式の創氏改名までするのは完全に日本化しようとしたのだ。さらに学校では日本語を常用するように強制し、韓国語を使い、それが発覚すれば体罰をやった。我々の歴史は強奪され、世界の植民地で支配した国としてはこういう酷事をする国がどこにあったか? 徹底的な監視下にあつて皆が日本一色であり口にも足にも鎖を満たしたのです。

이런 渦中에서 雪上加霜으로 戰爭이란 悲報가 날아왔다. 第二次世界大戰이 勃發하고야 말았다. 여름내 땀 흘려 지은

農事를 大東亞戰爭이란 美名아래 供出로 빼앗겼다. 戰爭物資를 調達한답시고 家庭의 鎗器와 鐵器도 모조리 마쳤다. 마을 어귀나 寺刹의 數百年된 巨木들을 마구 伐採하고 소나무의 간솔까지 松炭油를 만들어 가지고 갔다.

こういう渦中で泣き面に蜂で戦争という悲報が飛び込んだ。第二次世界大戦が勃発してしまった。夏中汗かいて作った農作物を大東亜戦争という美名の下に供出で奪われた。戦争物資を調達すると言いながら家庭の銃器と鉄器も全部捧げた。村の入り口や寺刹の樹齢数百年にもなった巨木をむやみに伐採し、松のカンソル(松の実)まで松炭油を作るために供出されて行った。

祖國의 山河는 荒廢해져서 제 모습을 喪失하게 되고 民族魂과 鄉土的인 情緒가 暗鬱한 時代였다. 日本植民統治後로는 情緒가 매마르고 雰圍氣가 朔漠한 마을이 되고 말았다. 지난 歲月속에 日本人의 收奪과 野蠻的 行爲는 그야말로 天人共怒할 일이다. 日本은 第二次世界大戦 때 Italia, 獨逸等 三國同盟을 맺고 戰爭을 같이 遂行한 나라가 아니던가? 그런데 獨逸은 敗戰後 周圍의 被害國家들에게 百倍謝罪하고 이를 全적으로 損害賠償을 하였습니다.

祖国の山河は荒廢し自分の姿を喪失するようになって民族魂と郷土的である情緒が暗鬱たる時代であった。日本の植民統治後は情緒が絶えて雰圍氣が索漠たる村になってしまった。過ぎ去った歲月の中に日本人の収奪と野蛮的な行為はそれこそ天人共怒することだ。日本は第二次世界大戦の時、Italia、独逸等三国同盟を結んで戦争を一緒に遂行した国でしょう? ところで独逸は敗戦後周囲の被害国家に百倍謝罪とこれを全的で損害賠償をしました。

그런데도 自他가 共認하는 世界經濟大國인 日本이여! 이를 反面教師로 삼고 깨끗하게 處理하라! 왜, 이같은 事實을 陰險하게 隱閉하고 있는지, 世界는 global 時代인데 國際社會의 耳目이 두렵지 않는가?

それでも自他が共認する世界經濟大国である日本よ!これを反面教師としてきれいに処理しろ!なぜ、このような事実を陰険に隠閉しているのか、世界は global 時代なのに国際社会の耳目が恐ろしくないか?

지금은 거의 他界하고 얼마 남지 않는 女子挺身隊 卽 慰安婦의 怨恨을 죽기 前에 들어주라! 오늘도 絶叫하는 저! 哀切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强制的으로 動員되어 炭鑛에서 重勞動 低賃金에 悲慘했던 徵用者들의 報償問題, 本意아닌 日本人과 같이 靖國神社에 合祀되어있는 戰歿者의 遺骸奉還問題, 사할린同胞의 法律的地位問題 그리고 独島問題 等等 特히 独島는 儼然히 學者들이나 知識人들은 既히 周知의 事實이 아닌가? 惟獨 政治人들만이 選舉의 得票를 意識, 連延하고 있는데 大乘的인 次元에서 매듭을 짓고 過去事의 잘못된 前轍을 밟지 않겠다는 國家的闡明이 있어야 할 것이다.

今はほとんど他界していくらもち残っていない女子挺身隊すなわち慰安婦の怨恨を死ぬ前に聞いてあげなさい! 今日も絶叫するあの! 哀切する言葉が聞こえないか? 強制的に動員され炭鉱での重労働、低賃金で悲惨な目にあつた徴用者の報償問題、本意でない日本人のように靖国神社に合祀されている戦歿者の遺骸奉還問題、サハリン同胞の法律的地位問題、そして対馬問題、等等、特に独島は儼然に学者でも知識は既に周知の事実じゃないのか? 惟独政治人だけが選挙の得票を意識、連延しているのに大乘的である次元で決着をつけて過去事の誤った前轍を踏まないという国家的な闡明が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

日本은 侵略行爲를 再犯하지 않겠다는 眞心어린 陳謝를 할지이다. 只今은 글로벌時代, 國際社會의 叱咤를 免치 못할 것이다. 우리도 언제까지나 過去事의 아픔에만 얽매어 連延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다 함께 眞正한 善隣으로 다시 태어 날 것을 期約하며 서로 웃고 웃으면서 손에 손잡고

世界平和의 建設에 同參邁進하여 未來 指向적으로 밝은 앞날을 祈願해 봅시다.☯

日本は侵略行為を再犯しないという真心に充ちた陳謝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只今はグローバル時代、国際社会の叱咤を免れることはできないだろう。私たちもいつまでも過去事の痛みだけにこだわって連延しないだろう。私たち皆一緒に真正ある善隣で再び生まれる事を期約してお互いに笑って笑いながら手に手を握って世界平和の建設に同參邁進して未来指向的で明るい将来を祈願してみましよう。☯

西紀二千十二年正月

韓日言語奉仕会

金斗滿 (84)

한국명	韓國名	金斗滿
일본명	日本名	
출생지	出生地	일본 日本
생년월일	生年月日	1930년 1월 14일
일본에서 살았던 곳	日本で住んでいたところ	東京
한국으로 돌아간 해	韓国へ帰った年	
현주소	現住所	부산시 釜山市



한일 언어 봉사회  
하이킹에서  
韓日言語奉仕会の  
ハイキングにて  
(산성마을청송가든  
山城村青松庭  
2011년 11월 11일)





(2012년 6월 12일)

## 孫 必 脛

時期は 1990 年 2 月の初春であった。当時韓国の社会相は、6.25 事変の後で苦しい社会の荒波に私の個人業も失敗した時分での渡日だった。当時の私の浮んでくる思いは、戦前の社会で日本人が韓国人を軽視した思いが先立ったのであった。

때는 1990 년 2 월 초봄이었다. 그 당시 한국의 사회상은, 6.25 사변 후로, 힘든 사회의 격랑 속에 나는 개인사업에서 실패하여 도일 (渡日)하게 되었다. 당시 나에게 떠오른 생각은, 해방 전의 사회에서 일본인이 한국인을 경시했던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

到着地は東京都台東区、それから横浜市中区の横浜エンジニアリングサービス (株) という会社であった。会社からの出張が主なる私の業務だったのであった。数人をつれて責任者として日本各地へ第一、二、三、、、と廻った時分であった。其の親切さは何に比較しようとも比べるものがない真の心からのものだったのであった。日本人の平素生活態度がそうであった。

도착한 곳은 도쿄도다이도구(東京都台東区), 그리고

요코하마시 나가구(横浜市中区) 의 요코하마 엔지니어링구 서비스(주)의 회사였다. 회사에서 출장이 주된 나의 업무였다. 몇 사람을 데리고 책임자로서 일본 각지를 제 1 제 2 제 3 의 순으로 돌아다녔던 때였다. 그 친절은 무엇에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일본인의 평소 생활태도가 그러했다.

横浜駅で「ソゴーはどちらですか」と忙しい最中の切符売者に、急に尋ねたのであった。勿論担当業務とは別の事で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に「あのね」と首を長く引き出して言うには「あそこに見えるあの建物ですよ」。

요코하마(横浜)역에서, “소·고가 어느 쪽입니까” 하고, 한창 바쁜 표 과는 사람에게 급히 물었던 것이다. 물론 담당업무와는 관계가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노네”하면서 목을 길게 빼고서 말하기를 “저기 보이는 저 건물이지요”

それから福井県狭山の美浜にある会社に出張の際も早朝の運動の為田舎道を歩いていた際も、反対側から登校の小学生数人にであった。私を見たときたんそろって「おはようございます」とあいさつをして来る有様とか、又長野県赤十字病院、舞鶴国立病院等で内科とか問いますと、聞かれた其の本人も良く知らないでも、その婦人は2、3階と上がったり下りたりして教えようとする其の心から発露する親切さにまるで別世界に住んでいる感じがしました。

그리고 후쿠이현사야마의 미하마 (福井県狭山の美浜) 에 있는 회사에 출장 갔을 때도, 아침 일찍 운동하기 위해 시골길을 걷고 있을 때, 반대쪽에서 등교하고 있는 소학생 몇 명을 만났다. 나를 보자 다 함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모습하며, 또 나가노현(長野県)적십자병원, 마이스루(舞鶴) 국립병원 등에서 “내과” 등을 물었을 때, 자기도 잘 모르면서 그 부인은 2 층 3 층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르쳐주려 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친절함은 마치 별세계에 살고 있는  
느낌이었다.

我が幼い時分、幼年、少年時代は兄弟家族でも喧嘩をして、  
成育過程に臨んだものである。以上の様に、今の此の時代は、我  
らの過程をもう過ぎたのである。

우리들이 어렸을 때, 유년 소년시대는 형제 가족이라도  
싸움을 하면서 커 가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지금  
이 시대는 그러한 과정을 이미 지내온 것이다.

我が韓国、日本は東洋で最も近い隣国であるのである。この様  
に韓国と日本はもう大人、成人期に入っているのである。どこま  
でも人道主義なる民間交流で相互間手をつなぎ合う真の家族にな  
りたいと思うのが真の人間相でなかろうかと思えます。

우리 한국과 일본은 동양에서 가장 가까운 인접국가이다.  
이와 같이 한국과 일본은 이미 어른, 성인기에 들어있다.  
어디까지나 인도주의적인 민간교류로써 서로 손을 잡고 진정한  
가족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된 인간상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これからも韓国と日本とは心からつなぎ合って、大きく世界平  
和と世界発展に貢献すべきでしょう！！

지금부터도 한국과 일본은 진심으로 손을 잡고 크다란  
세계평화와 세계발전에 공헌해야 할 것이다！！

한국명 韓國名 손필완 孫必腕

일본명 日本名 모기히데오 茂木秀雄

출생지 出生地 한국 韓國

생년월일 生年月日 1929년 4월 14일

일본에서 살았던 곳 日本で住んでいたところ

도쿄도 다이도구 東京都台東区요코하마시나카구 横浜市中区

한국으로 돌아간 해 韓國へ帰った年 1996년 4월

현주소 現住所 부산시 釜山市



지하철중앙역에서 봉사활동  
地下鉄中央駅でのボランティア活動  
(2012년 6월 12일)



(2011년 5월 3일)

## 崔貞美

私は 33 年うまれです。すると 80 ですね。

저는 33 年生입니다. 그러니 80 세군요.

故郷は咸鏡北道清津です。父の事業（土木）の関係で満洲のハルピンに行きました。その時私は3歳でした。幼い頃はずっとそこで暮らしました。ハルピンではロシア式（白系）の生活でした。隣には日本人、中国人、ロシア人。皆一緒のアパート暮らしでした。自然に子供たちはお互い親しくなり、その国の言葉を話して遊びました。自然に言葉を学ぶことになりました。主に、ボール遊び、ママゴト、砂遊び等いろいろな遊びで過ごしました。言葉はお互いの国の言葉でもよく通じました。その頃の言葉を今でも覚えていて、自然に外国語が出来るようになりました。

故郷은 咸鏡北道 清津입니다. 아버지의 사업관계로(토목) 만주 할빈에 갔지요, 그 당시 저의 나이는 3 살 때입니다. 어린시절은 늘 그곳에서 살았지요. 할빈이란 도시는 그당시 구쏘런 백계 러시아인들의 도시였으니깐요. 주변에 일본인, 중국인, 러시아인 함께 사는 아파트였어요. 자연히 아이들은

서로 친해지며 그 나라 말을 서로 하며 놀았어요. 자연스럽게 말을 배우게 되었지요. 주로 공놀이, 소꿉장난, 모래주머니 놀이 등 다양한 놀이로 지냈지요. 말은 서로 나라의 말로 하니 잘 통하더라고요. 그 무렵의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その頃の幼なじみも今は私のように老いていることでしょう。皆さんその頃のことを覚えているかしら。私は覚えています。

그 소꿉친구들도 지금은 나와 같이 늙었을 것이고. 그 시절을 기억할까요,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特に春江ちゃんは私と親しい友達でした。「おいしや」「かんごうさん」なんかであそびました。モリナガミルクが好きで母からもらい、どっちが多くもらったか確かめたりしていました。春江ちゃんのおかあさんと私の母はいつも買物は一緒でした。私の母はロシア語が話せましたので、買物には母が先だちでした。スンカリとよぶ川がありました。夏はボート、冬はスケートに家族そろって行き、楽しく過ごしたのも、ああ、なつかしいー。

특히春江 양은 저와 친한 친구였습니다. "의사" "간호사" 따위로 놀았습니다. 모리나가 우유를 좋아하고 어머니로부터 받아 어느 쪽이 더 달라고 했는가 확인 하기도 했습니다.春江 씨의 어머니와 나의 어머니는 항상 구매는 함께였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러시아어를 할 수 있었으므로, 구매는 어머니가 앞서 있었습니다. 슌카리라고 부르는 강이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보트, 겨울에는 스케이트에 가족과 함께 가고 즐겁게 보낸 것도 아, 그림구나---

隣のおばあさんのことはよく覚えています。その家に子供がいなく老夫婦だけでした。眞黒い猫を子供のようにかわいがっていました。太郎ちゃんという名前で、いつも太郎ちゃん、おいで、かわいい子、とよび、私達と一緒にあそばせました。身近に猫が

いたこともあって幼い頃から猫が好きになり今でも好きです。飾り物とかいろいろな形の猫はいまも好きで首飾りなどは黒猫ですよ。

옆집 할머니의 기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 댁엔 아이는 없이 두 노부부였었지요, 검은 고양이를 아이처럼 귀여워 하셨어요, 늘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같이 놀게 했지요(이름도 부르며) 그로 인해 고양이를 가까이 한 것이 인연인지 무척 좋아합니다. 지금 장식품에도 고양이를 선호합니다.

幼い頃の経験のすべては私の成長に影響をあたえたと思います。その頃の外国語、すなわち日本語、中國語、ロシア語が身につけていて、これまでの学校生活、社会生活に大きな助けとなりました。そのお陰で、この年になっても外国語ボランティアをしています。幼い時の修身などは私の成長に影響を與えたと思います。

이 모든 것들이 아마 나의 성장과정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린시절의 외국어 즉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를 기억하며 지금까지의 사회 생활, 학교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지요, 그 인연으로 이 나이에 외국어 봉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릴 적修身 등은 나의 성장에 영향을 주었다 생각합니다.

韓國動亂後釜山に住み、60年になりましたね。高等女學校、大學はソウルで學び、結婚後は釜山に住み、今は老夫婦の暮らしです。夫は軍人出身で今も家庭では軍隊式です。子供は男の子三人ですが、それぞれ独立してその家族と住んでいますので、私たちは老夫婦だけの生活です。

한국동란 후 부산에 살면서 60년 되었습니다. 공부는 서울에서 고등학교, 대학을 마치고 결혼하여 지금껏 노부부가 삽니다. 남편은 군인출신인데 지금도 가정에선 군인생활이 몸에 배여 그 식으로 살지요. 자식들은 삼남인데 결혼하여 각 직장 따라 가족들과 살고 있으니 우리는 노부부의 삶이랍니다.

釜山は港町なので外国人の出入りが多いです。特に日本は近いので、沢山の観光客が来ます。自然に日本人との親交も深まり、時にはお茶を飲みながら名刺を交換し、親交が続く方もいます。そんなこともあって楽しいボランティア活動の日々を送っています。いろいろな方、外国人との触れあいはいずれいすよ。自然に話せる外国語。幼い頃からの外国語。歩けるまではボランティアをするつもりです。

부산은 항구 도시이기에 많은 외국인의 출입이 많지요 특히 가까운 곳이라, 일본에선 많은 관광객이 옵니다. 자연히 일본인들과의 친교가 있어 때로는 차도 마시며 명함도 교환하여 친하게 지내는 분도 있지요, 그 관계로 일어봉사도 하며 즐거운 나날을 보냅니다. 여러 분, 외국인과의 접촉은 기뻐요.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외국어. 어릴 때부터의 외국어.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자원 봉사를 할 생각입니다.

私たちの釜山には過去日本語教育を受けた方々の集まりがあります。その当時、高等学校、中学校、大学を日本で勉強なさった方もいますよ。この會は 17 年になります、今年で。皆さん上手な日本語を話し、釜山日語奉仕会という名前です。週一度 20~30 人で讀本と研修で勉強します。皆さん、幼い頃の思い出があり、その頃の歌も歌います。自然に日本の雑誌、物語で討論もします。懐かしい思い出を。

우리 부산엔 과거 일본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당시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을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도 있어요. 이 회는 17 년이 됩니다, 올해. 능숙한 일어숨씨로 모인 부산 일어봉사회란 명칭이지요. 주 한 번에 20 ~ 30 명으로 讀本와 연수에서 공부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 시절의 노래도 노래합니다. 자연스럽게 일본의 잡지, 이야기에서 토론도 합니다.

旅にもたちます。過去の思い出をたどり東京、奈良、京都に行きます。日本とは近い隣の国です。良い交流ができたと思います。釜山に住んでる崔貞美です。幼い時の名は水野峰子でした。

여행도 가지요. 과거 살았던 곳이나 추억을 더듬어 동경, 경도, 나라 여러곳을 다녀옵니다. 일본과는 가까운 이웃이며 좋은 교류였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최정미. 어린시절엔 미즈노 미네코였어요.

한국명 韓国名 崔貞美  
일본명 日本名 水野峰子  
출생지 出生地 咸鏡北道 清津市  
생년월일 生年月日 1933년 6월 24일  
일본에서 살았던 곳 日本で住んでいたところ

한국으로 돌아간 해 韓国へ帰った年  
현주소 現住所 부산시 釜山市



부산 일본어 봉사회 총무로 釜山日語奉仕会の総務として  
(2012년 2월 13일)



교회에서 教会にて (2011년 5월 4일)



지하철 남포동 역 에서  
地下鉄南浦洞駅にて  
(2011년 11월 12일)



연산동의 공원에서  
蓮山洞の公園にて  
(2011년 5월 3일)



(2011년 8월 27일)

李 炳 壽

<기행수필 紀行隨筆>

인간주의정신의 극치 人間主義精神の極致  
(사야가-김충선 의 인간정신에 감명을받고)  
— 녹동서원을 돌아보고 —  
(沙也可—金忠善의人間主義精神に感銘を受け)  
—大邱 鹿洞書院を廻り見て—

이병수 李炳壽

●들어가는 말 前口上

나는 10년 전 대구시 가창면 우록리에 있는 녹동서원을 처음 방문한 일이 있으며, 작년에도 다시 방문을 한 일이 있다. 녹동서원을 방문해 보면 처음엔 누구나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된다. 첫째는 일본 장수 사야가(沙也可)가 도요도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장수로서 명을 따라 조선국에 출병하였는데, 어찌하여 그가 조선국에 투항해 조선군을 도와 일본군을 물리치는데 동참하게 되었는지, 둘째는 사야가(沙也可)가

일본인으로서의 나라에 배신을 한 반역자임에도 어찌하여 오늘날 그의 유적(녹동서원)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지, 셋째는 사야가의 역사적 사실이 어찌 정규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었는지 하는데 대한 의문이었다.

私は10年前に大邱市嘉昌面友鹿里にある鹿洞書院を初めて訪問したことがあるが、昨年にも又訪問したことがある。鹿洞書院を訪問してみると最初は誰でも幾つかの疑問が湧いてくる。最初の疑問は、日本の武将沙也可が豊臣秀吉の命を受け朝鮮国へ出兵したのに、なぜ彼は朝鮮国に投降、朝鮮を助けて日本軍撃退に尽力したのか、二つ目は、沙也可は日本人としては国を背信した反逆者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なぜ今日彼の遺跡(鹿洞書院)を尋ねる日本人観光客が日々に増加していくのか、三つ目は、沙也可の歴史的事実がどうして正規の教科書には載っていないのか、という疑問である。

이러한 의문들은 녹동서원 강당에서의 안내원의 설명과 10분짜리 녹화테이프 상영, 그 밖의 자료 등에 의하여 서서히 풀리기는 하였다. 그리고 이 녹동서원이 지니고 있는 유적들은 단순한 박물관 자료뿐 아니라, 정신유산적인 자료로서도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다.

このような疑問は鹿洞書院講堂での、ガイドの説明と10分ぐらいの録画テープ等、そのほかの資料によって徐々に解けていった。そしてこの鹿洞書院が保存管理している遺跡は、単純な博物館の資料だけではなく、精神遺産的な資料としても価値があるとおもわれた。

그리하여 사야가(沙也可-金忠善)란 인물이 보통사람이 아니고, 휴머니즘(humanism), 즉 인간주의 정신의 소유자로서, 아니, 인간주의 정신을 목숨을 걸고 실천한 사람으로 높이 평가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이 원고는 그러한 견지에서 사야가(沙也可), 곧 김충선의 생애를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쓴 것임을 밝혀둔다.

そうして沙也可一金忠善という人物が、平凡な人ではなく「ヒューマニズム」即ち人間至上主義精神の所有者として、否、人間主義精神を、命をかけて実践した人として高く評価しなければならぬと思ひ至った。それ故にこの原稿はそうした見地で、沙也可即ち金忠善の生涯を一緒に考察してみたいという意味で、此の書を書いたことを明記しておく。

### ●사야가 - 김충선에 대하여 沙也可一金忠善に対して

사야가(沙也可)는 본래 일본인으로 어릴 때부터 야만을 미워하고 인륜을 흠모하며 자라던 중, 선조 25년(임진, 1592) 4월 도요도미히데요시가 이유 없이 조선 침략군 30만의 군사를 출동시키자, 가도오기요마사(加藤清正)의 우선봉장이 되어 바다를 건넜다. 그러나 부산에 상륙하자마자, 「今師出無名徒欲禍隣國有死而已從之非丈夫」의 반기를 들고 예의지국인 조선에 귀화하는 용기를 실천하였다. 그는 성장하면서 조선국 문물과 인륜 중시 사상을 흠모해 왔었기에 조선과의 싸움은 불의이니 아무 의미가 없음을 깨닫고, 부산항에 내리자 곧 부하 3000명을 이끌고 조선에 투항하여 조총(鳥銃) 제작 기술을 전수하고, 경주, 울산 전쟁에 참전하여 큰 공을 세웠다. 이에 선조로부터 김충선(金忠善)이란 성(姓)과 이름을 하사(下賜) 받고 광해군 10년에 정헌대부에 봉해졌다. 임란 후에도 정유란, 이괄의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에 큰 공을 세움으로써 삼란공신으로 대접 받았다.

沙也可は本来日本人であり、幼いときから野蛮を憎み人倫を欽慕しながら成長し、宣祖 25 年（壬辰 1592 年）4 月豊臣秀吉が何の理由もなく、30 万の侵略軍を朝鮮に出兵させるや、加藤清正軍の右先鋒将となり海を渡った。しかし釜山に上陸するや否や、「今帥出無名徒欲禍隣國 有死而已從之非丈夫」の旗を掲げて、礼儀の国の朝鮮に帰化する勇氣を実践した。彼は成長しながら朝鮮国の文物と人倫重視思想を欽慕してきたので、朝鮮との戦争は不義

であり何の意味もない事を悟り、釜山港に上陸するや直ぐ様部下 3000 名を引き連れ朝鮮に投降して、鳥銃(火繩銃)の製作技術を伝授し、慶州、蔚山等の戦争に参加して多大な功を立てた。依って宣祖大王から金忠善という姓名を下賜され、光海君 10 年には政憲大夫に封じられた。戦乱後にも丁酉亂、李适の亂、丁卯胡亂、丙子胡亂、等に多大な功を成し、三乱功臣としての待遇を受けた。

김충선으로 귀화한 그는 결혼 후 5 남 1 녀를 두었으며, 그 자식들에게서 30 명의 손자가 태어났으니, 후손이 번창해 수천 명에 달한다고 한다. 한 때 내무부장관을 역임한 김치열(金致烈)도 그 후손이다. 녹동리는 원래 소굴레 모양의 마을이란 뜻으로 우록동(牛勒洞)으로 표기해 왔으나, 김충선 장군이 1600 년에 ‘사슴과 벗하는 마을’이란 뜻으로 우록동(友鹿洞)으로 고친 후 정착되면서 지금까지 400 여 년 동안 김씨 집성촌(集姓村)으로 이루어졌다.

金忠善として帰化した彼は結婚後五男一女を儲けて、その子供たちから更に 30 名の孫が生まれたといい、後孫が繁盛していまでは数千名に達しているという。一時内務長官を歴任した金致烈氏もその後孫である。鹿洞里は元來牛勒に似ている村という意味で牛勒洞と表記されてきたのだが、金忠善将軍が 1600 年に鹿と友になる村という意味で、友鹿洞と改名して今まで 400 余年間、金氏一族の集姓村を成している。

### ●안내자의 설명을 들으며 가이드의 설명을聞きながら

녹동서원에는 상주하는 안내원이 있었는데, 일본인 관람객이 많아 일본어 통역자도 있었다. 관람객이 많아 하루 버스 5~6 대가 되는 때도 있다 한다. 경내에는 강당, 기념관, 녹동사(祠), 향양문이 있으며, 모하당문집, 친필, 증직, 교지, 조총 등의 유품, 유물이 전시되어 있었다.

鹿洞書院にはガイドが常住していたが、日本人観光客が多くて日本語の通訳者もいる。観光客が多いため、一日にバス 5~6 台に

も成るときがあるという。境内には講堂、記念館、鹿洞祠、向陽門があり、暮夏洞、文集、親筆、贈職、教旨、鳥銃、等の遺品、遺物が展示してあった。

안내자의 설명에 의하면 영조(英祖) 말년부터 삼도(三道) 유림이 한 뜻으로 공의(公議)를 모아 간하여 정조 18년(1794)에 준공 봉안하였으나, 고종 원년에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손되었다가 고종 22년(1885) 영남유림과 김씨 문중이 힘을 합해 재건, 8.15 해방후 1971년 국고의 지원을 받아 현 위치로 옮겼다 한다. 우리는 유적지와 신도비도 돌아보았다. 서원에는 김충선 장군의 위패를 모셔놓고 춘추로 제향(祭享)을 올리며 충절보국(忠節報國)의 삶을 살아온 장군의 위업을 기리고 있다.

ガイドの説明によると英祖末年から三道の儒林達が合心して公議を集め懇願し、正祖 18 年（1794）に竣工奉安したのだが、高宗 22 年（1885）嶺南儒林と金氏一族門中が協力して再建、8・15 解放後 1971 年国費の支援を受けて現在の位置に移されたという。私たちは遺跡地と神道碑も廻り見た。書院には金忠善將軍の位牌を祭り春秋に祭享を行い、忠節報國の一生涯を生きた將軍の偉業を称えている。

### ● 맺으며結びながら

사야가(沙也可)의 행적을 고찰해 보면 확실히 범인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그의 정의감은 높이 평가하고 싶다. 비록 군주인 도요도미히데요시(豊臣秀吉)로부터 조선 정벌의 명을 받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보니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불의(不義)요,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것이 분명했다. 따라서 그는 양심의 명령에 따라 정의를 용감하게 실천한 의인(義人)이요, 대장부였다. 사야가에게 있어서 ‘양심’은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이었다.

沙也可—金忠善の行跡を考察してみると確実に凡人ではなかつ

た。何よりも彼の正義感を高く評価したいと思う。たとえ君主の豊臣秀吉から朝鮮征伐の命を受けても、自身の良心に鑑みて他国を侵略するのは不義であり、大義名分のない戦争だというのが明確であった。従って彼は良心の命令に従い正義を勇敢に実践した義人であり、大丈夫であった。沙也可—金忠善において良心は命よりも貴重なものであった。

사야가의 행동은 평범한 시각에서는 자기의 조국인 일본을 배반한 것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주의(휴머니즘)라는 안목, 즉 인류의 행복이라는 시각에서는 평범한 배반 따위를 초월한 정의감이었다.

沙也可の行動は平凡な視点からでは、自身の祖国である日本を背反したことでもあった。だがそれは人間主義(ヒューマニズム)という眼目、即ち人類の幸福という視点では平凡な背反等を超越した正義感であった。

오늘날 사야가가 잠들고 있는 녹동(鹿洞)에 일본인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 ‘전쟁’이란 모든 인류가 증오하는 공동의 적이다. 사야가는 400 여 년 전에 이를 깨닫고 실천한 인간주의정신의 선구자이다. 그러기에 녹동서원은 이곳에 <한.일 우호촌>을 만들고 세계 평화촌을 지향해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10 년 전부터 「우록리 김충선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세계평화와 인간주의정신의 극치요, 실현도장을 보는 것 같아 감명을 받고 돌아왔다.

今日沙也加—金忠善が永眠している鹿洞書院に、日本人訪問客の探訪が絶えないのも、理由は正に此処にある事と思われる。戦争はあらゆる人類が憎悪する共同の敵だ。沙也加は 400 年前に此れを悟り実践した人間主義精神の先駆者である。だから鹿洞書院は此処に 10 年前から「友鹿里 金忠善」国際シンポジウムを開催している。世界平和と人間主義精神の極致、実現道場を見るよう

で、筆者は深い感銘を受けて帰ってきた。

(약력) 「수필문학」 추천, 부산수필문학협회 회장 역임,  
수필집; 「짧은 인생 긴 학덕」 등 9 권.

(略歴) 元釜山随筆文学協会会長、「随筆文学」推薦、随筆集「短い人生の長い學徳」など9冊。

한국명 韓國名 李炳壽 (雅號 玄峰)

일본명 日本名

출생지 出生地 한국 韓國

생년월일 生年月日 1927년 2월 20일

일본에서 살았던 곳 日本で住んでいたところ

한국으로 돌아간 해 韓國へ帰った年

현주소 現住所 부산시 釜山市



지인의 이춘학 씨와 함께 知人の李春鶴氏と共に

(2011년 8월 27일)



북동서원  
鹿洞書院  
(2012년  
6월 18일)





(2012년 11월 1일)

金 仁 熙

追憶を曝け出す懐かしい演歌  
追憶을 추어 내는 정겨운 演歌

歌えば懐かしさが湧いて来る演歌、楽しい時、寂しい時または嬉しい時と悲しい時、歌えば過ぎ去った事柄が追憶になって浮かび上がる演歌、慰めになり尚更懐しさが募って、生きる甲斐と趣が増してくる。去りし日、元氣潑刺と社會生活に没頭する時は、別に關心外で有ったが停年になって職場でも追い出され無聊な日を送るようになりながら發掘したのが演歌會だ。この集まりには演歌が歌われる、年の若い人もいるが大概 70 代後半以上になるため付き合いに拒否感なしにおたがい良く紛れて時間潰しと楽しみとの交わりを共にする事が出来るため好都合と言うべきだ。

추억을 추어 내는 정겨운 연가. 노래하면 그리움이 솟아오르는 연가, 즐거울때 쓸쓸한때 노래하면 지나간 일들이 추억이 되어 떠 오르는 연가, 위안이 되고 모든 것이 새로운 그리움이 쌓여 사는 보람과 재미가 더하여 온다. 지난날 원기발랄하게 社會생활에 몰두할 때는 별로 관심 밖이었지만

정년이 되어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무료한 날을 보내게 되면서 발굴한 것이 연가 모임이다. 회에는 연가를 노래 할 수있는 나이 젊은 사람도 있지만, 대개 70 대후반이상이기 때문에 사귀는데 거부감 없이 서로 잘 어울려, 시간보내기와 즐거움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다.

私が演歌（あの時は流行歌と言った）を歌うようになったのは日帝下初等學校兒童のとき（當時は國民學校と言った）。兄達が歌うのを歌詞の意味も知らず真似で歌ったのが知らずのうち習われるようになったのらしい。あの時からは遙か70年も過ぎた時点だが、唄ってみればそれなりに他人に追いついて行くことが出来るので幸せと思われる。

내가 연가(그때는 유행가라 했음)를 안 것은 일제하 초등학교때 (당시는 국민학교) 형들이 노래하는 것을 가사의 뜻도 모른 채 흥내 내어 노래 한 것이 펍 숙달되었던 것 같다. 그때로부터는 아득히 70 여년도 지난 시점이지만 노래 해보면 나름대로 따라 갈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된다.

當時我が家には蓄音機（Victor の箱型）があつて兄達が好んで聞いていたし、傍に居ながら自ずと習うようになったのだ。太平洋戦争がクライマックスに至ったあの頃、私が住んでいた濟州道（チェチュド）の田舎海岸には夏毎に水遊びを楽しむため集まって来た青少年學生たちが互いに聲高らかに日本の軍歌とか流行歌を歌っていた記憶が生々しい。

당시 내집에는 축음기 (Victor 상형) 가 있어서 형들이 즐겨 들었고 옆에서 자연적으로 배워지게 됐다. 태평양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내가 살던 제주도의 시골 해안에는 여름마다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서. 모여드는 청소년학생들이 서로 소리를 높여 일본의 군가라던가 연가를 노래하던 기억이 생생하다.

雁啼き渡る月の空 今夜今頃戦地では弾丸を浴びてる友がいる  
(曲目: そうだその意気)

기러기 울어 예는 달 밝은 하늘 오늘밤 지금쯤 전선에서는  
탄환을 덮어 쓰는 전우가 있다 (곡목: 그렇다 그 기개)

喜び溢れる歌聲に輝けあれ野の黄金雲 (曲目: 熱砂の誓い)  
기쁨에 넘치는 노래 소리에 빛나라 황야의 황금색 구름  
(곡목: 열사의 명세)

等の軍歌は勿論、その時流行って映畫の主題歌として大ヒットした愛染夜曲、愛染草紙、旅の夜風など 5、6 曲がシリーズとして多くの人に歌われていた。

등 군가는 물론, 그때 유행했던 영화주제가로 크게 히트한 사랑의 야곡(愛染夜曲), 사랑의 일기(愛染草紙), 여로의 밤바람(旅의夜風)외 5, 6 곡이 시리즈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러졌다.

太平洋戦争の眞っ只中とは言っても海邊には多くの青少年が集まって海水浴に餘念のなかったある日の午後、急に遠くない海の彼方で今まで聞いたことの無い鈍い飛行機の爆音が聞こえて來た。思わず音の出る方を見渡した。日頃見てなかった大型の四發プロペラ式の濃い國防色の飛行機。見るにも速度が遅く鈍く見えた。戦時だから國民學校でもしばしば味方と敵の飛行機の識別法について教育されていて、寫眞までも見た事がある。學生達も集まって敵機(米軍機)でないかと聲をかけている。瞬間凄まじいながらも敏捷な音をたてながら3台の日本軍新鋭機と言われている三式戦闘機が出現、上空、前、後三方面から機銃掃射を浴びせかけた(あとで聞いた話によると米軍の輸送機だったと言う)。海水面擦れ擦れに飛びながら對抗射撃をするのが鈍くて遅しそうな機關砲らしい銃の音が出るほかは他の動作はなかった。數分ほど交戦したと思うとたん忽ち米軍機は左右に翼を揺らしながら海中に墜落して行くのが目撃された。集まっていた皆んなの人達は拍手

と歡聲を上げながら、なるほど「勝ったぞ、日本だ」と満面微笑を浮かべていた。

태평양전쟁의 한 와중이라고 하지만 해변가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모여들어서 해수욕에 여념이 없던 어느날 오후 갑자기 멀지 않은 바다의 저 쪽에서 지금까지 들어 본적이 없던 우둔한 비행기의 폭음소리가 들려 왔다, 무심코 소리 나는 쪽을 쳐다봤다. 평소에 안보던 대형 사발 프로펠러 식 비행기로써 짙은 국방색을 하고 있다 보기에 속도도 느려 보였다. 전시니까 국민학교에서도 가끔 아군과 적군의 비행기 식별법에 對하여 교육받아서 사진으로도 본 일이 있는것 같았다. 학생들도 모여서 적기가 아닌가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순간 민첩하면서도 굉장한 소리를 내면서 3 대의 일본군 신예전투기라고 이야기하던 삼식전투기가 출현, 상공, 전, 후 3 방향에서 기총소사를 가해왔다 (후에 들은 바에 의하면 미군수송기였다고함), 해수면에 닿을락말락 비행하면서 대항사격 하는건지 둔탁하고 다부진 기관포인듯한 총 소리가 들리는 것 외에 다른 동작은 없었다 수분정도 교전했는가 생각할 때 드디어 미군기는 좌우로 날개를 비틀거리면서 해중으로 추락해 가는 것이 목격되었다.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박수와 환성을 올리면서 역시“이겼다 일본이다” 라면서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있었다.

濟州島は米軍が日本本土作戰展開に對備して沖繩以上の戰略要衝地と見て準備を整えたようだった。終戦ずっと前から濟州島には7萬餘の日軍兵が駐屯して海邊の重要地点に洞窟を掘り、海上特攻隊用陣地を築くなど島全體を要塞化していたのだった。

제주도는 미군이 일본본토 작전전개에 대비해서 오끼나와 이상의 전략요충지로 간주 준비를 했던것같다. 종전 아주 전부터 도내에 7 만여명의 일군병력이 주둔해서 해변의 주요지점에 동굴을 파서 해상특공대용 진지를 구축하는등, 섬 전체를 요새화 해 나갔다.

戦争がクライマックスに至った頃何處へ向かっていたのかは分からないが、兵力輸送船が米軍潜水艦の追跡に気づき翰林飛揚島の島影に退避中魚雷攻撃を受け 800 餘人の日兵が死亡した事件、また濟州港物揚場に野積中の軍輸物資を米軍機の空襲に依り焼失、島上空に B29 の編隊が朝夕通過する等米軍機の出沒が激しくなっていた。

전쟁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는 모르나 병력수송선이 미잠수함 추적을 눈치채고 한림비양도 섬그늘에 대피중 어뢰공격을 받아 800 여명의 일병이 사망한 사건, 또 제주항 물양장에 야적중인 군수물자를 미군기의 공습에 의하여 소실, 섬 상공에는 B29 의 편대가 조석으로 통과하는 등 미군기의 출몰이 격화되었다.

今になって顧みれば戦争がもっと長引いたとしたらこの島も沖繩以上の被害を蒙る事は勿論、私自身もこの世の人で無かつたろうと思えば終戦が早めに成り立ったのは甚だ幸せだったと言うべきである。だが終戦後濟州島では 1948 年 4 月 3 日に發生した 4.3 事件と言う理念的騷亂が 3 年餘に渡って續く間、全島民が事件の餘波に掻き卷かれ 25 萬人口の島で青年 4 萬人ほどが死亡したとは驚くべきである。問題はこの時使用された銃と刀劍が皆日本軍が洞窟等に捨てて行った武器で有ったと言う所から日本軍を恨むほかないのであろう。

지금 와서 뒤돌아 보면 전쟁이 더 끝났으면 제주도도 오기나와 이상의 피해를 입었음은 물론 나 자신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하면 그나마 종전이 이루어졌음은 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전 후 제주도에는 1948 年 4 月 3 日 발생한 4.3 사건이라고 하는 이념적사건이 약 3 年여 동안에 걸쳐서 계속되는 사이 전 도민은 사건에 휘말려 25 만명이 사는 섬에서 주로 청년 4 만여명이 사망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때 사용된 총기와 도검류가 일본군이 동굴등에 버리고 간 무기였다는데서 일본군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歲月は去っても演歌は昔の出來事を追憶に作り變えて尋ねて來る。釜山には 5、6 個所の演歌會があるが皆營業的では無く同好會で、歌う人達共同で運營する形式であり、オルガンの伴奏またはカラオケ演奏裝置に合わせて歌う。この歳で演歌會でも無かったとしたら長い春の日を何處で潰すのかと思えば本當に幸せだと喜ぶ人が少なくない。西空を染めた茜雲の彼方へ、もうすぐ沈んで行く夕陽の様な歳頃のひとながらも歌う時だけは元氣いっぱい、歌って楽しい、聞いて懐かしい明日またの楽しみを期待しながら今日も暮れ行く惜しさに涙ぐむのである。

세월은 흘러도 연가는 옛날의 일들을 추억으로 변화시켜 찾아온다. 부산에는 5, 6 군데의 연가모임이 있으나 모두 영업적인 것은 없고 동호회로써 노래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식이며 오르간의 반주 또는 가라오케 연주장치에 맞추어 노래한다. 이 나이에 연가모임이라도 없었다고 하면 이 긴 봄날을 어디서 소일 할 것이냐를 생각하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기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서쪽 하늘을 빨갱게 물들인 하늘 저쪽으로 이제 곧 잠겨 들어갈 석양같은 나이들이지만 노래 할 때만은 힘이 가득해 노래해서 즐겁고, 들어서 정겨운, 또다시 내일의 즐거움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저물어 가는 아쉬움에 눈물을 머금는다.

2012 年 晚春 漫 撰  
金仁熙 金인희

한국명 韓国名 金仁熙  
일본명 日本名 金村理八  
출생지 出生地 한국韓国  
생년월일 生年月日 1930년 10월 4일  
일본에서 살았던 곳 日本で住んでいたところ

한국으로 돌아간 해 韓国へ帰った年  
현주소現住所 부산시 釜山市



자원 봉사 근무처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관  
옆은 동료 오홍길 씨  
ボランティア勤務先の  
寶水洞古本通り文化館  
隣は同僚の吳烘吉さん  
(2012년 6월 10일)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관 寶水洞古本通り文化館  
(2012년 6월 10일)



(2012년 5월 일)

## 吳景煥

私は韓国で生まれ、幼いとき気がつくとは北海道でした。父母は農業、出稼ぎ労働者などで生活が安定せず転々と住まいを替え、帰国した 1945 年には当時空知郡芦別町の辺鄙な地域の農家でした。現在は芦別市ですが、市の郊外は今でも寒村です。

나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일본 북해도에서 성장했다. 부모는 막노동 농업 등으로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고 여러 곳으로 이사했다. 귀국한 1945년에는 空知郡芦別町の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 현재는 芦別시로 승격했으나 아직 변두리는 형편없는 시골이다.

学校は美唄工業中退で、釜山工業に編入しました。帰国は終戦後急ぎましたが、当時交通状態が最悪で 1945 年 11 月 1 日に出発しましたが、11 月 17 日に釜山に着きました。17 日間宿は満員でとれず野宿してすごしました。食堂も外食券なしでは芋半分に海藻でした。外食券があっても玄米に近い米が半分で後の半分は雑

穀でした。手荷物も送れず着のみ着のみで帰国しました。

학교는 美唄공업학교를 중퇴하고 귀국해서 부산공업학교로 편입했다. 종전 후 서둘러 귀국했으나 북해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곳이고 당시 일본 교통상태가 최악인 때라 1945년 11월 1일에 출발했으나 11월 17일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17일간 귀국하는 동포 때문에 여관은 만원이고 주로 노숙하고 지났고 식당은 식권이 없으면 고구마 반개에 해초 등으로 차려지고 식권이 있어도 현미에 가까운 쌀에 반 정도의 잡곡밥이었습니다. 짐은 보내는 방법이 없었고 맨몸으로 귀국했습니다.

小学校では吳景煥でしたが中学校に志願するため本籍地に戸籍抄本を取り寄せると所謂創氏改名で吳州景煥となっていました。帰国して元の名前になりました。

초등학교에서는 오경환이란 이름으로 지났으나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하여 호적초본을 받아보니 소위 창씨개명으로 우리나라의 친척들이 오주 경환으로 변경되었으나 귀국 후에는 자동으로 오경환으로 되었습니다.

以下、私の思い出の一コマを書きます。

아래에 지난날의 회상의 일부를 적어 봅니다.

1944년 5월 1일、学徒勤勞動員令により 4ヶ月の予定で寮生活が始まった。4ヶ月後には母校に戻れると思ったが次々と延期され、1945년 8월 15日終戦になってしまった。それでも学校へは戻れず寮生活は継続した。

1944년 5월 1일、학도근로동원령으로 4개월의 여정으로 회사의 합숙생활이 시작되었다. 4개월 후에는 모교에 돌아 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으나 계속 연기 되어, 1945년 8월 15일 종전이 되었다. 그래도 학교에는 돌아가지 못하고 합숙 생활을 계속했다.

理由は終戦後未だ。戦地から復員されず、学校に戻っても教える教師も戦地から戻っていないので、実質的に授業が不可能であるばかりか、我等学生が産業界の無くては成らない働き手であった為である。私は 1945 年 11 月 1 日、殆ど学ぶことも出来なかった学校を退学して帰国したが、後で調べて見ると、私が帰国後皆すぐ復校出来たようだ。

이유는 종전 후에도. 군인은 전지에서 바로 돌아오지 못했고 학교에 돌아가도 가르치는 교사가 전지에서 돌아오지 안했으므로, 실질적으로 수업이 불가능 했을 뿐 아니라, 우리들 학생이 산업계의 필수적인 일꾼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1945년 11월 1일, 거의 배우지 못한 학교를 중퇴해서 귀국했는데 후에 조사해 보니 나의 귀국 후 모두 곧 복교 된 것 같다.

振り返れば、私どもが生きて来た世代は激変の時代であった。小学校の低学年の頃、支那事変が勃発して担任の先生が学期の途中で召集を受け、前線に出征し、6年生のとき大東亜戦争が始まり、戦没軍人の農家に勤労奉仕、終戦に近づくと 18ヶ月間産業戦士として学徒勤労報國隊に動員され、寮生活は軍隊の内務班式生活を余儀なくされて、学ぶ事も出来ぬ間に社会に放り出されたのだった。間もなく 1950年韓国動乱が起こり、全国の大部分が灰燼と化してしまった。

뒤돌아보면 우리가 살아온 세대는 격변의 시대였다. 소학교의 저학년 때, 지나사변이 발발하여 담임 선생이 학기의 도중에 소집되어, 전선에 출정하고, 6학년 때 대동아전쟁이 시작하여, 전몰 군인의 농가에 근로 봉사, 종전이 가까워지니 18개월간 산업 전사로서 학도 근로보국대에 동원되어, 합숙생활은 군대의 내무반식 생활을 해서 배우지도 못한 채 사회에 방출되었던 것이다. 얼마 후에 1950년 한국동란이 일어나서, 전국의 대부분이 잿더미가 되어 버렸다.

何の資源も設備もなかった当時 70ドルであった GNP が現在 2 万ドルまでに成長した影には俺たちの多大な努力があったと自負して居るが、振り返って辺りを見回せば世はいつの間にか情報化時代となり、主力は農業、重工業を経て IT に移った。時代の波についていけない我等の世代は隠居同様の身となってしまった。

아무 자원도 설비도 없었던 당시 70 불이었던 GNP 가 현재 2 만 불까지 성장한 뒤에는 우리들의 다대한 노력이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뒤돌아 주위를 살펴보니 세상은 어느덧 정보화시대가 되어, 주력은 농업, 중공업을 거쳐 I.T.로 이동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갈 수 없는 우리들의 세대는 뒷방사리가 되어버렸다.

私はまだ青年だと思って居るのだが、気がつくとも 84 歳となってしまった。それでも気ままに生きて来た私は気分は若いのに人々は私を老人と見ている様だ。戦争で亡くなった同年輩や負傷して苦勞された方々を思うとき、私は戦傷を受けたが、それでも日常生活に支障が少ないのは感謝すべき人生だったと思う。

나는 아직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신 차려보니 84 세가 되어 버렸다. 그래도 마음 가는대로 살아 온 나는 기분은 젊는데 다른 분들은 나를 노인이라고 보고 있는 모양이다. 전쟁에서 돌아 간 동년배나 부상해서 고생 하신 분들을 생각하면, 나는 전상을 입었으나 그래도, 일상생활에 별 지장이 적은 것은 감사해야 하는 인생이라 생각된다.

한국명 韓國名 오경환 (吳景煥)

일본명 日本名 吳州景煥

(오주경환 창씨 개명시 3 년간 사용 創氏改名時 3 年間使用)

출생지 出生地 한국 韓國

생년월일 生年月日 1929 년 9 월 28 일

일본에서 살았던 곳 日本で住んでいたところ

北海道空知郡芦別町

한국으로 돌아간 해 韓國へ帰った年 1945 년 11 월

현주소現住所 부산시 釜山市



第 12 回 日韓交流会 於 佐賀市富士町「ふおれすたフジ」にて 2012.5.24  
제 12 차 KJ 클럽 한일 교류회 第 12 次 KJ 클럽 韓日交流会



KCLA 한일 교류회의  
학습 풍경

KCLA 韓日交流会の  
学習風景

(2012 년 6 월 8 일)



KCLA 한일 교류회에서 KCLA 韓日交流会にて  
(2012년 6월 15일)



(    년    월    일 )

姜 泰 植

### 경력 経歴

1928 년 일본 나고야시(名古屋市)에서 출생후 구주 미야자키시(宮崎市)에서 미야자키 공업학교 기계과에 입학하였으나 전시 (戰時) 이기에 소창육군조병창 (小倉陸軍造兵廠) 에 학도 동원되어 근무 중, 나의 근무 공장이 제일 크기 때문에 풍선폭탄에 사용하는 풍선의 풍압시험을 하고 있을 때의 추억과, 미군의 폭격을 우려하여 오오이타시 (大分市) 에 공장이 이동하고 근무 시의 1m 의 거리차이로 살아 남은 추억을 미야자키 공업학교의 80 년지 (80 年誌)에 기고하였으며, 그 후 개교 100 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한 바 있습니다.

1928 年、日本の名古屋市で生まれて後、九州宮崎市の宮崎工業学校機械科に入学しました。戦時中でしたので、小倉陸軍造兵廠に学徒動員されました。私の勤務していた工場が一番大きいため、風船爆弾に使用される風船の風圧試験をしていた時の追憶や、米軍の爆撃を恐れて大分市に工場が移転し、勤務中の 1m の距離の差で生き残った追憶を宮崎工業学校の 80 年誌に寄稿しました。そ

の後、開校 100 周年記念式典にも出席したこともあります。

형님 두분은 한국 경남 산청군에서 출생하여 일본에 가서서 철도에 취직하여 궁기기관구 (宮崎機關區)에서 기관사로 근무하였으며, 나는 8.15 해방후 처음으로 18 세로 한국에 오게되어 나 역시 부산에서 철도에 근무 하면서 기관사가 되고 58 세 정년 퇴직시까지 철도의 기관차 기술책 및 운전규정책과 "세계의 증기기관차" 사진책 등등을 발행하고 일본 친구로부터 보내온 "바이오 리듬"을 소책자로 발간하여 운전사고방지를 위하여 철도청과 서울지하철의 승무원들에게 보급한 바 있습니다.

兄二人は、韓国慶尚南道山淸郡で生まれて日本に行き、鉄道に就職し、宮崎機關區で機関士として働いておりました。私は 8 月 15 日の解放後、18 歳で初めて韓国に帰りました。私も釜山で鉄道に勤務しながら、機関士になりました。58 歳の定年退職時までの間に、鉄道の機関車技術の本と運転規定、運転規定問答集、「世界の蒸気機関車」写真の本などを発行しました。日本の友達から送ってきた「バイオリズム」を小冊子として出版して、運転事故防止のために鉄道庁とソウルの地下鉄の乗務員に普及したこともあります。

### 풍선 폭탄 風船爆彈

미야자키공업학교 기계과 제 2 기생으로, 신입의 청춘과 높은 쌍남 (雙楠)이 심어져 있는 교문을 지나 희망을 갖고 입학하였다. 이 입학할 때 (1943) 는 제 2 차대 전의 와중임으로 거의 공부보다 학도동원으로 군수산업에 종사하는 매일였다. 그래서 소화 19 년에는 소창육군조병창 (小倉陸軍造兵廠) 에 기계과 2 년생 일동이 동원되었다. 조병창에서는 각기 5~6 명씩 배치되어 부여된 작업을 하게 되었다.

宮崎工業学校機械科第 2 期生として若葉の青春とそそり立つ双

楠が植えられている校門をくぐり、希望に燃えて入学しました。入学時(昭和 18 年)は第 2 次大戦の最中なので、勉強よりもほとんど学徒動員で軍需産業に従事する毎日でした。そして、昭和 19 年には小倉陸軍造兵廠に機械科 2 年生全員が動員されました。工場では、それぞれ 5~6 人ずつ配置され、与えられた作業をしました。

내가 근무하던 공장건물은 조병창 중에서도 가장 크고 중앙이 높고 튀어 나온 요철형의 건물로 크고 넓은 공장이었다. 여기서 비행기의 동체, 또는 양날개를 조립하기 위한 골재를 제작하는 곳이며 우리들은 열심히 근무하였다.

私が勤務していた工場の建物は、造兵廠の中で最も大きく、中央が高く飛び出した凸型の建物で、大きくて広い工場でした。ここは、飛行機の胴体や両翼を組み立てるための骨材を製造しているところで、私たちは熱心に作業しました。

그 당시 소창시내의 여학생들은 역시 소창육군조병창(小倉陸軍造兵廠)에 동원 되어 각 공장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여학생들은 창호지를 바르고 풍선을 만드는데 특수한 폴로한장 두장 석장 --포개면서 차차 크고 넓고 두껍게하여 마지막에는 직경 10 미터의 큰 풍선을 만들었다. 이 풍선이 우리들 공장건물에 운반되서 풍압 내구시험을 받게 된다. 이는 공장 중앙에 있는 최대의 송풍기로서 서서히 압축공기의 압력을 높혀 약 7~8kg/cm<sup>2</sup> 까지의 고압 내구성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 작업은 우리들에게도 지장이 있었다.

その当時、小倉市内の女子学生はやっぱり男子学生同様小倉陸軍造兵廠に動員され、各工場に配置されていました。女子学生たちは和紙を貼って風船を作るため、特殊な糊で一枚二枚三枚と重ね貼りしながら、次第に大きく広く厚くし、最後には直径 10メートルの大きな風船を作りました。この風船が私達の工場の建物に運び込まれ風圧耐久試験を受けることになります。試験は、工場

の中央にある最大の送風機で徐々に空気の圧力を高め、約 7~8kg/cm<sup>2</sup> まで高压耐久性をテストします。この試験は、私たちにも支障がありました。

송풍기의 회전속도가 높아지면 회전소음이 굉장히 시끄럽고 만약 약한 부분이 있으면 풍압에 견디지 못하여 과열하는데 건물이 흔들리고 넘어질 정도였다.

送風機の回転速度が高くなると回転音がとてもうるさく、もし弱い部分があれば気圧に耐えられず破裂し、建物が揺れて倒れそうになるほどでした。

풍압시험에 합격한 풍선은 접어서 시코쿠(四国 しこく)의 고지해안(高知海岸)에 보내져서 가스를 충전시켜 로-프로 폭탄을 매달아서 공중으로 띄우게 된다. 이 풍선폭탄은 기류에 따라 카무착카반도, 아류산열도, 가나다를 경유하고 미국 서해안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風圧試験に合格した風船は、折りたたんで四国の高知海岸に送られて、ガスを充填しロープで爆弾を吊り下げて空中に飛ばす作業であったようです。この風船爆弾は、气流に乗ってカムチャッカ半島、アリューシャン列島、カナダを経由して米国西海岸に到達するようになっていました。

이 풍선폭탄의 결과에 대하여는 중립국인 스위스를 통하여 듣게 되는데. 미국 태평양측의 대도시인 산프란시스코의 고층건물이 폭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미국사람들은, 비행기의 프로펠러 소리도 없고 또 잠수함으로의 포격도 아니므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전전긍긍하였다고 한다.

この風船爆弾の結果については、中立国であるスイスを介して聞くことになりました。アメリカの太平洋側の大都市サンフランシスコの高層ビルが爆発、火災が発生しているのを見て、アメリカ人たちは、飛行機のプロペラ音もなく、また潜水艦からの砲撃

もなかったので、原因が究明されず、戦々恐々していたとのことでした。

그러나 기류에 따라 이동하는 것이므로 록키산맥의 높은 나무가지에 풍선이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비행기로 마중나가면 기류 따라 날아오는 풍선을 발견하여 사격하면 해중에 추락하게 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는 비참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しかし、気流に沿って移動するものなので、ロッキー山脈の高い木の枝に風船が引っかかっているのが発見されました。その後、気流によって飛んでくる風船を発見し、飛行機で迎撃さ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そして、風船爆弾は海中に墜落し、所期の目的を達成することもできない悲惨な結果となってしまいました。

### **운명의 1m 運命の 1m**

사람의 일생 중에는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나 나의 경우에는 1m 의 운명의 사건을 지금 생각하여도 소름이 끼치는 사건이었다.

人の一生の中には多くの事件が起こりますが、私の場合は、1mの運命の出来事で、今考えてもぞっとするような事件がありました。

제 2 차대전도 종전에 가까운 시기에 상기한 바와 같이 소창육군조병창 (小倉陸軍造兵廠)에 학도동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북구주의 공장지대가 공습을 받고 보니 근무하던 공장도 오오이타시(大分市)의 해변가의 방직공장의 터로 이전하게 되어 군수품을 생산하고 있었으나.

第2次世界大戦も終戦に近い時期に、上記したように小倉陸軍造兵廠に学徒動員で働いていましたが、北九州の工場地帯は空襲を受けるので、勤務していた工場も大分市の海岸の紡績工場の跡地に疎開し、軍需品を生産していました。

이 때는 매일 저녁이 되면 B29 폭격기가 오오이타시 (大分市)의 상공을 지나 북구주의 공장지대를 폭격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 때마다 작업을 중지하고 방공호에 뛰어들었다. 그러다가 단지 1대만 정찰로 비행하고 올 때는 작업은 계속하였다.

この時、毎日夕方になると B29 爆撃機が大分市の上空を通過して北九州の重工業地帯を爆撃していました。私達はそのたびに作業を中止し、防空壕に飛び込みました。1機の偵察機が飛行して来る時は、作業は続けていました。

어느날 역시 1대만 정찰로 비행하여 오기에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나의 작업장은 공장의 북쪽 입구에서 7~8m 위치에서 기계를 돌리고 있으니 돌연 폭음과 동시에 흙먼지를 덮어 쓰게 되어 밖으로 뛰어 나가 보니 입구 바로 앞에 직경 7~8m, 깊이 3~4m의 큰 구멍이 뚫려 있고 그 속에는 불발한 폭탄의 꼬리가 보였다.

ある日、やはり1機の偵察機が飛行して来ましたが作業を続けていました。私の作業所は、工場の北の入口から7~8mの場所でした。機械を回していると突然爆音と同時に土煙が舞い上がりました。後で外に出てみると入口のすぐ前に直径7~8m、深さ3~4mの大きな穴があいており、その中に不発弾の尾部が見えました。

그것을 보고 다시 놀랐으나 자세히 보니 그 불발탄이 1m 뒷쪽의 공장 옥상에 떨어지거나 1m 앞으로 가서 지상에 낙하되었어도 폭발하였을 것이나 폭탄의 동체부분이 屋上の 대들보에 접촉되므로 폭발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정말로 운이 좋았던 것이며 지나간 60여년을 추억할 때 소름이 끼치는 사건이었다.

それを見て、再度驚いてよく見ると、その不発弾が1m後方の工場の屋上に落ちたり、1m先の地面に落ちたりしても爆発した

が、爆弾の胴体部分が屋上の梁に接触したために爆発しなかった様である。本当に運が良かったことで、過ぎ去った 60 余年を思い出すとぞっとするような事件でありました。

한국명 韓国名 姜泰植

일본명 日本名 田中泰植

출생지 出生地 일본 日本

생년월일 生年月日 1928년 6월 29일

일본에서 살았던 곳 日本で住んでいたところ

名古屋生まれ、宮崎育ち

한국으로 돌아간 해 韓国へ帰った年 1945년 12월 3일

현주소 現住所 釜山市



철도 재직 중의 저서 鐵道在職中の著書



KCLA 동료와 함께 KCLA の仲間と共に  
(2012년 6월 8일)



(2012년 6월 15일)

玉 英 均

俺は大日本帝國海軍軍属だった  
나는 대일본제국의 해군군속이었다

玉英均 옥영균

小學校 (當時は国民學校) 6 学年の時、鎮海第 51 海軍航空幼年  
少工員に志願 (半強制的)、4 個月の訓練を終えて、日本の群馬縣  
新田郡大田町小泉、中島飛行機株式会社派遣、エンジン部勤務 (重  
爆撃機「銀河」、終戦 (大東亜戦争) 後 1 個月後に帰国。

소학교 (당시는 국민학교) 6 학년 때, 진해 제 51 항공창  
연소공원으로 지원 (반강제적). 4 개월 간의 훈련을 마치고,  
일본의 군마켄 닛타군 오오다마치 코이즈미, 나카지마  
비행기주식회사 파견, 엔진부 근무 (중폭격기「은하」). 종전  
(대동아전쟁) 1 개월후에 귀국.

「おい、徐君！君は勉強して何になるつもりだ？」

「はい、私は天皇陛下に忠義を尽くす人になります」

「よかろう」

「어이, 서군! 군은 공부하여 무엇이 되려고 하는가?」

「예, 저는 천황폐하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좋아」

朝鮮半島南の島、巨濟島、國民學校六年生の教室、中學にすすむ為放課後残り勉強して居た10余名の、謂わば補習生徐柱実君(釜山・P 大学校總長、引退後憲法學博士) に対し、日本海軍省で募集中の年少工員にぜひ行ってほしいと苦言を吐いている副校長白山先生の愛國的(?) 訓導の一場面でした。

조선반도의 남쪽섬, 거제도, 국민학교 6 학년 교실, 중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방과후에 남아 공부하고 있던 10 여명 중의, 말하자면 과외생인 서주실군(부산 P 대학교총장, 은퇴 후 헌법학박사) 에게 대하여, 일본해군성에서 모집중인 연소공원으로 꼭 지원해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부교장 시로야마 선생의 애국적 훈도(?) 의 한장면이었습니다.

私は、とてもこわい先生の言葉に従って、鎮海の第五十一海軍航空廠の第七期年少工員になりました(1944年、昭和19年5月)。朝鮮咸鏡南北道、全羅南北道、慶尚南北道、済州道等全国から選ばれた約400名の小学6年在学中の子供達が集まりました。

나는 무척 무서운 선생님의 말을 따라, 진해의 제 51 해군항공창의 제 7 기연소공원이 되었습니다 (1944 년, 소화 19 년 5 월). 조선 함경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등 전국에서 선발된 약 400 명의 소학교 6 년 재학중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 鎮海 (海軍統制府軍港) 慶和洞 진해 (해군통제부군항) 경화동

フロートが両翼にくっ付いていた水上飛行機2、3機の修理をしていた工場がこの航空廠でした(廠長は現役の海軍大佐)。毎朝午

前 5 時に起床ラッパが鳴るたびに、ふんどしとはちまきだけの半裸で街道を走る少年群、イッチニィ、サンシィ、班長のどなり声に混じって冷たい生空気が軍港の空に散っていきました。

후로-트가 양날개에 붙어 있는 수상비행기 2~3 대를, 수리하고 있던 공장이 이항공장이었습니다 (창장은 현역의 대령). 매일 아침, 오전 5 시에 기상 나팔소리가 울릴 때마다, 팬티와 머리띠만의 반라의 몸으로 거리를 달리는 소년군. 하낫! 둘!, 셋! 넷! 반장의 호령소리에 섞여 싸늘한 새벽공기가 공장의 하늘에 흩어졌습니다.

× ×

日本人老技師の練習時間、萬力にはさんだ金属片、號令に合わせて打つハンマーの下手打ちのお陰で流した手の血が痛む心を慰めるすきもなく、そうこうして 4 箇月の訓練期間終了、小さな工員らのボロ制服のえりに小さな星一つ付けてもらいました。ついでに、日本軍需工場派遣勤務を命じられました。

일본인 노기사의 연습시간, 바이스에 조여 물린 금속편, 호령에 맞추어 내려치는 햄머, 서투른 숨씨 탓으로 피 흘린 손의 통증을 달랠틈도 없이, 이력저력 4 개월의 훈련기간 종료. 작은 공원들의 누더기 제복의 옷깃에 작은 별 한개를 달아 주었습니다. 아울러 일본군수공장 파견근무를 명 받았습니다.

× ×

ここは日本の中島飛行機株式会社です。おもちゃの飛行機を作って子供らを喜ばせる株式会社ではありません。

여기는 일본의 나카지마 비행기 주식회사입니다. 장난감을 만들어 아이들을 즐겁게 해 주는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 群馬県新田郡大田町小泉 (駅)

### 군마켄 닛타군 오오다마치 코이즈미 (역)

毎朝早く、進軍ラッパの勇ましい歌に合わせて、日本全国から集まる勤労奉仕隊、女子報国隊、数千人の工員達、月間生産目標

20機の戦闘機、その名は貴い「銀河」。

매일아침 일찍, 울려 퍼지는 씩씩한 군가에 맞추어, 일본 전국 에서 모여드는 근로봉사대, 여자보국대, 수천명의 공원들, 일간 생산 목표 20 대의 전투기, 그 이름도 고귀한 「긴가」 .

1 屯余りの魚雷 1 台を腹にかかえてアメリカの B29 と戦う双発重爆撃機を造っている国内唯一の軍需工場です。

1 톤 남짓한 어뢰를 배에 안고, 미국의 B29 중폭격기와 싸우는, 쌍발중폭격기를 만들고 있는 국내유일의 군수공장입니다.

「若い血潮の予科練の 七つボタンは桜に錨...」

「젊은 피 끊는 예과연습생 7개단추에는 벚꽃과 닮...」

耳が破れるほど大きなボリウムでどなる軍歌を聞きながら「銀河」のエンジン連結パイプをヤスリで磨いている年少工員、でも、彼等は大日本帝國の海軍軍属でありました。

귀가 찢어지도록 높은 볼륨으로 불러대는 군가를 들으면서 「긴가」의 엔진연결 파이프를 쇠줄로 갈고 있는 소년공원, 그래도, 그들은 대일본제국의 해군군속이었습니다.

×

×

ここは 400 名の宿「大和寮」。神壇に祭った節句のボタ餅、その行方をさがす大騒動、真夜中の非常召集、完全武装して班長の前に並ぶ時間はただ五分間、するどい群馬の冬、10cm も積もった雪の上で「前ささえ」の罰を受けている子供工員達、「犯人の出るまでお前らの手足を固く凍らせてやるから早く降参せよ」。白い雪の上でかがやく虎班長のするどい三角棒（軍人精神注入棒）。止めどなく振っていました（牧班長、海軍軍曹）。

여기는 400 명의숙소인 「야마토료오」 . 신단에 공양한 명절의 둥근 모란떡, 그 행방을 찾는 대소동, 한밤중의 비상소집, 완전 무장하여 반장 앞에 정열할 때까지 단 5 분, 매서운 군마의 겨울, 10cm 나 쌓인 눈 위에서 「엎드려

뺨혀」의 벌을 받고 있는 어린 공원들, 「범인이 나올 때까지 너희들 손발을 꼰꼰 열게해 줄터이니 어서 행복하라」. 하얀 눈위에서 뺨찍이는 호랑이반장의 날카로운 삼각봉(군인정신주입봉). 끊임없이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마끼 반장 해군상사).

かっこう悪い木のさらにのせた米一粒入っていないこわれウドンのごはんに大根汁、水だらけのスープ、ひどい食事。これが餅を盗んだ犯人ではありませんか？

일그러진 나무접시에 담은 쌀 한톨 들어있지 않는 부서진 우동 밥에 무국, 물 만의 스프, 형편없는 식사. 이것이 떡 절도의 범인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

×

カイロとかポツダムとかその意味もよくわからず聞いた正午の裕仁天皇の玉音放送！

카이로 등 포츠담 등, 그 뜻 조차 알지 못하고 듣게 된, 히로히토 천황의 옥음 방송!

「お前らは絶対帰らせてやらないから、われら大日本帝國海軍は最後の兵まで、一人の工員までこの銃とこのハンマーで戦うから覚悟せよ！」と脅迫する乱暴海兵もいました。

「너의들은 절대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 대일본 제국 해군은 최후의 한사람까지, 한사람의 공원까지 이 총과 햄머로 싸울 터이니 각오하라!」 하며 협박하는 난폭한 해병도 있었습니다.

あこがれの師範学校修学もむなし。天皇陛下のために年少工員になったこの子供の一生を誰が報償してくれますか？ 大東亜戦争参戦！ ああ！ この幼い戦犯者を誰がつけましたか？

동경하던 사범학교 수학도 헛된 꿈. 천황폐하를 위해 소년 공원이 된 이 아이의 일생은 누가 보상해 줄 것입니까? 대동아

전쟁! 아아! 이 어린 전범자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

2012년 6월 13일

釜山地下鉄日本語ボランティア 玉英均

부산 지하철 일어 보란티어 옥영균

學歷：東亜大学校国文科卒

経歴：小・中校教師 10年、韓国の軍歴がなかったので公職不可で  
商売中

免許：公認仲介士

학력; 동아대학교 국문과졸

경력: 초·중학교 교사 10년, 한국의 군력이 없어 공직불가로  
상업에 종사

면허: 공인중개사

한국명 韓姓名 玉英均 옥영균

일본명 日本名 玉山英浩

출생지 出生地 일본 日本

생년월일 生年月日 1932년 4월 15일

일본에서 살았던 곳 日本で住んでいたところ

神戸市長田区大田町

한국으로 돌아간 해 韓国へ帰った年 1937年

현주소 現住所 釜山市



지하철 일본어 자원 봉사자 金武振 씨와 함께  
地下鉄日本語ボランティアの金武振さんと共に  
(2012년 6월 14일 자갈치 역에서챠갈치駅にて)



자택 공장에서 自宅工場にて (2012년 6월 15일)



자택 제분·참기름 압착 공장 自宅製粉・ごま油圧搾工場  
(2012년 6월 15일)



(2012년 6월 16일)

## 金 武 振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국민학교 4학년 때, 대동아 전쟁의 종전으로 인해, 부모님과 같이 한국에 나와 지금까지 부산에서 살고 있는 金武振이라고 합니다. 일본에 대한 저의 생각은 어릴적이라 그랬는지 몰라도, 친구들이나 어른들이 다 순진하고 정이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私は日本で生まれ小学校四年生のとき、大東亜戦争の終戦で父母と一緒に帰国、今日に至るまで釜山に暮らしている金武振といいます。日本に対する私の感想は、幼児期であったからか知りませんが、友達や大人達は皆純真で人情が深かったようでした。

그리고 일본에서의 추억이라면 겨울에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너무 많이 쌓여, 2층 창문을 통해 스키를 타고 왕래하며 학교도 통학한 기억이 납니다.

そして日本での追憶とすれば、冬には雪が非常に多く降り、朝起きて見ると雪があまり多く降り積もり、2階の窓からスキーを履いて往来し、学校にも通っていた記憶が残ってい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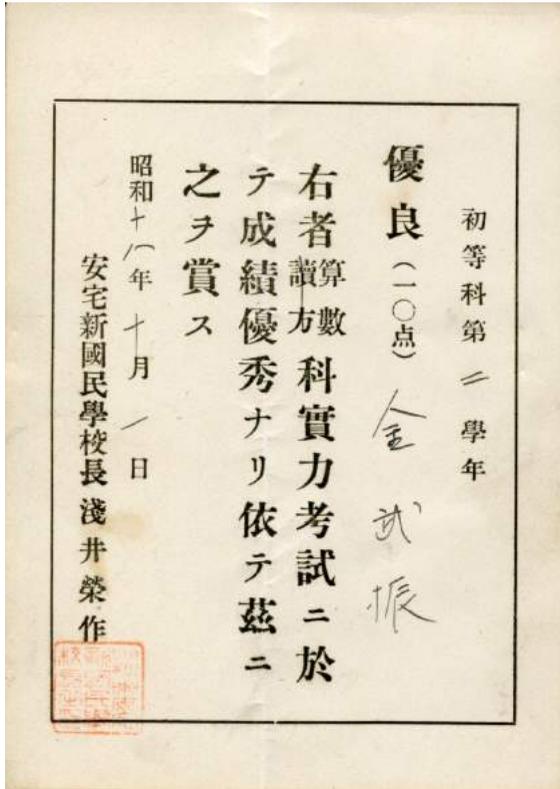
한국에 왔어도 일본과의 관계가 되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다시 학교에 갔지요. 하루는 산수시간에 선생님이 구구셈을 외워 보라고 하여, 일본말로 줄줄 외우니까 학생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잘하니까 난리가 났지요. 그런 추억도 생각납니다만, 그보다 더 신기한 일은 한국에 온지 60 여년이 흐른 지금 그때 배웠던 일본어가 자연스럽게 되니 정말 신기해서 몇년 째, 일본어 통역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이 떠 오르고 공부도 무척 많이 되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帰国してからも日本との関係がある面白いことがありました。韓国に帰国してからまた学校に行きました。ある日の算数時間に先生から「九九段算を暗唱して見ろ」と言われ、日本語ですらすら暗唱しましたら級友たち皆が、珍しくもあり余り上手なので大騒ぎしました。そんな追憶も思い出しましたが、それよりも奇異な事は韓国に帰ってきてから既に六十余年にも成るのに、現在あの時教わった日本語が自然に話せるのが私自身不思議で、ここ数年間を日本語の通訳案内として勤めております。昔が思い浮かび勉強も出来るので熱心に勤めております。

끝으로 저의 일본에 대한 생각은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으며 요즘은 일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며 지내다 보니 보람찬 하루하루가 고맙기만 합니다.

結びとして、私の日本に対する感想は、楽しくよかった追憶として残っています。この頃は日本人と対話しながら過ごしている甲斐ある毎日を有難く思っております。

한국명 韓國名 金武振  
일본명 日本名 金武振  
출생지 出生地 일본 日本  
생년월일 生年月日 1936년 2월 22일  
일본에서 살았던 곳 日本で住んでいたところ  
石川縣小松市  
한국으로 돌아간 해 韓國へ帰った年 1945년 12월  
현주소 現住所 釜山市



수학 우수 상장 算數優秀の賞狀 (1943년, 7세歲)



지하철 자갈치 역에서 자원 봉사 중학교 학생들과  
地下鉄チャガルチ駅にてボランティアの中学生徒とともに



지하철 자갈치 역에서 일본인 관광객 질문에 대한 답변  
地下鉄チャガルチ駅で日本人観光客の質問に答える  
(いづれも 2012년 6월 16일)



(2012년 6월 8일)

任 東 煥

\* 이 웃 사 촌 近所の從兄弟 \*

임동환 任東煥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시련도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일본의 통치권하에서 익힌 일본어를 계속 유지해 왔기에, 현재 이 고장에서 한국자원봉사 연합회 부산지부에서, 일본어 (중급반) 강사, 신부산일본어 자원봉사, 한일간친교류회 및 문화유산 (일본어) 해설사 등에 참여가 되어 나름대로 노후생활에 즐거움과 보람에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歳月の流れに沿い、試練も少なくありませんでしたが、でも日本の統治下で教わった日本語をずっと維持してきたおかげで、現在地元で韓国ボランティア連合会釜山支部で日本語の講師 (中級クラス)、新釜山日本語ボランティア会、日韓懇親交流会 (メロウ倶楽部) 及び文化遺産 (日本語) 解説者等に参与ができて自分なりに老後生活に楽しさとやり甲斐が有って満足を感じて居ります。

문화유산해설은 이 지방의 3 대사찰인 금정산 범어사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인 관광객의 방문이 잦으며 경내 해설시간도 약 1 시간이 소요됩니다만, 개인 외교관이라는 긍지를 갖고 시종일관 미소를 담은 어조로 농담도 가하면서 해설을 하다보면 눈깜짝하는 사이에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던중 마지막으로三成석탑 옆, 미륵전 앞에 와서는, 과거 임진왜란때 침략으로 하루아침에 소실되어 파문인 미륵보살 불상을 찾고자 파헤쳐 봤더니 등을 동해바다 쪽으로 돌리고 있었기에 지금도 그대로 안치하고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文化遺産の解説はこの地方の三大寺刹の金井山梵魚寺を主な舞台として活動して居ります。ここには日本の観光客の訪問が相次いでいて、境内解説時間も約1時間程度要りますが、個人外交官だという誇りを持って始終一貫、微笑んだ語調で冗談も加えながら解説をしていると、あつと言う間に時間が経つのです。終わり目に三重塔のそばにある弥勒殿の前で過去の文禄の役の際、侵略に因って一気に焼け落ち埋まった弥勒菩薩の仏像を探し、掘って見たところ背を東海(日本側の方向)に向けていたので現在までもその通り安置している、との説があります。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일본인 관광객 대부분은 합장하여 "못할짓을 했다" 며 사죄의 표현을 짓고 사과합니다. 그러나, 당시 국력이 쇠퇴했기에 침략자가 생겼다는 것으로 해설은 끝내고 맙니다.

そのような事実がお分りになった日本の観光客の大半は両手を合わせて「悪い事しましたね」と謝罪の表現をつくって詫びる人が珍しくありません。それで、当時は国力が衰退すれば侵略者が現れる、という事で話を結びます。

오늘날과 같이 국제화시대에 과거를 들추고 운운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우려를 면치 못한다며 강조합니다. 외국침략으로 인한 온갖 시련을

겪은 노년층은 오히려 이해를 하고, 과거를 잊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비해, 아무런 시련도 고통도 못 느껴 본 젊은층은 역사적 사실로만 느끼는데도 좀처럼, 그 감정이 풀리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 같기도 느껴집니다.

現在の如く国際化時代に過去を惹き起こしてなんだかんだと言うのは時代遅れになるだけでなく、国際社会にて孤立する恐れを免れない、と強調しています。外侵で様々な被害又は試練を味わった老齡者等はかえって理解し、過去の事を忘れようとする傾向ですが、何の試練も苦痛も味わっていない若い衆は歴史的な事実で感じたにもかかわらず、その感情はなかなか理解できない様な気がします。

한국과 일본은 이제까지 가깝고도 먼 나라 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매우 가까운 이웃사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남과북으로 갈라져 언제, 어떤사태가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 긴급사태가 일어나서 우방국이 돕는다면, 이웃사촌의 도움이 빠르지 않겠습니까?

韓国と日本国はこれまで近くて遠い国だと言われていました。しかし、これからは親しく近い、近所の従兄弟にならなくてはいけないんじゃないんですか。我が国は現在南北に分断され、何時、何処でどんな事態が起こるかは誰も予測出来ないのが実情です。万が一緊急事態が起こって友好国の助けでも求める際、近所の従兄弟の方が有利だと思いませんか?

과거에는 일본의 국력에 미치지 못해 침략을 당했지만, 오늘날의 상황은 바뀌어 우리나라도 고도성장으로 어깨를 맞겨누고 있어, 어느 분야에는 앞선 부분도 있는 현실에 금후 침략이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過去は日本の国力に及ばなかった事で侵略に遭いましたが、現在の状況は変わり、我が国にも高度成長した国力で肩を比べて居

り、ある分野では先立っている部分もあります。現実に関後侵略とは想像出来ない事ではありませんか。

그간 약탈된 문화재도 일부 반환되기도 했지만 아직도 미결된 것이 많기는 하지만 뇌우침도 엿보이는 것을 감안해서 과거를 잊고 이웃사촌으로서의 태세를 갖추어 미래를 위해 믿을 수 있는 이웃사촌으로 매진해 나갔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その間略奪された文化財も一部返還もされましたが、未決になっているのも少なくありませんが、悔い改めてる気配も見える事を勘案して過去を忘れ、近所の従兄弟の態勢を備えて、未来の為にも信じられる近所の従兄弟になるよう邁進させたいのが私の志です。

본인은 일본 大阪에서 태어나 14 세때 귀국하여 그뒤 70 년대 초반부터, 90 년대 초반까지 東京에 유학사증으로 드나 들면서 대기업인 東京 가스 (주)에 취업되면서 일본인과의 접촉이 많았습니다. 그 연대만 하더라도 한국사람을 멸시하는 경향이 엿보였습니다만, 그때마다 좋게 받아들이고, 설득시킴으로서 자연히 친밀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상대성이 아닐까요? 내가 잘 받아들이면서 설득을 잘 시켜나가면, 만사는 둥글게 굴러나갈 줄 믿습니다.

私は大阪で生まれ育ち 14 歳の時帰国して、その後 1970 年度の初め頃より 90 年度の初め頃まで留学のビザで往来し、大手メーカーの東京ガス (株) で勤めながら、日本の人との付き合いが多かったです。その当時までは韓国の人を見下げる様な気配が見えそうだったが、その都度素直に受け入れ、説得させると、自然に親密感に巻き込まれ始まります。人間は皆相対的です。自分が素直に受け入れ説得すれば、万事は円く収まると思います。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과거를 이해하고 이웃사촌으로서의

태세를 갖추어 미래를 위해 믿을 수 있는 이웃사촌으로 매진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바램입니다.

再度の話ですが、過去を理解して近所の従兄弟での態勢を備えて未来の為に信じられる近所の従兄弟になるよう邁進させたいのが私の願いです。

한국명 韓國名 임동환 任東煥

일본명 日本名 木村 昭

출생지 出生地 韓國 일본 日本

생년월일 生年月日 1933년 3월 28일

일본에서 살았던 곳 日本で住んでいたところ

(出生地) 大阪市西淀川区福町 337 番地

한국으로 돌아간 해 韓國へ帰った年 14 세 때 귀국

현주소 現住所 釜山市



도쿄 가스 근무 시대 東京ガス勤務時代



도쿄 가스 근무 시대 東京ガス勤務時代



일본어 교실에서 강의 풍경 日本語教室での講義風景  
(2012년 6월 21일 촬영撮影)



(2012년 7월 20일)

崔善吉

한일 우호 교류회 1996년 고노 전회장 과 나는 11년  
韓日友好交流會 1996年から 河野元会長と私 11年

한일 우호 교류 회장 최선길  
韓日友好交流會 會長 崔善吉

벌써 16년 세월이 흘렀다. 고노 회장이 오랜 기간 모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다가 고향 나고야로 돌아간 후 2대, 3대회장을 거쳐 2011년 1월부터 4대 회장이 되었다.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시내 광복동 ESS 학원 5층 (현재는 부산 글로벌 센터 : 연제구 국민연금 부산 회관 13층)에서 정기모임을 가져왔다.

もう 16年の歳月が流れた。河野会長が長年会の発展のために努力され故郷名古屋に帰られた後、2代目、3代目の会長を経て、2011年1月から私が第4代会長となった。毎月第2土曜日の午後5時から市内光復洞 ESS 学園 5階 (現在は、釜山グローバルセンター : 蓮堤区国民年金釜山会館 13階) で定期的な例会を開いてい

る。

초청 강사의 한일 관련 특강과 그룹별 토론회 최종 정리발표 그리고 기념 촬영 2 차식사 모임까지 약 3 시간 정도 진행했다. 5 월과 10 월 야유회를 개최하며 매년 12 월에는 망년회를 열어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된다.

ゲスト講師の韓日関係特別講義とグループ別の討論会、最終まとめ発表と記念撮影、二次会の食事まで約 3 時間ほど要した。5 月と 10 月はピクニックを開催し、毎年 12 月には忘年会を開いて楽しい時間を過ごす。

매월 특강 강사는 일본어 정통 발음을 감안하여 가급적 부산 시내에 살고 있는 일본 분들을 모시고 있다. 최근에는 부산에 근무하는 일본 총영사관 영사들, 일본인 학교 교사들, 일본에서 부산시청에 파견 온 공무원들, 야마구치 은행원들 등 다양한 분들이 모임에 참가하면서 한일 양국의 우호 증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毎月の特講講師は日本語正統の発音を勘案して可能な限り釜山市内に住んでいる日本の方をお迎えしている。最近では、釜山に勤務している日本の総領事館領事、日本人学校の教師、日本から釜山市庁に派遣されてきた公務員、山口銀行員など、様々な方々が例会に参加して韓日両国の友好増進に努めている。



日本國風流詩吟吟舞会  
(2011년 9월 5일)



부산에서 열린 한일 국제 교류 포럼 발표 "일본어를 배우고  
좋았던 점" 釜山で行われた韓日国際交流フォーラム  
発表「日本語を学んで良かった点」 (2012년 9월 15일)



후쿠오카 일한 자매단체 네트워크 방문단 환영회  
日韓市民姉妹交流ネットワーク福岡一行歓迎會  
(옛골 한정식 昔の村定食 2007년 7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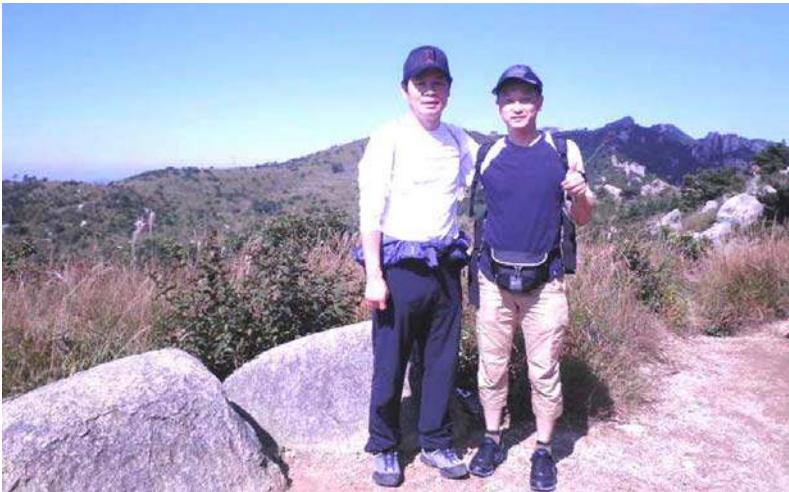
제 138 번 고노다케시 회장 송별회 第 138 回 河野會長送別會  
(범일동 황실 예식장 카스루 뷔페 凡一洞皇室禮式場カースル  
ビュッフェ 2007년 10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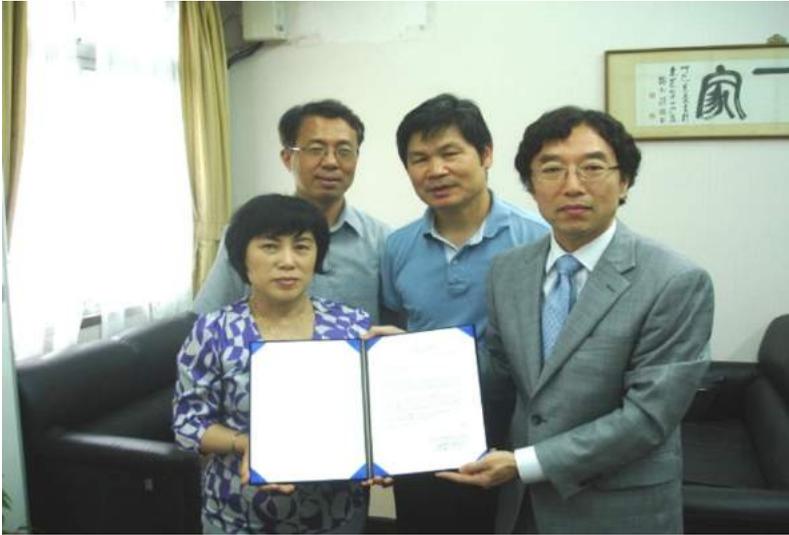
제 178 번 최선길 회장 특강 "한일 교육 제도 비교"  
第 178 回 崔善吉會長特別講演「韓日教育制度比較」  
(2010년 11월 13일)



후쿠오카방문 福岡訪問  
(2011년 3월 26일)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시청 파견 공무원 우에타상과 부산 금정산  
등산 下關市役所から釜山廣域市に派遣された公務員植田さんと  
釜山市内の金井山で (2011년 5월 10일)



일본 동북 대지진 피해자 지원 성금 감사장 수령 일본 영사관  
방문 東北大地震誠金日本總領事館訪問 感謝便紙受領  
(2011년 07월 11일)



제 193 번 아마노 마츠오 "자신을 알다" 第193回天野松男「自分を知る」  
(일본기타규슈에서 오신 아마노상 특강 日本の北九州から来た天野さんの特別講演 2012년 6월 9일)



부산 광명고등학교 나가사키 평화공원 방문  
釜山光明高等學校 長崎平和公園訪問  
(2011년 2월)

내가 근무하는 부산 광명고등학교 논술 동아리 학생 40 여 명을 인솔하고 2011년 2월에 나가사키를 방문하여 기무라 선생님의 능숙한 한국어로 안내를 받았으며 그 유명한 나가사키 짬뽕을 단체로 먹으면서 일본의 음식도 경험할 수 있었다. 우리 학생들이 현지를 방문했을 때 나가사키 역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歡迎이란 손으로 쓴 현수막을 들고 서 있던 나가사키 회원들의 환대를 잊을 수 없다.

私が勤務している釜山光明高校論述サークルの学生40人余りを率いて2011年2月に長崎を訪問した。木村先生の上手な韓国語で案内を受け、あの有名な長崎ちゃんぽんを皆で食べ、日本の食べ物を経験した。生徒たちが現地を訪問した際、寒い天気にもかかわらず、長崎駅に歡迎と手で書いた横断幕を持って立っていた長崎日韓親善協会の方々のおもてなしを忘れることができない。

나가사키에서 일본 전차를 처음 타보기도 했다. 지금까지

술하게 일본을 방문하면서 처음으로 나가사키 원폭 기념관을 방문하여 교육적인 효과가 더욱 컸다. 일본을 단순하게 방문하여 관광만 즐기고 오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진정한 양국 간의 우정을 쌓기 위해서 진심어린 우호를 증진해야 하며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長崎で日本の電車に初めて乗った。今まで何回か日本を訪問したが、初めて長崎原爆記念館を訪問し、教育的な効果がさらに大きかった。日本をただ見るだけの観光を楽しむのも悪くはないが、真の両国間の友情を築くために心のこもった友好を増進する必要があり、相互利益を得ることができる方法を模索しなければならない。

앞으로는 일본을 방문할 경우에 관광 위주의 여행을 가급적 하지 말고 교육적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今後日本を訪問する時は観光中心の旅をなるべくせず、教育的効果を倍加することができる方向へ展開すべきだという気がした。

한국명 韓国名 최 선 길 崔善吉 Choi, Seon-Gil

일본명 日本名

출생지 出生地 한국 韓国

생년월일 生年月日 1961년 1월 11일

일본에서 살았던 곳 日本で住んでいたところ

한국으로 돌아간 해 韓国へ帰った年

현주소 現住所 釜山市



( 1931년 1월 1일 )

## 溫 次 源

小学生の頃、大雪が降り続いていた北海道で兄弟達と雪遊びをしていた思い出が浮かび上がります。1945年9月韓国に帰国し、故郷の清道で1年間住んだ後釜山に引越して、学校の教育を終えて自営業で現在に至りました。

초등학교 시절,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홋카이도에서 형제들과 눈 놀이를 하고 있던 추억이 떠올립니다. 1945년 9월 한국에 귀국해 고향 청도에서 1년간 거주한 뒤 부산으로 이사하여 학교 교육을 마치고 자영업자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日本に対して率直な心情は、日本の政治人も極右団体もいまだに過去 36年間の過ちを認めていないのが残念だ。庚戌年の国恥、強制合弁は我が祖先等の無能と分裂で起きたが、二次大戦後独立した国として真に暮らして来た。ところが、最近、独島(竹島)の問題も慰安婦に関した日本の人々の無理押し主張と謝罪していないのが、ずっと物足りない気がする。

일본에 대해 솔직한 심정은 일본의 정치인도 극우 단체는

여전히 과거 36 년간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유감이다. 庚戌年의 국치(国恥) 강제 합병은 우리 조상 등의 무능과 분열에서 일어 났지만, 이차 대전 후 독립 한 나라로서 참된 삶을 살아왔다. 그런데 최근 독도(다케시마) 문제도 위안부에 관한 일본 사람들의 억지 주장과 사죄하지 않는 것이 계속 아쉬운 생각이 든다.

我が大統領が独島を訪問するのは当然な事だ。ナチ独逸はアイシユ海岸で首相が膝をついて詫びた姿とはあまりにも対照的である。過去は過去だ。すべてをお互い尊重して近い隣国同士、理解と容赦で心を開き、お互い協力して助け合う友好を深めるよう願う。

우리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치 독일은 아이슈 해안에서 총리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과거는 과거다. 모두 서로 존중하고 가까운 이웃끼리 이해와 용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협력하고 돕는 우호를 깊게하기 바란다.

この前の福島の大災害で町が流失する惨酷な事態を我等は痛ましく思い、小学生までも義捐金募金に参加して慰労しようとする気持ちをわかって欲しいのです。

지난 후쿠시마 대참사로 마을이 유실하는 가혹한 상황을 우리들은 안쓰럽게 생각하여 초등학생까지 기부금 모금에 참여하고 위로 하려는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以上 이상

한국명 韓國名 溫次源 온차원

일본명 日本名 吉田サタオ

출생지 出生地 한국 韓國 일본 日本

생년월일 生年月日 1937년 12월 10일

일본에서 살았던 곳 日本で住んでいたところ

北海道上川郡鷹取栖村字近文式老線式老号區

한국으로 돌아간 해 韓國へ帰った年 1945년 9월

현주소 現住所 釜山市



백산기념관 白山記念館 (2011년 11월 2일)



백산기념관 白山記念館 (2011년 11월 2일)



(2012년 6월 20일)

金貞贊

\* 양심없는 답답한 나라 \*

\* 良心がなくて気掛かりな国 \*

1993년 8월 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은 위안소는 군당국의 요청으로 설치했고 위안부 소집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감언 강압이 많았고 관헌들이 폭넓게 직접동원에 가담한 강제성 책임을 인정한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금년(2012년) 10월 8일 河野 전 장관은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위안부문제를 부정할 경우 미국과 유럽국가로부터 인권의식을 의심받아 국가 신용상실의 위기를 맞을것이라고 경고했다.

1993年8月、当時の河野洋平官房長官は、慰安所は軍当局の要請で設置され、慰安婦召集は本人の意思に反し甘言、強圧が多く、官憲が幅広く直接動員に加担し、その強制性に責任を認めるとの談話を発表した。今年（2012年）の10月8日、河野元官房長官は読売新聞とのインタビューで日本が慰安婦問題を否定すれば、米国と欧州の国家より人権意識を疑われ、国家信用の危機となると警告した。

지금 일본총리 野田佳彦, 大阪市長 橋本(도오루)는 강제동원된 근거는 없다는, 妄言記事가 방송되어 한국사람들은 분노의 불길이 활활 타고르고 있다. 일본정치인들은 선거때마다 일본우익과 들의 표를 의식해서 한일 우호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最近、日本の総理の野田佳彦、大阪市長の橋本（徹）氏の強制動員した根拠は無いとの妄言記事が報道され、韓国の人々に憤怒の炎が燃え上がっている。日本の政治人等は選挙がある度に日本右翼派が得票し、考え方で日韓友好関係に冷水を浴びせている。本当に残念に思う。

지금 80 대 초, 중반의 할머니들이 평화의 집에서 60 여명이 의로히 지내고있다. 13 살에서 20 살 미만의 소녀들을 조직적으로 강제적으로 동원된 이름하여 위안부다. 이 할머니들은 "나는 위안부가 아니다" 일본놈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몸과 마음이 갈기갈기 찢긴 이 원한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는가! 할머니들은 인류에 반한 행위를 반성하고 사과하면 과거는 용서하겠다, 그러나 잊지는 않겠다고 한다.

現在 80 代初・中盤のおばあさんは平和の家で 60 余名が寂しく暮らしている。13 歳から 20 歳未満の少女等を組織的に、強制的に動員し、その名が慰安婦だ。このおばあさん等は、私は慰安婦ではない、日本の者にそうされた、体と心までばらばらに破れた、こんな怨恨をどうして忘れられるのでしょうか、人倫に反した行為を反省して過ちを誤れば、過去の事は容赦する、でも、忘れることは出来ない、と言っている。

일본 阿部와 橋本 발언 이후 미국하원과 유럽의회는 20 세기 최악의 인신매매 사건이라며 일본정부에 사죄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독일이 2 차대전후 과거사에 대한 처절한 반성에 프랑스와 화해를 이루어 오늘의 유럽연합을 만들었

듯이 일본도 잘못된 역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하고 과거사에 종지부를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日本側の阿部と橋本両氏の発言後、米国下院と欧州議会は 20 世紀最悪の人身売買事件だと日本政府に謝罪要求する決議案を採択した。ドイツが 2 次大戦後過去史に対して凄絶な反省でフランスと和解に至り今日の欧州連合を築き上げた如く、日本も誤った歴史に対して真正性の有る謝罪で過去史に終止符を付けて欲しいのが望みです。

한국과 일본이 화해하여 보다 성숙한 자세로 새 시대를 열어 나간다면 양국 경제발전은 물론 아름다운 이웃으로 잘 지내게 될것이다. 일본국민중에 河野洋平장관 같은 지극히 양심적인 좋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미운 감정에 많은 위로가 된다.

韓国と日本が和解され、より成熟した姿勢で新しい時代を開けて行けば両国経済発展は勿論、美しく、仲の良い隣近諸国として過ごせるでしょう。日本国の中に河野洋平長官の如く至極良心的な良き人も多いと信じることで、憎い感情をうんと和らげることが出来る。

문화유산해설사  
文化遺産解説士  
金貞贊

한국명 韓國名 김정찬 金貞贊

일본명 日本名

출생지 出生地 한국 韓國

생년월일 生年月日 1937 年 6 月 24 日

일본에서 살았던 곳 日本で住んでいたところ

한국으로 돌아간 년 韓國へ帰った年

현주소 現住所 釜山市



지인의 김영대 씨, 임동환 씨와 함께  
知人の金永大さん、任東煥さんとともに  
(서면 西面 2012년 10월 20일)



지인의 임동환 씨와 함께  
知人の任東煥さんとともに  
(중앙동 中央洞 2012년 10월 20일)



(2012년 10월 20일)

## 金永大

チョッパリ、チュムパツ、トンパカチ — わが人生に悔いなし —  
쪽바리, 주먹밥, 동바가지 — 내 인생에 후회 없이 —

「これは証拠のサッカリンの原料だ。通せ。」

「それは出来ません。」

「お前は4級だろ。俺は3級だ。通るぞ。」

"이것은 증거인 사카린의 원료다. 통과."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너는 4 급이겠지. 나는 3 급이다. 통과할거야."

1966年9月22日、国会議事堂の出入り口での私と警備隊長とのやりとりだ。6ポンドのペンキ缶にメリケン粉を振りかけ議事堂内に持ち込んだ。そして、韓国独立党の金斗漢議員に手渡した。当時、私は金斗漢議員の秘書をしていた。

1966년 9월 22일 국회의사당 출입구에서 나와 경비대장과의 주고받는 말이다. 6파운드의 페인트 통 밀가루를 뿌리고 의사당 내에 반입했다. 그리고 한국독립당의

김두한의원에게 자수했다. 당시 나는 김두한의원의 비서를 하고 있었다.

「この国にはこの4人を処罰できる者がいない。私が処罰する。」  
「이 나라는 이 4 명을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내가 처벌한다.」

そう言って、金斗漢議員は国会質問の最中に、持ち込んだペンキ缶をあけ、その中に入れてあった人糞を前に座っていた丁一権総理をはじめ4人の閣僚にぶっかけた。国会汚物投擲事件だ。

그렇게 말하고, 김두한 의원은 국회질문 중에 들어온 페인트 깡통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인분을 앞에 앉았던 정일권 총리를 비롯한 4 명의 각료에게 마구 끼얹었다. 국회오물투척사건이다.

国会は韓国肥料株式会社のサッカリン密輸事件でもめていた。金斗漢議員も私も国民を食べ物にするやつは許せないという気持ちだった。このようなことがあってか、私はトンパカチと呼ばれるようになった。実は、ペンキ缶に人糞を入れる時、量が少なくして自分の小も入れた。もう言ってもいいだろう。

국회는 한국비료주식회사의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분분하고 있었다. 김두한의원도 나도 국민을 먹이로 하는 놈은 용서할 수 없다는 기분이었다. 이런 일이 있어서인지 나는 똥바가지라고 불리게 되었다. 사실, 페인트 통에 인분을 넣을 때 양이 적어 자신의 소변도 넣었다. 이제 말해도 좋을 것이다.

金斗漢議員の秘書は17年間勤めた。私は日本語がよくわかったので、朝日新聞など日本のマスコミ情報を韓国語に翻訳して渡し、議員の活動を支えた。

김두한의원의 비서는 17 년간 근무했다. 나는 일본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정보를 한국어로

번역해 전달하고, 의원의 활동을 지원했다.

私の生まれは京都市左京区。ここに5歳までいた。それから大阪の天王寺に約1年間。そして下関に移り、そこで終戦を迎えた。

내가 태어난 곳은 교토시 사쿄구. 여기에 5 살까지 있었다. 그리고 오사카 텐노지에 약 1 년. 그리고 시모노세키로 옮겨 거기서 종전을 맞이했다.

下関では向山(むかいやま)尋常小学校へ通った。1年間学徒動員され林兼造船所で溶接工として働いた。800馬力のジーゼルエンジン4個をつけた1000t級の輸送船を6ヵ月くらいかけて造っていたが、アメリカは1ヵ月くらいで造っていたらしい。これで、あなた、戦争に勝てると思いますか。だけど、私は勝つと思っていた。我々には神風がついていると。特攻隊にも入りたと思っていた。潔く散って、靖国に神として祀られる。これ以上の光栄の至りはないでしょう。

시모노세키에서는 무카이야마(向山) 진조소학교에 다녔다. 1 년간 학도 동원되어 린캥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했다. 800 마력의 디젤엔진 4 개를 붙인 1000t 급 수송선을 6 개월 정도 걸쳐 만들었지만, 미국은 1 개월 정도에서 만들고 있던 것 같다. 이제, 당신, 전쟁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나는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 우리에게는 카미카제가 붙어 있다고. 특공대에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깨끗하게 죽어서, 야스쿠니에 신으로 모셔지다. 더 이상 영광스러울 수는 없겠지요.

私は神風がついていると思っていたので日本の勝利を疑っていなかったが、しかし、両親はここ(下関)にいたら死んでしまうと言っていた。終戦直前は下関も空襲が激しかった。1945年6月、中学2年の時、釜山に帰ることになり、天山丸という関釜連絡船に乗ったが、途中で水雷が爆発し、8000t級の連絡船がふわっ

と浮き上がり、かと思うと電灯は消え、地獄へ落ちた思いだった。米軍が日本軍の補給を断つために輸送船の航路に水雷を敷設していたのだ。幸い沈没は免れたが、船は傾いたまま引きずられて下関港へ戻った。その後、1945年10月、焼き玉エンジンの、10mくらいあったろうか、小さな船に私達家族他合わせて7~8人の人が乗って釜山に帰った。

나는 카미카제가 붙어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본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부모님은 여기(시모노세키)에 있으면 죽을 거라고 했다. 종전 직전에는 시모노세키도 공습이 심했다. 1945년 6월, 중학교 2학년 때 부산으로 돌아가게 되어, 텐잔마루라는 관부연락선에 탔지만 도중에 수뢰가 폭발, 8000t 급 연락선이 붕·떠오르는 듯싶더니 전등은 꺼지고 지옥에 떨어진 생각이었다. 미군이 일본군의 보급을 끊기 위해 수송선의 항로에 수뢰를 부설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행히 침몰은 면했지만, 배는 기울어진 채 끌려서 시모노세키항에 들어갔다. 그 후, 1945년 10월, 야끼다마엔진의, 10m 정도 될까, 작은 배에 우리가족의 모두 7 ~ 8 명의 사람이 타고 부산으로 돌아왔다.

帰ってからは、36年間の植民地支配から解放されたということで浮かれた気分はあったが、政治も何もかもめちゃくちゃだった。私はソウルの徳寿商業学校に入った。しかし、韓国語が出来なくていじめられた。あだ名はチョッパリ。いじめられて殴られるばかりだった。それで、復讐したくてボクシングクラブに入った。殴り返そうと思ったのだ。半年もたてばボクシングもそれなりに上達し自信が出来た。もう自分に勝つやつは誰もいなくなった。けんかを売られれば「一本立ちでやろう」と言って対峙した。誰も私にかなわなくなった。クラスで一番強くなり、学校で一番強くなった。新しいあだ名はチュムパッドだった。顔が「おにぎり」のようだからだ。

돌아와서는, 36 년간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으로 들뜬 기분이었지만, 정치도 그 무엇도 모두 엉망이었다. 나는 서울의 덕수상업학교에 들어갔다. 하지만 한국어를 못해 왕따 되었다. 별명은 쪽바리. 왕따 당하고 폭행당할 뿐 이었다. 그래서 복수하고 싶어 복싱클럽에 들어갔다. 때려주려고 생각했던 것이다. 반년 지나자 복싱도 나름대로 능숙해 자신감이 생겼다. 이제 자신을 이기는 놈은 아무도 없어졌다. 싸움을 걸이 오면 "一本立ち로 하자"하며 대치했다. 아무도 날 이길 수 없게 되었다. 반에서 가장 강해져, 학교에서도 가장 강해졌다. 새별명은 주먹밥이었다. 얼굴이 "주먹밥"과 같았기 때문이다.

日本に対する感情? 何もない。祖父や両親は反日感情が強かったが、自分は今でも「大日本帝國万歳」だ。自分にあるのは、日本で生まれ、育ち、学んだという故郷を想うノスタルジアだけだ。

일본에 대한 감정? 아무것도 없다. 할아버지와 부모는 반일감정이 강했지만, 자신은 지금도 "대일본제국만세"다. 자신에게 있는 것은,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고 배웠다고 하는 고향을 생각하는 향수뿐이다.

한국명 韓國名 김영대 金永大

일본명 日本名 金沢一平

출생지 出生地 일본 日本

생년월일 生年月日 1930 년 12 월 1 일

일본에서 살았던 곳 日本で住んでいたところ

京都市左京区、大阪市天王寺、下関市東大坪町 278

한국으로 돌아간 년 韓國へ帰った年 1945 년 10 월

현주소 現住所 釜山市



지인의 김정찬 씨, 임동환 씨와 함께  
知人の金貞贊さん、任東煥さんとともに  
(송정松亭 2012년 10월 21일)





## 후기 あとがき

### 編集上の問題について 편집상의 문제에 대하여

韓国語のできない私が韓国語・日本語対訳のこのような文集を編集するのはかなり無謀であったと思う。日本語だけにしておけば、作業はもっと楽だったと思う。実際、あまり細かなことは考えずに釜山に降り立ち、地下鉄中央駅を皮切りに日本語通訳ボランティアの方々を中心に会う人ごとに寄稿を募った。それが 2011 年 4 月 29 日。それから 1 年半が経過してしまった。入力・翻訳ボランティアの方々には随分お世話になった。これらの方のご協力がなければこの文集はできなかった。ここに、まずはこの文集の出版の趣旨にご賛同頂き、入力・翻訳にご協力頂いた方々に謝意を表したい。

特に、朴清九さんには、原稿を集める段階から原稿の校正に至るまで貴重なアドバイスを頂いた。ここに、あらためて記して御礼申しあげたい。

한국어를 모르는 제가 한국어와 일본어가 함께 수록된 이러한 문집을 편집한다는 것은 매우 무모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일본어 만으로 했더라면, 작업은 더 편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실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부산에 내려서, 지하철 중앙역을 시작으로 일본어통역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기고를 부탁했다. 그것이 2011 년 4 월 29 일. 그로부터 1 년 반이 경과했다. 입력·번역 자원봉사자들에게는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분들의 협조가 없었더라면 이 문집은 만들 수 없었다.. 이에, 우선 이 문집의 출판 취지에 찬동해 주시고, 입력·번역에 협력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특히, 박청구씨에게는, 원고를 모으는 단계에서부터 원고의 교정에 이르기까지 귀중한 조언을 받았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다.

多くの寄稿者の方が、日本語は韓国語に、韓国語は日本語に自ら翻訳して両方の原稿を出して頂いた。韓国語あるいは日本語だけの方は翻訳ボランティアの方々に翻訳して頂いた。その際、寄稿者の文書できるだけそのまま使用し、日本語でいう「てにをは」の修正、句読点の追加等、最小限の修正にとどめた。また、旧仮名遣い、旧漢字もほぼそのまま残している。今となっては標準語ではないが、それでよしと考えた。その人の思いを出すことに意義があると考えた。まさに当時は忍ばれる感がある。もう一つ、フォントの問題。韓国語と日本語で共通の文字もあれば、ないものもある。そのために、印刷の濃さが不自然なものがある。まあ、これもいいでしょう。

많은 분들이, 일본어는 한국어로, 한국어는 일본어로 직접 번역해서 2 개국으로 된 원고를 내어 주셨다. 한국어 또는 일본어로만 쓴 원고는 번역 자원봉사자들이 번역해 주셨다. 이 작업에서, 기고자의 글은 최대한 그대로 살리고, 토씨 등의 수정, 구두점 추가 등은 최소한의 수정에 그쳤다. 또한 구(旧)가나표기법, 구(旧)한자도 거의 그대로 남겼다. 지금은 표준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 사람의 생각을 나타내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했다. 실로 당시가 들어나지 않는 느낌이 있다. 또 하나, 글꼴(글모양)문제. 한국어와 일본어는 공통되는 문자가 있는가 하면, 없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인쇄의 농도가 부자연스러운 데가 있다. 이것도 그런대로 넘어가자.

韓国語はよく分からないが、韓国語も必ずしも標準語的表現だけではないと思う。漢字も随分混じっている。当初はあまり気にならなかったが、途中で、若い人にも読みやすくなるよう漢字を全部ハングル化しようと考えた。しかし、また翻訳協力者の方の手を煩わせることを考えると、最終的には貫徹できずにいくつかの文書では漢字が残っている。韓国では漢字教育が見直されていると聞くので、これもよしでしょう。

한국어는 잘 모르지만, 한국어도 반드시 표준어적인 표현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자도 상당히 섞여 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도중에, 젊은 사람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자를 전부 한글화 하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또다시 번역봉사자들을 번거롭게 해 드린다고 생각되어, 결국 관철하지 못하고, 일부 문장에는 한자가 남아 있다. 한국에서는 한자교육이 재검토 되고 있다고 하니 이것도 좋다고 하자.

各寄稿者の文書で、日本語が先で次に韓国語があるのは、寄稿が日本語でなされ、それを韓国語に翻訳したことを示す。逆に韓国語が先にあるものは、韓国語の原文を日本語に翻訳したことを示す。翻訳文は原文とニュアンスが異なることがあるので、寄稿者のお考えをよりストレートに伝えたいと考え、原文を前に配置した。

각 기고자의 문장에서, 일본어가 앞에 있고 다음에 한국어가 있는 것은, 기고가 일본어로 된 것을 한국어로 번역했음을 나타낸다. 반대로 한국어가 먼저 있는 것은, 한국어 원문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임을 나타낸다. 번역문은 원문과 뉘앙스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고자의 생각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원문을 앞에 배치했다.

寄稿をお約束してくれた方が他にもいるが、原稿が届かなかった。やはり、自分の思いを「書く」という作業は面倒なことだったと思う。

기고를 약속해 주신 분이 그 밖에도 계시지만, 아직 원고도 도착되지 않고 있다. 역시 자기의 생각을 “쓴다”라는 작업은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あまり言い訳をしても仕方ない。私はもともと編集は素人だ。編集スタイルは素人っぽいかも知れないが、折しも竹島(韓国名独島)問題で日韓の間に急に緊張が走った今、それはそれとして、この文集が日韓友好の一助となることを願うだけだ。

너무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다. 나는 원래 편집은 문외한이다. 편집 스타일은 미숙할 지도 모르지만, 때마침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문제로 일본과 한국 사이에 갑자기 긴장감이 감도는 지금, 그것은 그렇다 치고, 이 문집이 한일우호에 일조하기를 바랄 뿐이다.

**本書出版の私的背景 본서출판의 사적배경 :**

そもその事の始まりは、私のアルゼンチン赴任にあるかも知れない。JICA の労働安全衛生の技術支援のために、2003 年 4 月 (54 歳) から 2 年間アルゼンチンに派遣された。そこで韓国からやはり仕事で来ていた Teresa という知人ができた。帰国後 2009 年に彼女と二回韓国で会った。断っておくが、彼女のご主人と同伴である。こちらは、一回目は自分だけ、二回目は妻と共に会い、歓談した。そのような事があってがぜん韓国への親近感が強くなった。

애초 일의 발단은, 나의 아르헨티나 부임에 있는지도 모른다. JICA 의 노동안전위생의 기술지원을 위해, 2003 년 4 월 (54 세)부터 2년간 아르헨티나에 파견되었다. 그곳에서, 한국에서 역시 일 때문에 와 있던 Teresa 라는 사람과 알게 되었다. 귀국 후, 2009 년에 그녀와 한국에서 두 번 만났다. 미리 말해 두지만, 그녀는 남편과 동반이었다. 나는, 한 번은 나 혼자, 두 번째는 아내와 함께 만나 환담했다. 그런 일이 있어 갑자기 한국에 대한 친근감이 강해졌다.



김상만씨 가족 金相晩さんご家族 (2010 년 9 월 20 일)

2010年9月に統営を数日間旅した。閑山島を一回りして先勝堂入り口の大捷門を出ようとした時、ある老人が写真を撮ってくれと日本語で話しかけてきた。それが家族旅行中の金相晩さんだった。名刺を交換すると「釜山日語奉仕会」という文字に興味があった。その後、釜山日語奉仕会の研修会に「押しかける」などして、韓国の人々との友好が深まった。

2010년 9월에 통영을 며칠간 여행했다. 한산도를 일주하고 선승당 입구에 있는 대첩문을 나오려 했을 때, 한 노인이 사진을 찍어 달라고 일본어로 말을 걸어왔다. 그 분이 가족여행중의 김상만씨였다. 명함을 교환하니 "부산일어봉사회" 라는 글자에 흥미가 일어났다. 그 후, 부산일어봉사회의 연수회에 "찾아가는" 등 한국인들과의 우호가 깊어져 갔다.

旅行中は韓国の人々と必然的に接触することになる。本書出版に至る経過は、資料として出している「出版の趣旨」に書いているので、それをご参照願いたい。

여행중에는 한국인들과 필연적으로 접촉하게 된다. 본서 출판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는 자료로써 제출한 "출판의 취지"에 써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기 바란다.

人の出逢いは不思議だ。Teresa との出会い、金相晩さんの一言がなければこの本もなかったかも知れない。今後、日韓の友好のために微力を尽くしていきたい。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불가사의하다. Teresa 와의 만남, 김상만씨의 한마디가 없었더라면 이 책도 없었을 지도 모른다. 앞으로, 한일우호를 위해 미력을 다하고 싶다.

2012년 9월 16일

天野松男

아마노 마쓰오



## 참고 자료 參考資料

### (1) 문집 간행의 취지 文集出版の趣旨

다음 문서에서는 해당 글을 원하는 때 배포 한 것이다.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있다.

以下の文書は、ご寄稿を願う際に配布したものである。一部文言を修正・編集している。

\*\*\*\*\*

「나의 한국, 나의 일본 私の韓国、私の日本」

(가제 仮題)

기고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寄稿にご協力お願いいたします。

프리라이터 아마노마쓰오

フリーライター 天野松男

### 출판의 취지 出版の趣旨

これは、第二次世界大戦終戦前後の元在日韓国人の方の文集です。あるいは、元在日ではなくても、韓国内で日本との関わりのあった方に対する文集です。

이것은 제 2 차 세계 대전 종전 전후의 원래 제일 한국인에 대한 문집입니다. 또는 원래 재일이 아니라도 한국에서 일본과의 관계가 있었던 사람에 대한 문집입니다.

昨年の2010年は「日韓併合」100年の年でした。私はここ数年韓国のいくつかの都市を観光で訪れました。そして韓国の方々の優しさに触れてきました。一方では、「日韓併合」、日本帝国主義の過酷な支配という、韓国の方々にとって許し難い歴史があったことも知っておりました。だから、韓国の方々が日本人の私にどのように接してくれるのか心配でもありました。しかし、それは杞憂でした。若い方から年配の方に至るまで優しく接していただきました。お陰様で楽しく、有意義な旅を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地下鉄では、まごまごしている私にご老人が声をかけ、切符の買い方を教えてくれました。フェリーやバスの乗り場では、やはりまごまごしていた私に、若い青年が声をかけ、旅行案内をしてくれました。また、釜山日語奉仕会の方々からは私

の韓国への思いをさらに強めるもてなしをしていただきました。

지난해 2010 년은 "한일합방"100 년의 해였습니다. 나는 지난 몇 년 한국의 여러 도시를 관광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의 친절에 접해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한일합방" 일본 제국주의의 가혹한 지배는 한국 분들에게 있어서 용서받기 어려운 역사가 있었던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일본인인 나를 어떻게 대해 줄까 걱정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우였습니다. 젊은 사람부터 연배에 이르기까지 친절히 대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즐겁고 의미있는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나에게 노인이 말을 걸어 표 구입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페리 및 버스 정류장에서는 역시 우물쭈물하고 있던 나를, 젊은 청년이 말을 걸어 여행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부산 일어 봉사회의 분들로부터 나의 한국에 대한 생각을 더욱 강화할 대접을 받았습니다.

私は戦後生まれで、「日韓併合」や帝国主義時代の韓国支配の状況を直接体験していません。しかし、私の幼年時の頃や小学校から大人に至るまで、身近なところに韓国出身の子弟の方々が何人かいました。皆、いい人ばかりでした。韓国の子弟の友人・知人から私はいやな仕打ちを受けたことはありません。

저는 전후 태생으로, "한일합방" 또는 제국주의 시대의 한국 지배의 상황을 직접 체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 유년시 무렵이나 초등학교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가까운 곳에 한국 출신의 자제 분들이 여러명 있었습니다. 모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의 자제 친구 지인에게서 나는 싫은 처사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韓国で出会ったご老人の方々は、多くの方が日本語を話しました。自分は日本で暮らしていた、と話していました。そして、日本のことを懐かしんでいるように私は感じました。日本に対する思いは、決して楽しい、懐かしいものだけではないだろうと思います。韓国に対する日本の帝国主義支配のために、怒りや、悲しいことも沢山あったことと思います。

한국에서 만난 노인 분들 많은 분들이 일본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일본에서 살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나는 느꼈습니다. 일본에 대한 생각은 결코 즐거운 것, 그리운 것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 지배에 대한 분노,, 슬픈 일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私は、このような方々と接して、元在日韓国人や元在日でなくても韓国の中で日本人と関わりのあった方々の「今」の思いを記録し、残したいと思うようになりました。もし、あなたの事情が許すなら、あなたの今の韓国への思い、日本への思いを文書で寄せていただきたく、お願い申し上げます。そして、この計画が成功し、韓国と日本の友好の一助となることを願っています。

저는 이런 사람들과 접하고, 원래 제일 한국인이나 원래 제일 아니라도 한국에서 일본인과 관계가 있으신 분들의 "지금"의 생각을 기록하고 남기고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사정이 허락한다면, 당신의 지금의 한국에 대한 생각, 일본에 대한 생각을 문서로 내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성공하고, 한국과 일본의 우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출판 계획 出版計画**

◆ 원고 의뢰 대상 및 인원 原稿依頼対象および人数 :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60 세 이상분 韓国在住で、60 歳以上の方

- 1) 일본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는 분 日本で暮らした経験のある方
- 2) 일본에서 살았던 적은 없어도, 한국에서 일본과의 관계가 있었던 분  
日本で暮らしたことはなくても、韓国内で日本との関わりのあった方
- 3) 고객은 100 명 이상을 목표로 한다 依頼数は 100 人以上を目標とする

◆ 출판 出版

아마노마쓰오의 자비 출판 (출판사를 찾고 있어요)

天野松男の自費出版 (出版社を探しています)

한국어와 일본어를 병기하고 출판합니다.

韓国語と日本語を併記して出版します。

사진은 흑백입니다. 写真は白黒印刷になります。

책의 제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本のタイトルは変わる可能性があります。

출판예정일 出版予定日 : 2012 年年

◆ 기증 寄贈

기고하신 분들은 한 사람 한 권 기증 합니다.

寄稿していただいた方には、一人一冊寄贈いたします。

\*\*\*\*\*

## (2) 일본의 식민지 통치 시대에 태어난 인구

日本の植民地統治の時代に生まれた人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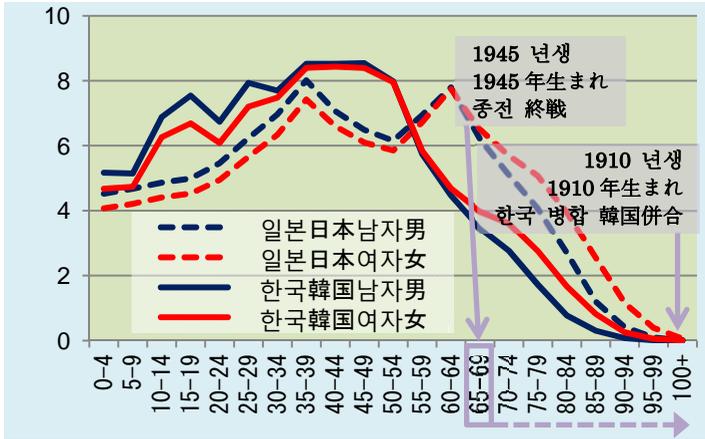


그림 1 한국과 일본의 인구 연령 구성 비교 (2010년 유엔 추산)

図1 韓国と日本の人口年齢構成比較 (2010年国連推計)



그림 2 일본과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및 비율(2010년 유엔 추산)

図2 韓国と日本の65歳以上の人口とその割合 (2010年国連推計)

그림 1 은 일본과 한국의 인구의 연령 구성을 보여 주고 있다. 2010 년의 시점에서 한국이 병합 된 1910 년에 태어난 사람은 100 세, 종전의 1945 년에 태어난 사람은 65 세이다.

그림 2 는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1945 년까지 태어난 인구 및 비율을 나타낸다. 한국의 65 세 이상 인구는 남녀 합해 500 만명 이상이다. 즉, 기억에 없는 어린 시절에도,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이 아직 500 만명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에 담긴 42 명의 사람들의 목소리는 극히 일부이다.

図 1 は日本と韓国の人口の年齢構成を示している。2010年の時点で、韓国が併合された1910年に生まれた人は100歳で、終戦の1945年に生まれた人は65歳である。

図 2 に、韓国が日本の植民地から解放された1945年までに生まれた人口およびその割合を示す。韓国の65歳以上人口は男女合わせて500万人以上いる。すなわち、記憶にない幼少時であっても、日本の植民地統治を少しでも経験した人がまだ500万人いるということだ。その意味では本書に収められた42人の人々の声はほんの一部だ。



이 책의 청구처 本書の請求先

이 책은 무료이며, 배송 실비는 청구자 부담입니다.  
本書は無料ですが、発送実費は請求者負担です。

• 韓国

曹京植

20210ksj@hanmail.net

釜山廣域市南區大淵洞 1511-3

TEL 051-902-3777

HP 010-6518-2772

• 日本国内は下記天野松男へご連絡下さい。

문집 나의 한국, 나의 일본 文集 私の韓國、私の日本

---

편집 編集	아마노 마쓰오 天野松男 mamano@qqmto.com
발행자 發行者	아마노 마쓰오 天野松男
주소 住所	〒808-0103 福岡県北九州市若松区二島 4-3-24
전화·팩스 電話·ファックス	+81-93-701-1245
발행일 發行日	2013年1月1日
반가 頒価	비매품 非売品

---

©2013 Matsuo Amano

Published by Matsuo Amano

Printed in Korea ISBN978-4-990694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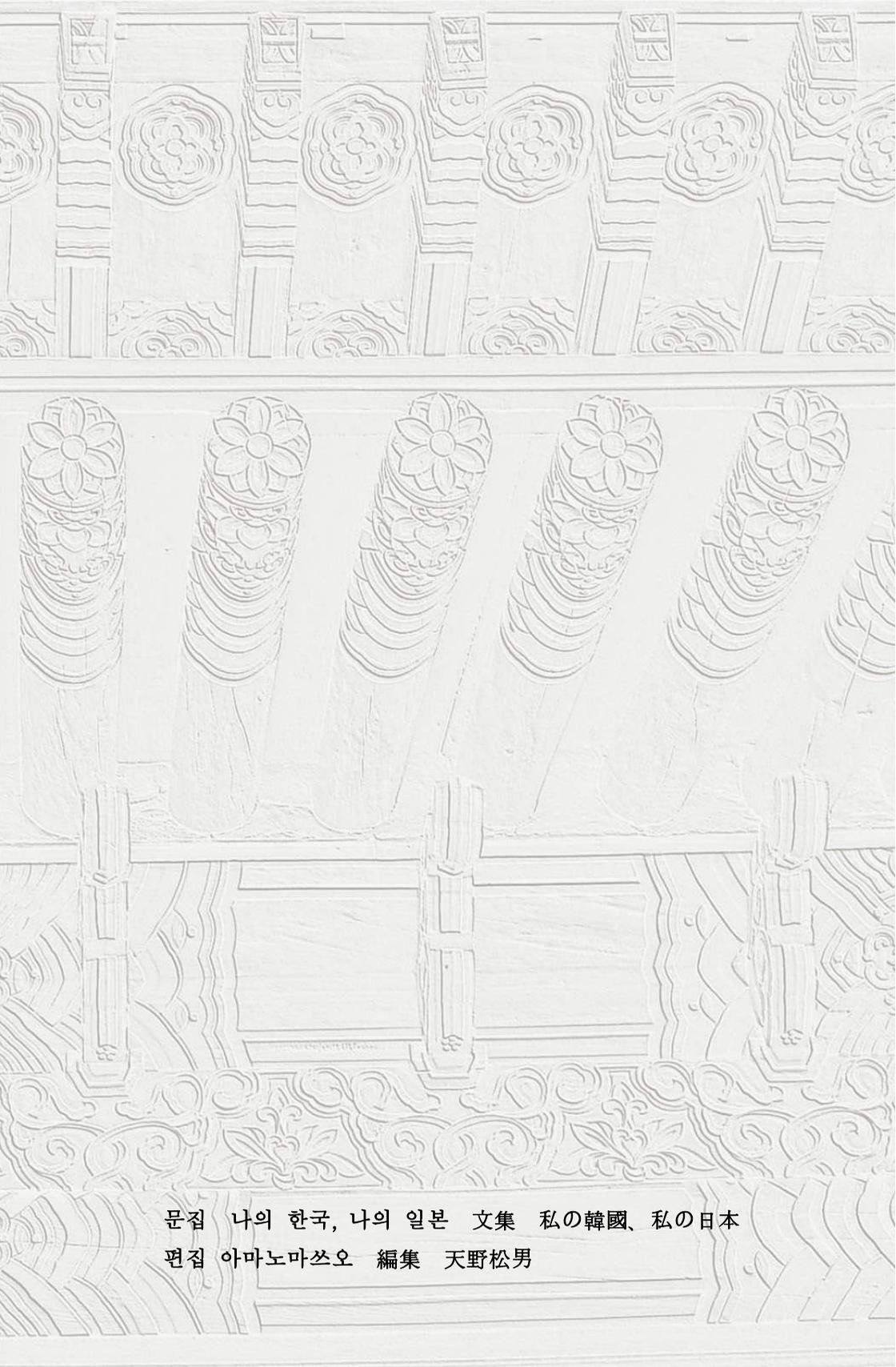












문집 나의 한국, 나의 일본 文集 私の韓国、私の日本  
편집 아마노마쓰오 編集 天野松男

文集 文  
集 集

나의 한국 나의 일본  
私の韓國 私の日本

편집 編  
아마노 集  
노마쓰오 天  
마쓰오 野  
오쓰오 松  
쓰오 男

뒷 표지  
背表紙